연구보고서 2020-14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연구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exhibition content for woman history and culture in Busan

釜山地域 女性歷史文化 展示content 開發 硏究

연구책임 : 하정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연구보조 : 허정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전문연구원)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왜 여성사 전시관 내지는 박물관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시린 에바디(Shirin Ebadi)의 “여성들은 세상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여성박물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보다 더 명쾌한 답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박물관과 전시관에서 접하는 유물 및 사료가 주로 역사 속 남성의 활동상을 주로 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성이 역사를 이끌어 온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은 배제되어 그 간의 역사 서술에 여성들의 삶과 목소리가 부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성역사 박물관 및 전시관 건립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국제여성박물관협회 등록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 기준, 76개의 여성 박물관 및 전시관이 전 세계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여성역사 박물관 및 전시관 건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원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수행한 부산여성사 연구를 근간으로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를 발굴하고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산여성사 전시관 건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부산여성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부산여성의 역사문화를 조명하고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과정에서 설문조사와 컨설팅에 참여해주신 역사, 문화예술, 전시 관련 전문가 그리고 자문을 해주신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성 향 숙

연구요약

연구의 배경

한국의 주요 역사박물관들은 여성사 관련한 자료 수집, 보존, 관리에서 뿐만 아니라 전시구성에서 여성의 역사를 제대로 보여주는 데 한계를 지니는 등 성 인지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여성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대로 인해 여성역사 박물관 및 전시관 건립은 확산 추세이다. 국제여성박물관협회에 등록된 자료에 근거하면 2019년 10월 기준, 76개의 여성 박물관 및 전시관이 전 세계에 만들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여성역사 박물관 및 전시관 건립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의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양성평등역사문화의식 확산을 목적으로 2002년 12월 서울여성플라자 내 설치되었다가 2014년 9월에 경기도 고양시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에서 새롭게 출발하여 고대~근현대까지의 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전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기본조사 설계비 3억원 및 총사업비 268억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 출연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들이 지역여성사 연구를 통해 여성역사, 인물, 문화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일부 기관은 여성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의 여성문화탐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전남과 제주는 여성사 아카이브 등을 구축하여 박물관 및 전시관을 설치하였다. 충북의 경우 2019년부터 충북여성재단 내에 로비공간을 개조하여 66㎡ 규모의 ‘여성독립운동가 전시관’을 준비 중이다. 본원은 2009년부터 3년간 부산여성사 연구를 통해 『부산여성사Ⅰ-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 『부산여성사Ⅱ-역사속의 부산여성(고대~근대편)』, 『부산여성사Ⅲ-역사속의 부산여성(현대편)』을

발간하여 부산여성의 과거와 현재의 삶과 활동을 정리했다. 그러나 아카이브 작업을 통한 보존·전시 등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부산지역 여성사 전시관과 관련해서는 2017년 (구)부산남부경찰서(부산여성회관과 공동사업)가 정부의 노후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논의가 추진됨에 따라 여성회관 내에 여성사 전시관 설치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었다. 그러나 2018년 부산여성회관 재건축은 기재부의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과의 분리·결정에 따라, 시에서 여성회관 재건축의 독자적 추진을 결정하였다.

2019년 본원의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여건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 결과, '여성사 전시관 운영으로 부산여성의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공간 제공' 전략 및 목표를 제안하여, 세부과제로 부산여성사 발굴·수집·전시·관리 등을 제안하였다(전혜숙 외, 2019).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시관 설치 시기는 미정이며, 전시관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 단지 2019년 연구 결과, 부산여성사 전시관은 536㎡ 규모 정도이며, 같은 층의 도서관과 소강당을 합하면 885.83㎡ 정도이다.

왜 여성사 전시관 내지는 박물관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시린 에바디(Shirin Ebadi)의 "여성들은 세상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여성박물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사 전시관 설치와 전시콘텐츠 개발 연구를 통해 성 인지성에 근거한 여성사 박물관 및 전시관을 설치하여 여성의 삶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조명하고 장려하는 일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여성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본원의 부산여성사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산여성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전시하는 공간을 장기적으로 조성하여 부산여성의

역사문화를 조명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편, 성평등정책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시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시콘텐츠는 일차적으로 전시관 내에 전시가 목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둘째,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준비방안 등 두 가지 큰 틀에서 제안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국내외 여성사 전시관 및 박물관 현황, 국내 주요 여성아카이브, 부산지역 여성 문화콘텐츠 사업 현황, 타 지역 주요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사례 현황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의견조사와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전문가의견조사는 부산지역 및 타 시도의 역사, 문화예술, 전시 분야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실시되었다. 부산시가 장기적으로 설치 구상 중인 여성사 전시관(가칭)의 준비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관(가칭) 구성 및 중요도, 세부전시 공간별 콘텐츠 적절성, 전시방법, 부산여성사 전시관 기능 및 명칭, 여성역사문화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전문가 컨설팅은 역사, 전시 분야 관련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 전시관 설치를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 향후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시 보존(아카이빙) 및 전시방향 등에 대해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전문가의견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준비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제안하였다. 첫째,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의 전근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에서는 ①고대~고려시대 부산여성의 삶과 생활상,

②전쟁에 맞서 항거한 여성들, ③부산여성의 노동, 그 기원을 찾아서, ④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부산의 여성 시장상인들, ⑤주변화된 여성 – 동래관기(官妓)를 제안하였다. 근현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에서는 ①대한민국산업 전초기지와 부산여성, ②격동기 시대 – 삶을 개척한 시장여성, ③항일운동의 중심에 선 부산여성, ④근대여성교육과 부산여성, ⑤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⑥근대 보건역사와 여성의 의료분야 진입 확대, ⑦개방과 포용의 역사 – 이주여성의 삶과 활동을 제안하였다.

둘째,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기반 구축에서는 ①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②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계획 수립, ③아카이브 구축 위한 계획, ④유물 발굴 등 현장조사 위한 연구진 구성, ⑤유물 수집사업 전개, ⑥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의 범위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관의 설치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두 가지 큰 틀에서 접근하였다. 즉 전시콘텐츠 개발 외에 전시관 설치 준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전시콘텐츠 개발은 전시관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 구체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본원의 2019년『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여건분석 및 기본구상』연구에서 제안된 전시관 규모를 토대로 전시콘텐츠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산여성회관 내에 설치될 부산여성사 전시관의 예상 규모는 536㎡ 정도이며, 같은 층의 도서관과 소강당을 합하면 885.83㎡ 정도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타 지역 여성사 전시관 분석과 관련하여 국립여성사전시관 외에 지역여성사 전시관을 탐방하지 못한 채 인터넷 자료에 의존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향후 설치 예정인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명칭과 관련해서는 전시관 또는 박물관 형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박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에 의하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전시공간, 수장고, 사무실, 교육장소 등의 기본조건을 갖추면 박물관 등록이 가능하다. 전시관의 전시 컨셉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아카이브 구축과 유물 등을 보존, 관리하는 수장고가 필수이기 때문에 향후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시에 부산여성사 전시관 규모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 여성역사문화 전시관 현황

국내 여성 관련 박물관 및 전시관은 총 6개로 국립여성사전시관,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광주여성전시관, 서울여성플라자(스페이스봄)가 이에 속한다. 국립여성사전시관 외에는 여성가족 정책연구원과 민간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상설전시, 특별전시, 순회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는 연대기존(고대/고려/조선/근현대)과 테마존(근현대/현대)으로 구분되며, 각 연대별 여성 생활사, 활동상 등을 조명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역사를 기억·교육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공간으로 상설 및 특별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전남여성문화박물관은 전남여성 100년사를 기획, 전시하는 곳이다. 상설전시는 학습하는 여성, 행동하는 여성으로 나누어 시대별 여성의 지위 및 문화변화와 생활상과 독립운동·교육·사회운동·문화예술 분야의 전남여성 활동상을 조명한다.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은 제주여성의 삶과 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이다. 제주여신 이야기를 전시하는 공간인 신화관, 제주예청(여성군인)의 역사와 조선시대 및 근·현대 제주여성 역사인물을 전시하는 역사관, 제주여성의 삶의 모습과 장인(무형문화재), 미래 직업군을 주제로 전시하는 생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여성전시관'은 2012년 준공된 곳으로 광주여성의 역사와 삶, 문화를 기획, 전시하는 공간으로 상설전시, 기획전시로 구성된다. 민주화 운동, 여성인권 운동 연표 전시, 광주여성의 정치·경제·생활 관련 통계를 전시하는 상설전시와 주제별 특별전, 교류전 등의 기획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여성플라자(스페이스봄)는 여성친화적인 여성작가(신진·경력단절) 전시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전시 지원과 더불어 아트샵과 연계한 작가발굴을 통해 전시, 판매의 기회를 제공하는 홍보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여성박물관 건립은 확대 추세이며 국제여성박물관협회 등록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 기준, 76개의 여성박물관이 있다. 국제여성박물관 네트워크는 2008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첫 국제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현재의 국제여성박물관협회(IAWM: internatioal Association of Women's Museums)로 되면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사무국을 두고 6개 대륙을 순회하며 주기적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박물관을 통한 인권 증진, 여성박물관을 통한 정치, 사회, 문화적 작업과 활동을 장려하는 활동을 전개 중이다. 협회의 목표는 성인지 관점에서 문화·예술 교육 및 훈련 장려, 세계 여성박물관 간의 교류·네트워킹·상호지원·글로벌 협력증진, 프로젝트·전시회·커뮤니티 활동·세미나·콘퍼런스의 연구 및 개발 수행, 전 세계 여성박물관 수용의 장려 및 강화 등이다.

해외 여성박물관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 여성역사의 기록·보존을 토대로 상시전시뿐만 아니라 현대 여성예술가들의 작품을 정기적으로 전시하는 등 현재의 여성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인권 및 인종 문제, 저항의 역사, 산악지대 여성의 삶 등 시대와 주제를

한정하여 고유의 색깔을 가진 박물관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여성전시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설전시에서 시대별, 주제별로 나누어서 전시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이는 전국의 여성전시관 건립은 초기 단계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전시를 위해 아카이브 구축과 더불어 여성 역사를 문화콘텐츠를 통해 사업화함으로써 전시공간 안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파고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여성전시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륙별 고유의 색깔이 두드러지는 편이다. 유럽은 문화 예술 분야에 비중을 둔 전시관이 많은 편이며, 북아메리카 대륙은 인종, 저항 등을 소재로 한 전시관이 많아 다민족 국가의 특성을 드러내며, 아프리카 대륙은 교육과 계몽의 기능을 지닌 전시관이 눈에 띈다. 아시아의 경우, 여성의 현재 생활에 비중을 둔 박물관에서부터 전쟁의 역사 속에서 군위안부 문제까지 다루는 다양한 접근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마다 여성의 경험과 현재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차이는 있지만 여성이 역사 속에 존재하며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1) 전시관 구성 중요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상설전시_기억의 공간]은 5점 기준에서 평균 4.78점으로, 96.4%(대체로 중요 12.7%+매우 중요 83.6%)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전시_역동의 공간]은 평균 4.62점으로, 98.2%가 중요한 것으로, [미래 세대 전시_도약의 공간]은 평균 4.24점으로, 83.6%가 중요한 것으로, [복합문화창출_W-culture 공간]은 평균 4.13점으로, 74.5%가 중요한 것으로, [자료 보존관리_아카이브 공간]은 4.85점으로, 100.0%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세부전시 공간별 콘텐츠 발굴 및 구성에 관한 질문

(1) [상설 전시_기억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부산여성의 시대적 삶과 활동의 주요변천사]는 5점 기준에서 평균 4.42점으로, 85.5%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민족운동]은 평균 4.31점으로, 85.5%가 적절한 것으로, [여성과 전쟁]은 평균 4.25점으로, 89.1%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항구(바다)]는 4.51점으로, 94.5%가 적절한 것으로, [여성과 노동]은 4.65점으로, 96.4%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교육]은 4.38점으로, 89.1%가 적절한 것으로, [여성과 문화]는 4.25점으로, 87.3%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민주화)운동]은 4.36점으로, 90.9%가 적절한 것으로, [활동영역별 개별 인물 조명]은 3.87점으로, 63.6%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획 전시_역동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주제별 기획전시]는 5점 기준에서 평균 4.55점으로, 94.5%가 적절한 것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 위한 전시]는 평균 4.27점으로, 81.8%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주의 작가, 예술가 작품 전시]는 평균 4.09점으로, 78.2%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이미지 부각 전시]는 평균 4.04점으로, 67.3%가 적절한 것으로, [재조명 역사인물 기획전시]는 평균 4.20점으로, 83.6%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미래 세대 전시_도약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교육공간]은 5점 기준에서 평균 4.15점으로, 74.5%가 적절한 것으로, [기록코너]는 평균 4.33점으로, 80.0%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물지도 만들기 체험]은 평균 3.87점으로, 72.7%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여성 역사문화 홍보물 만들기 체험]은 평균 3.80점으로,

65.5%가 적절한 것으로, [탐방프로그램 만들기 체험]은 평균 4.24점으로, 81.8%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복합문화 창출_W-culture 공간] 콘텐츠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무명 예술가 및 활동가들의 작품 전시]는 5점 기준에서 평균 4.16점으로, 76.4%(대체로 적절 36.4%+매우 적절 40.4%)가 적절한 것으로, [다양한 영역의 활동 주인공 소개]는 평균 4.02점으로, 76.4%가 적절한 것으로, [문화창출의 오픈 스페이스 운영]은 평균 4.25점으로, 85.5%가 적절한 것으로, [소통 한마당]은 4.36점으로, 90.0%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시방법에 관한 질문

전시방법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역사적 사건,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해설)]은 5점 기준에서 평균 4.40점으로, 87.3%가 적절한 것으로, [역사문헌, 유물, 작품 등 자료 전시]는 평균 4.47점으로, 85.5%가 적절한 것으로, [역사적 사건, 상황을 담은 사진 및 신문기사 전시]는 평균 4.27점으로, 81.8%가 적절한 것으로, [VR(가상현실) 체험,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전시]는 평균 4.22점으로, 78.2%가 적절한 것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 미니어처 제작, 전시]는 평균 3.60점으로 56.4%가 적절한 것으로, [예술가들의 캐리커쳐 제작을 통한 역사 재현, 전시]는 평균 3.64점으로, 58.2%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하고 싶은 추가 전시방법에 대해서는 토크 콘서트, 디지털 온라인 자료관, 상황 체험형 전시공간의 구성, 게임 아이템 모으기, 테마별 특별 전시, 휴먼 라이브러리, 구술 영상, 감염병시대 대비 비대면 전시관, 관계망(SNS) 등 활용, 기증품 전시, 예술가 협업 디지털 전시 - 미디어 아트, 체험 및 참여 가능한 방법, 동아시아 지구 속 여성, 작가들과 협업 등으로 나타났다.

4) 부산여성사 전시관 기능, 명칭, 역사문화 정책에 관한 질문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능(다중응답) 1순위 응답은 상설 전시관 운영이 60.0%, 기획 전시관 운영 16.4%,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14.5%, 복합문화(W-culture) 창출 공간 5.5%, 미래세대 전시관 운영 3.6%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산지역에 여성사 전시관(가칭)이 설치될 때, 제안하고 싶은 명칭에 대해서는 부산 여성사전시관(7건), 부산 여성 역사관(3건), 부산 여성사박물관(2건), 부산 여성 역사문화관(2건), 여성들의 부산살이, 침묵을 넘어, 연대의 목소리로, 여성들 모이다, 부산 여성 기록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오늘, 여성사전시관, 지배받지 않는 모두 공간, 요람을 흔드는 손 - 부산 여성사전시관, 역사 속의 부산 여성들, 부산여성 라키비움(Larchiveum), 부산여성문화관, 전시관 #미투, 부산여성 '이음', 여성의 역사 기억관, 부산 여성의 삶과 역사, Her Story, 역사와 미래를 여는 공간, 부산 여성 미래문화전시관, 자갈치아지매 스페이스, 포스트잇 전시관, 부산 여성의 여가와 문화, 부산 여성사전시관 - 여성/소리/공존, 과거/우리 그리고 미래, 너/나 그리고 우리, 역사와 미래를 여는 공간, 교류와 연대 여성 공간 - 여성 교류연대 공간 등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부산시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 정책의 수준은 낮음 41.8%(매우 낮음 10.9% + 대체로 낮음 30.9%), 비슷함 45.5%, 높음 12.7%(대체로 높음 10.9% + 매우 높음 1.8%)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다중응답) 1순위 응답은 부산여성역사문화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이 41.8%,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문헌 수집, 보존, 관리 23.6%, 부산여성 역사문화 발굴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 20.0%,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위원회 운영 및 전시관 설치 12.7%, 부산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작업 1.8%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때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다중응답) 1순위 응답은 삶의 현장이 38.2%, 노동운동의 현장 등 25.5%, 항일운동의 발자취 : 민족운동, 여성운동 14.5%, 항일운동의 발자취 : 일신여학교 10.9%, 여성과 전쟁 5.5%, 기타 3.6%,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1.8%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보존, 전시와 관련한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중 부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타 시도 사례에서는 인천 아트 구락부 아트맵, 서울의 세계여성문학관, 윤동주문학관, 인천의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아트플랫폼, 디지털 전시기술과 관련해서는 최근 개관한 광주의 전일빌딩,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민주평화교류원,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해녀박물관, 김만덕 기념관 등을 들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스위스 취리히의 여성 인물지도 제작, 기념관(전시관)으로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유대인박물관, 산악지역 여성들의 삶을 색깔을 담은 오스트리아의 Hittisau 여성박물관, 이탈리아의 Borgo 여성박물관 등이 있으며, 베트남 하노이 여성박물관은 전시 구성이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보존, 전시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상적 접근으로 인해 여성역사의 타자화 초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사를 남성과 대비된 관점이 아닌 가족, 개인의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역사문화를 다루고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전시공간의 설계와 콘텐츠까지 여성주의 시각과 성평등 시각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여성역사문화 전시관이 주는 메시지가 여성이라는 물리적 성에 기반한 인식보다는 부산여성이 보여주고 수행했던 포용성 관점의 부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성평등 운동이 사회와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젠더이슈의 긍정적 기능 강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

전문가 컨설팅 분석 결과,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 요약

구분	기대효과
사료 확보의 시기 및 지속성	전시관 설치 이전부터 지속적인 사료 발굴 → 충분한 사료 확보 → 입체적인 전시 가능
전시관 통한 비전 제시	부산여성 역사에 대한 중심가치 정립 → 부산여성사 및 부산여성사 전시관 통한 부산의 미래 비전 제시 가능
부산여성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콘텐츠 개발	부산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콘텐츠 개발 → 균형 잡힌 전시 주제 분류 → 여성과 노동/바다를 아우르는 주제 및 내용의 상설전시 가능
지역 특수성과 보편성간 균형	부산지역의 특수성으로서 혼종성과 복합성, 공통사항으로서 보편성 및 일상성 간 균형 → 항구도시 부산의 고유한 특수성과 해양문화에 열려있는 개방성과 보편성 부각 → 부산의 경계를 넘어산 미래지향적인 전시콘텐츠 제시 가능
주제별 상설전시 시 전근대 전시에 대한 한계	전근대 여성사는 연대표로 정리 및 노동요 통한 접근 → 전근대 여성사에 대한 보완 가능
주제별 상설전시 시 여성의 역할을 역사 속에서 맥락화	여성의 역할을 역사 속에서 맥락화 위한 주제별 상설전시 순서 → 지리적/지역적 특수성을 부각한 여성과 바다, 교육받은 여성주체의 등장이라는 차원에서 여성과 교육, 여성과 전쟁, 여성과 노동, 여성과 운동 순으로 구성 가능
'불평등과 차이'의 장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남성 관련 전시콘텐츠 다루기 → '불평등과 차이'의 장 구성 →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기획으로 남녀 대립 구도 지양 가능
인물 조명에 대한 검증	해방이후 인물에 대한 객관성 확보 위한 검증 작업→ 전시내용에서의 객관성과 형평성 유지 가능
기획 전시 추진 시기	기획 전시는 전시관 설치 이후 준비 →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방향 설정→ 부합하는 자료 수집 → 시의성 있는 주제로 기획전시 가능(유관기관과 협력 가능)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 관련 요약

구분	기대효과
전시관 설립 기본계획	준비, 실행, 운영 등 3단계의 전시관 설립 기본계획 혹은 실행계획 제시
계획을 토대로 한 단계별 아카이브 구축	자료수집, 자료의 현장정리, 자료분류, 자료업로드 및 보관 등의 단계별 실시 →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 전시관 설치 준비위원회 운영 등 통해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 → 아카이브 구축
'여성사와 아카이브 연구소' 구성 및 운영	'여성사와 아카이브 연구소' 설치 → 대학연구소와 협업해 정기학술대회 개최 등 → 유물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토대 마련 가능
유물 기증 및 구입 절차 토대 마련	유물기증위원회 구성 → 유물 기증 및 구입절차 등 체계적 추진 가능
비판적 재현 작업	전시기법보다는 발상의 전환에 비중을 둔 비판적 재현 → 관람객의 상상력 자극 가능
연구위원회 형식의 추진위원회 구성	여성사전시관 설치 위한 연구위원회 형식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역할 → 단기과제로서 전시관 설립 위한 심포지움과 콜로키움 등 실시 → 장기과제로서 향후 전시방향 등 명확한 지표에 대한 심층적 논의 및 유물기증 운동 추진 가능
설계단계의 도면작업에 참여	설계단계부터 도면작업에 참여해 세밀한 의견 개진 → 예를 들어 항온 항습 설비 갖춘 전시관 수장고 등의 특수공간 확보 → 전시공간의 가변적 사용 가능 및 추가 비용 절감 가능

향후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후 보존(아카이빙), 전시방향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후 보존(아카이빙), 전시방향 관련 요약

구분	기대효과
기존 박물관과의 차별화	부산여성사 전시관의 철학을 담은 전시방향 설정 → 기존 박물관과의 차별화 가능
전시관 내용과 형식간 조화	전시내용물 구상 선행 후 내용에 부합하는 전시관 설계 → 전시콘텐츠와 전시설치간 내용과 형식의 조화 가능
양질의 아카이브 구축	자료수집, 정리, 분류, 분석, 전시까지의 통합적인 구조설계를 담은 장기계획 수립 → 양질의 아카이브 구축 가능
아카이브 구축 관련 감독시스템	자료수집, 수장고 관리 등 아카이브 구축 관련 감독시스템 도입 → 전문성 확보 가능

전문가 컨설팅 분석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반 구축의 측면에서 전시를 위해서는 전시공간과 전시내용이 필요하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시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전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과 관련한 유물과 사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무엇보다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수집계획을 토대로 충분한 수집 시간과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부산여성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타 전시관과의 차별성, 지역성을 살리되 보편성과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여성과 남성의 역사를 어떻게 비교, 전시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전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설치위원회 등을 통한 전시 구성 및 방향 설정과 더불어 유물 및 자료 수집 및 수집된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 수장고 관리 등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한 전문적인 감독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다섯째, 전시의 생명력은 전시의 결과물이 아닌 전시의 진행과정이며 전시관의 주요기능으로 전시대상, 전시주체, 관람객간 상호교류의 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전시기법보다는 발상의 전환에 비중을 둔 비판적 재현을 통해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 때 부산여성의 역사문화에 대한 조명에 의미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방향

연구 결과, 부산여성의 역사문화 전시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향후 설치 예정인 전시관을 염두에 두고 준비, 실행, 운영 등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시를 위한 유물, 문헌, 사진, 작품 등의 수집 작업은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수집물이 축적되고, 아카이브로서 보존, 관리될 때 비로소 다양한 콘텐츠로 전시가 가능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준비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아카이브 구축을 토대로 한 전시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시콘텐츠 구성의 중요도에서는 아카이브 공간 100.0%, 기획전시 98.2%, 상설전시 96.4% 순으로,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시 1순위 기능에서는 상설전시 운영, 기획전시 운영, 아카이브 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전시를 위한 유물, 문헌 등 자료가 축적되지 않고는 원하는 전시를 기획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이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물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부산의 지역성과 부산여성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주제별 전시콘텐츠 개발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서도 연대기적 역사적 사건을 초점을 맞추는 통사적 전시보다는 부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현대에 초점을 맞춘 주제별 전시콘텐츠 개발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물론 2장 국내의 타지역 여성전시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설전시에서 시대별, 주제별 콘텐츠를 동시에 전시하고 있는 곳이 더 많았다. 이는 전국의 여성전시관 건립은 초기단계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전시,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토대로 한 주제별 콘텐츠에 더 비중을 두되, 시대별 콘텐츠도 제안하였다.

셋째,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 개발은 지역사와 성인지 역사와의 관계, 부산지역 전체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 여성사를 부산지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균형 잡힌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여성만으로 동떨어진 전시가 아니라 부산지역사, 남성역사와의 관계 속에서의 전시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지역사회 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운영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1순위로 중장기계획 수립, 아카이브 구축, 여성역사문화 발굴 위한 연구

지속, 전시관 설치위원회 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사 전시관 설치에 대한 방향과 주제 그리고 체계를 잡고 공론화를 시작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유물 발굴 및 수집, 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가의 견조사 결과, 전시관 설치를 위한 유물 수집에 많은 시간 소요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유물 수집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시관 설치 이전부터 유물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섯째, 현재의 시점에서는 부산여성사 전시관으로 출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시공간, 수장고, 사무실, 교육공간 등을 갖춘 박물관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립여성사전시관을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준비 중에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박물관 형태로 건립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위의 방향을 토대로 두 가지 큰 틀 즉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 개발과 전시관 설치 준비를 위한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기반 구축을 제안하였다.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의 제안 방향은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시대적 분류를 기준으로 한 전시가 아닌, 주제별 전시콘텐츠를 선택하였으며, 근현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전시콘텐츠를 제안하였다. 근현대에 더 비중을 두기는 했으나, 본 원에서 3년간 수행했던 부산여성사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전근대 분야의 주제별 전시콘텐츠도 함께 제안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전시관 규모를 아직 확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콘텐츠는 항상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시대별, 주제별 모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원에서 수행했던 부산여성사 연구 결과, 전근대 분야에서 부산여성만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찾기는 쉽지 않았으며, 특히 고대의 경우 사료 부족으로 지역별 여성의 특수성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이에 가능한 몇 가지 콘텐츠 외에 전근대 분야는 연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

전근대 시기의 경우, 부산여성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활사, 여성과 전쟁, 여성과 노동, 여성과 사회 등을 콘텐츠화 하였다. 그 결과, 고대~고려시대 부산여성의 삶과 생활상, 전쟁에 맞서 항거한 여성들, 부산여성의 노동, 그 기원을 찾아,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부산의 여성 시장상인들, 주변화된 여성 - 동래 관기(官妓)를 제안하였다. 근현대 시기의 경우,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콘텐츠 적절성으로 나타난 여성과 노동, 여성과 바다(항구도시), 여성과 (민주화)운동, 여성과 교육 등을 콘텐츠화 하였다. 그 결과, 근현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에 대한민국산업 전초기지와 부산여성, 격동기 시대 - 삶을 개척한 시장여성, 항일운동의 중심에 선 부산여성, 근대여성교육과 부산여성,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여성과 보건, 개방과 포용의 역사 - 이주여성의 삶과 활동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7가지 전시콘텐츠는 향후 전시를 목적으로 한 보다 큰 그림으로서의 전시 컨셉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 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시는 기획전시의 형태로 이슈화가 필요할 때, 전시 가능해 보인다. 예를 들어 해방이후 여성인물을 재조명하여 기획할 경우, 여성운동 및 정치 분야, 사회 및 교육 분야, 문화 및 예술 분야 등에서 활동한 다양한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가능하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 전문가들은 개별 인물에 대한 영웅 만들기 방식의 해설과 구태의연한 전시방법을 경계하였다.

구체적인 전시방법은 부산여성사 전시관 운영 기반 구축에서 설치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된 이후에 재논의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

시대	영역	콘텐츠	주요 유물 및 자료
전근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 (안)	생활사	① 고대~고려시대 부산여성의 삶과 생활상	- 연표로 정리 가능
	여성과 전쟁	② 전쟁에 맞서 항거한 여성들	- 동래부순절도 • 소장처: 육군박물관
	여성과 노동	③ 부산여성의 노동, 그 기원을 찾아	- 다수의 노동요 •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제(수영농청/좌수영어방놀이, 다대포 후리소리)
		④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부산의 여성 시장상인들	- 시장의 상거래 활동 내용 •『숙종실록』
	여성과 사회	⑤ 주변화된 여성 - 동래 관기(官妓)	- '동래부접왜사도'의 연향장면 •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등
근현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 (안)	여성과 노동	① 대한민국산업 전초기지와 부산여성	- 신발공장 사진 • 소장처: 부산시, 구·군
		② 격동기 시대, 삶을 개척한 시장여성	- 자갈치아지매 사진 • 소장처: 국가기록원 - 시장 관련 엽서 • 소장자: 김동철
	여성과 독립운동	③ 항일운동의 중심에 선 부산여성	- 항일운동 관련 기록 • 소장처: 부산진일신여학교 기념전시관, 동래여고 일신관
	여성과 교육	④ 근대여성교육과 부산여성	- 일신여학교 학생유물 • 소장처: 부산진일신여학교 기념전시관, 동래여고 일신관 - 호주여성선교사 민지사(일신여학교 설립자) 공로비 • 소장처: 부산진교회
	여성과 문화	⑤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 화가 김천옥 작품 • 소장처: 부산여고 역사관, 부산시립미술관, 청마문학관, 조영(김천옥의 자녀) - 무용가 김혜성 사진(신문기사)
	여성과 보건	⑥ 근대 보건역사와 여성의 의료분야 진입 확대	- 간호사 관련 자료 • 소장처: 일신기독병원, 부산간호사협회 등
	이주여성	⑦ 개방과 포용의 역사 - 이주여성의 삶과 활동	-

1) 전근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

(1) 고대~고려시대 부산여성의 삶과 생활상

고대 및 고려시대에 부산 여성의 삶과 생활상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은 일본을 비롯한 이웃지역들과 교류가 활발한 흔적을 볼 수 있어 당대 여성들은 이런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개방된 생활을 했으리라 추측 가능하다. 그러나 타 지역의 여성관련 전시관과 유사하게 관련한 유물이나 자료를 수집하는 한계가 따른다. 향후 전시관 준비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진 구성이 된 이후에 문헌과 현장조사 등 통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단 유물 및 자료 수집이 한계라면 고대~고려시대의 부산여성과 관련해서는 연표로 정리하여 전시 가능해 보인다.

(2) 전쟁에 맞서 항거한 여성들

비록 이름은 알 수 없지만 1592년 임진왜란 때 동래성 전투에서 기왓장을 던지며 항거하다 죽은 무명의 두 여성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에도 전해져 내려온다. 조선시대 여성들 중에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일본인은 부산을 첫 관문으로 하여 조선으로 침입해왔다. 당시 부산의 부산진성, 동래부성, 다대포진성은 임진왜란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발생한 곳이었다. 이곳의 군인, 공무원, 시민들은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왜적에 항거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 사상자 가운데 여성도 상당수 있었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193쪽).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여성들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여유조차 없는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전면에 나서 남성들과 함께 싸웠다. 영조 때 임진왜란 당시 죽은 이들을 다시 조사하여 포상하였는데, 애석하게도 이 두 여성들은 이름을 알 수 없어 국가에서 사액을 내

린 사우에는 배향되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사우에 배향되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행적은 계속 전승되었고, 1760년 동래부순절도에 이 두 여성의 행적이 형상화되기도 했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193~194쪽).

조선 시대 여성들은 관직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혼란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지켰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조차 알리기 어려웠다는 것은 남성 중심적 사회의 관행으로 인한 차별로 해석 가능하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19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지역 여성들은 전쟁이라는 국가의 큰 위기 속에서 평소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영역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켰다는 것을 유물 및 자료를 통한 전시를 통해 후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산여성의 노동, 그 기원을 찾아

고대부터 고려,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노동활동은 유물로는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로 남아 있는 다수의 노동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수영농청놀이, 좌수영어방놀이, 다대포후리소리 등을 통해 고려와 조선시대에 부산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벼농사와 어업활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수영구의 민속놀이 수영농청놀이는 벼농사의 농업노동요를 연희화한 것이다. 수영농청놀이 중 여성들이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모판에서 모를 뽑는 행동을 하면서 '모찌기 소리'를 부른다. 이어 여성들을 중심으로 모를 심으며 '모심기(모내기)소리'를 부르면서 보리를 손질하고 밭을 매고 논두렁의 풀을 뽑는 등의 노동을 하였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198쪽).

한편 부산은 바다와 접해 있어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진상품의 주요 품목은 대부분 해산물이었다. 인삼과 약재류, 전복, 생복, 가사리,

청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동래지역 주민들에게 어업은 자신들의 생계를 영위하는 한편 국가에도 진공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들은 먼 바다에 나가 직접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주로 남성들이 잡아 온 고기를 운반하고 가공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에 전하는 노동민속인 좌수영어방놀이에서 알 수 있다. 좌수영어방놀이는 어업의 작업 과정과 노동요를 놀이로 구성한 것이다. 좌수영어방놀이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있던 수영만에 전승되는 어업노동요 멸치잡이 후리질소리와 그에 따른 민속이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199쪽).

(4)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부산의 여성 시장상인들

동래지역에 거주했던 여성들도 전통사회에서 경제의 기본이었던 농업은 물론이고, 상거래를 통한 사회적 생산활동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동래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다수 있었다.

조선후기 부산지역 여성들은 상거래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당시 5일장이 열렸던 동래지역에는 장이 서는 날 장터에 나와 장사하는 여성들이 꽤 많았다. 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부산에는 동문인 수문(守門) 밖에서 조선 상인이 매일 아침에 생선과 야채류를 가지고 와서 왜인에게 파는 아침시장이 있었다. 이를 조시(朝市)로 불렀는데, 조시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상거래를 하고 있었다. 『숙종실록』을 통해 여성들이 시장에서 상거래를 한 활동기록을 찾을 수 있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201쪽).

열악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당시 여성들은 억척스럽게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여성들은 집안일만을 담당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926년에 동아일보에 전국을 소개하는 연재물이 있었다. 그 중 동래지

역의 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동래지방은 여성의 활동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여 시장의 장사는 거의 여성이 다 차지하고 있으며 채초, 경운, 어로 기타 노력도 남자들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대개 신체가 건강하여 장수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다른 지방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그 당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며, 동래지역은 여성들의 활동이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동래지역은 조선후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했고, 그러한 증가세는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202쪽).

이렇듯 시장에서의 부산여성의 적극적인 상거래 활동은 현대까지도 부산지역의 여러 시장에서 이어져 지속되고 있다는 역사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5) 주변화된 여성 - 동래 관기(官妓)

동래지역에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일은 한일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일이었다.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한일 외교관계는 1609년(광해군 1년) 6월의 기유조약(己酉條約)으로 회복되었으나, 조선으로 오는 일본 사신들은 국왕을 만나지 못하고 초량 왜관에서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에 절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내 일본과의 교류는 유일하게 왜관이 존재했던 동래에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동래 왜관을 중심으로 한 접대 문화는 중앙과는 달리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접대 문화의 한 가운데 여악(女樂)이나 기생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204~205쪽).

조선시대 관기(官妓)는 지방 관아에 소속된 기녀로서 국가체계 안에 편제되어 직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지역 여성들로서 연회 등의 행사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가무를 담당하고 성적인 접대를 행했던 전통사회의 특수한 신분이다. 관기는 천인이라는 신분적 귀속과 여성이라는 성적 귀속

을 안고 사는 특수한 사회적 위치의 존재였다. 성리학자들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기녀폐지론을 수차례 논의했지만 1909년까지 존속된 것은 기녀의 유용성을 버릴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동래지역 관기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동래부사접왜사도' 그림에서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일본 사신을 맞이하는 일과 연향을 베푸는 장면에 관기들의 모습이 등장한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203쪽).

이렇듯 국가에 편제되어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관기는 전통사회 국가체제 속에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사신접대 등의 임무는 외교 관계에 주요한 역할에 해당되었다. 관기에 대해 본인이 죽거나 부모상을 당했을 경우 관에서 부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사신 접대와 지방 관리 및 군관의 위안과 같은 관기의 주된 역할이 국가의 운영을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이 전통사회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접촉공간임을 설명하는데 있어 통신사가 늘 관심의 초점이었다. 외교관계는 남성의 역할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외교를 위해 관기와 같은 여성들이 수행한 역할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관기는 전통사회 부산지역 여성들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며 이와 관련한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동래부의 관기는 이후 부산에서 1910~1924년 사이에 설립된 기생들의 조합인 동래권번, 봉래권번 그리고 부산권번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조선시대 관기의 문제를 오늘날 부산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매매 산업과의 연관성 속에서 비판적 역사적 고찰을 토대로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로서 접근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2) 근현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

(1) 대한민국산업 전초기지와 부산여성

60~70년 조선방직, 고무, 신발 공장에서 부산 및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역군으로 일했던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조명을 통해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여성노동 역사를 전시할 수 있다. 예로 부산경제에 큰 역할을 했던 신발산업의 주역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동양, 태화, 진양 고무의 신발공장 현장에서 생고무로 작업되는 신발의 마무리 수작업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이들은 당당한 생계 주체로서 한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 역군들이었다.

여기에는「그 시절 노동자를 찾아서」코너를 만들어 구술, 인터뷰, 과거 현장 기록 등을 전시 가능하다. 특히 투쟁해야 했던 아픔 등을 전시함으로써 역사 현장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구술은 <구술 코너> 등을 마련해서 생생함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 당시 노동현장의 중간관리자는 대부분 남성이었는데, 그들의 구술 등을 추가하여 여성과 남성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으며, 혹은 어떤 갈등 요소들이 존재했는지 등을 기록, 전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격동기 시대 - 삶을 개척한 시장여성

부산의 대표적인 시장인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동래시장에는 눈에 띄게 여성 상인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한 곳이다. 여기에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 이후에 외지인들이 부산에 정착해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져갔다. 해방과 전쟁이라는 격동기에 시장의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부산 경제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그들은 여성 개인이 아닌 시장상인이라는 집단화된 여성으로서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었다.

시장에서의 여성경제 활동은 미국 최초의 조선 주재 공사관에서 일했던 외교무관 포크의 1884년 여행일기에도 부산진과 동래 시장의 여성상인들이 묘사되어 있다. "… 모든 장사치가 여성들이었다. 거의 300명의 여성들이 …", "여성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 그들은 밥을 팔며 모든 가두판매를 담당했다."로 기록되어 있다(Samuel Hawley(2008), 1884년 11월 29일 일기 120쪽, 12월 2일 일기 123쪽)

이렇듯 시장은 귀환 동포들의 삶을 개척하며 정착하게 된 기회의 터전이며,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에게 삶의 안식처가 되었다. 부산 출신과 외지 출신의 여성상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삶을 개척한 과정을 시장과 여성노동자라는 주제로 조명하여 전시하는 것은 부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산 여성의 삶을 역사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전시방법을 고려해 본다면, 부산에 거주하면서 자갈치시장과 자갈치 아지매 사진을 가장 많이 남긴 故 최민식 작가의 '자갈치아지매' 사진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여성상인들의 구술을 통한 구술 생애사를 가지고 생생한 기록물을 <구술 코너> 등을 마련해서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항일운동의 중심에 선 부산여성

부산지역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부산지역 3·1운동의 시작과 전개에 중심역할을 했다. 교사 주경애와 박시연은 고등과 학생 김봉애를 비롯한 11명과 함께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기숙사를 나와 부산의 좌천동 거리에서 만세시위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들이 합류한 사건이 바로 부산지역의 3·1운동의 출발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부산지역의 항일 투쟁은 1920년대의 여성운동이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미쳤다. 부산지부장으로 활동했던 백신영 등의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활동, 박덕술 등의 의용단 활동, 부산지역 여성들의 여자청년회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일신여학교가 있었던 건물은 기념전시관이 되어 역사의 현장을 전시하

고 있으며, 특히 학급 단위의 학생들이 많이 관람하고 있다. 일신여학교에서 동래여자고등학교로 변경, 이전 후, 학교는 '일신관'의 명칭을 가진 역사관과 부산일신여학교 만세운동 기념비를 세워 그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학생들과 교사들의 항일운동사를 보존, 관리하고 있다.

(4) 근대여성교육과 부산여성

근대여성교육의 산실이었던 일신여학교는 호주 여성선교사 민지사에 의해 1895년에 설립되었다. 일신여학교를 통해 부산지역에서의 항일운동과 근대교육의 시작은 주목할 만하며, 일신여학교의 초대 회장이었던 민지사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근대여성교육에 평생을 헌신하고 기여한 인물이다. 그 동안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평가되지 못했던 호주 여성선교사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도 부산여성사 전시와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신여학교를 통한 근대여성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도 가능할 수 있었다.

부산지역 항일운동과 근대여성교육 관련 전시콘텐츠 전시방법의 일환으로는 일신여학교 기념전시관과 동래여고 역사관을 온라인으로 링크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전시물을 공유할 수 있다.

(5)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분야는 활동에 비해 집중적으로 연구 및 조명되지 못한 분야에 속한다. 과거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재조명하거나 현재의 여성 문화예술 분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하여 기획 전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부산지역 문화예술계의 세부 분야에서 활동중인 예술인들과 협력하여 과거와 현재의 부산여성 문화예술을 조명하는 작업을 함께 시리즈물로 기획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또한 향후 부산시에서 계획 중인 전시관의 같은 층에는 전시관 외에 소강당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 기획물 중에는 소강당을 활

용하여 보여줄 수 있는 내용도 있으며, 전시기간 동안 관련 문화예술인들을 초대하여 소강당에서 열린 포럼 등을 병행할 수도 있다.

(6) 근대 보건역사와 여성의 의료분야 진입 확대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가장 교류가 활발했던 부산 지역은 일본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근대적인 보건, 위생과 관련하여 의료가 중요하게 부각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근현대 부산지역에 간호사를 양성하는 전문학교들이 설립되는 등 여성들의 의료분야 진입이 확대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1952년 호주 장로교 선교회에서 의료 선교사로 파송된 맥켄지(Makenzie)가(家)의 매혜란, 매혜영 자매에 의해 일신부인병원(일신기독병원의 전신)이 창설되면서 부산지역 여성 관련 의료분야는 더욱 발전하기 시작했다.

1952년 당시 6.25전쟁으로 인해 부산에는 수많은 피난민과 빈곤한 사람들이 모여 들었으나, 그 당시 부산에는 의료기관이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때에 호주선교사 두 자매가 수많은 산부인과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일신부인병원이 문을 연지 6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의료와 시술은 계속 발전되어 왔다. 2017년 기준, 호주장로교선교회 산하의 일신기독병원은 부산의 좌천동, 화명동, 정관, 미얀마 등 5개가 있다(일신기독병원 홈페이지 참조).

의료계에서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간호직을 고려해 볼 때 근대 및 현대의 간호직 여성의 삶과 경험의 변화를 남성과 비교해서 전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7) 개방과 포용의 역사 : 이주여성의 삶과 활동

부산은 시대적으로 개항, 일제강점기 일본의 전략적 가교 기지, 해방이후 귀환 장소, 한국전쟁 시 임시수도, 산업화시기 수출무역항 등의 특수성을 지닌 도시로서 개방성, 혼잡성, 복합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외래인과의 혼합과 공생은 부산에 개방과 포용의 역사성을 가져다주었다.

부산은 지리적인 이유로 일본과의 교류를 감안할 때 부산에 정착한 일본 여성들이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문화 다양성 시대에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와 전시는 부산여성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지역사회에 적응 또는 부적응하거나, 낯선 문화에 어떻게 통합하거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전시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부산의 개방과 포용의 역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주여성의 삶과 활동을 조명하는 데에는 부산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기반 구축

개발된 전시콘텐츠를 전시할 전시공간으로서 여성사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절차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에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시관 운영기반 구축에서는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계획 수립, 아카이브 구축 위한 계획 수립, 유물 발굴 등 현장조사 위한 연구진 구성, 유물 수집사업 전개, 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등을 들 수 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기반 구축

영역	내용	비고
전시관 설치 준비	①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부산시
	② 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계획 수립	부산시/연구기관
	③ 아카이브 구축 위한 계획 수립	부산시/연구기관
자료 기초조사	④ 유물 발굴 등 현장조사 위한 연구진 구성	연구기관
	⑤ 유물 수집사업 전개	부산시/구군
	⑥ 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부산시/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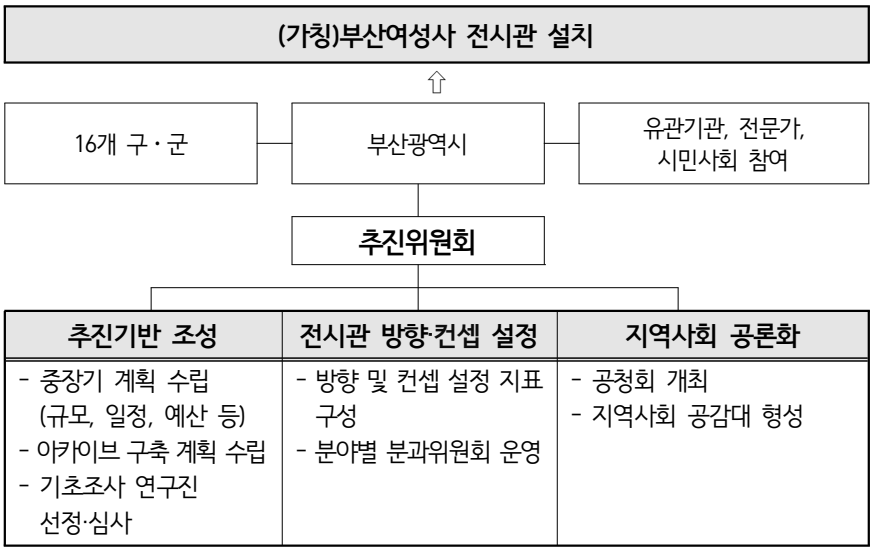
1)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전시관이 설치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설치 이후에 전시콘텐츠를 채우는 것은 이미 늦은 상황이 된다. 이에 향후 전시관 설치를 염두에 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추진위원회는 전시관 설치의 3단계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준비단계에 속하며, 역할로는 추진기반 조성, 전시관 방향 및 컨셉 설정, 지역사회 공론화 등을 들 수 있다.

추진기반 조성에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 아카이브 구축 위한 계획 수립, 기초조사 연구진 선정 심사 등을 들 수 있으며, 전시관 방향 및 컨셉 설정에서는 전시에 대한 전체 방향 및 컨셉 설정과 명확한 지표를 토대로 분야별, 세부주제별 심층적인 논의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공론화에서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 부산의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부산여성의 정체성과 부산여성사 연구에 대한 가치를 찾는 작업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는 통상적인 운영의 기능을 넘어서서 지역여성사 연구위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서, 학계, 여성계, 문화계, 교육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계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학, 여성사 전공자 등이 일정 비율로 구성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서도 여성사전시관 전체 방향과 주제를 설정하여 이끌고 갈 위원회 구성이 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상상력과 미래 방향을 끌어갈 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체방향 설정과 세부주제별 심층적인 논의를 전시관 설치의 관건으로 보고 있었다.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위한 추진위원회 역할(안)

2) 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계획 수립

장기적으로 여성역사문화 발굴, 보존, 관리, 전시관 운영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로드맵 구축 등 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 계획 수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계획에는 규모, 일정,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감독·평가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전시관 공사 및 설치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면서 감독하는 역할과 유물수집 관련 감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까지를 담을 필요가 있다.

3) 아카이브 구축 위한 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과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아카이브 구축의 우선순위와 이를 위한 유물 수집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다. 향후 부산여성회관이 재건축되어 전시관이 설치될 경우, 유물 및 자료 수집 이후에는 보존, 관리를 위한 수장고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시관 설치시기

를 확정하기 힘듦으로 전시관 설치 전에 수집한 유물 등을 보관, 관리하기 위한 임시 수장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아카이브 구축 작업은 전시관 설치 이전부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에 속하므로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4) 유물 발굴 등 현장조사 위한 연구진 구성

전시콘텐츠 개발과 전시관 운영은 전문 분야로서 유물 발굴 단계부터 현장조사, 기록, 분류, 보존,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유물 발굴 등 현장조사를 담당할 해당 학문 전공의 연구진은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 되는대로 가장 먼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연구진이 함께 중장기 계획과 아카이브 구축 계획 수립 이후, 기초조사를 설계하여 유물 수집, 그리고 공청회 등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서 제안되었듯이 조사현황 및 사례 조사, 관련 자료 수집, 세부콘셉 구상, 내외부 연구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공론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가칭 '여성사와 아카이브 연구소'를 구성, 1년 단위의 정기학술대회를 부산지역 여성관련 연구소와 협업하여 공동 기획 및 주관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5) 유물 수집사업 전개

전시방법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부산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첫 단계로서 유물 확보는 아카이브 구축에 필수요건에 해당된다. 또한 유물 수집 과정에서 기증이 아닌 구매의 경우,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자료 수집 및 기록의 결과를 상세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로 수집자료를 기록하는 상세 현황표에는 유물의 명칭과 유형에서부터 유물설명, 가치평가, 관련구술, 관련사진, 소유자, 관리상태, 수집방법(기증, 기탁, 구입, 대여, 복사), 조사일, 조사자, 참고문헌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이 필수적이다. 수집 자료에 상세한 기록은 향후 전시로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유물 수집 및 기록은 향후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작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물 수집사업과 관련해서는 유물기증위원회 및 유물 감정평가단 등을 운영하여 수집한 유물에 대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중요하다.

6)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여성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때 여성은 노동운동의 현장과 항일운동의 발자취(민족/여성 운동, 일신여학교)를, 남성은 삶의 현장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삶의 현장 역시 노동과 항일운동의 현장에서 활약했던 삶의 현장으로 해석 가능해 보인다.

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전시와 맥락을 같이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부산여성사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도출해 낼 수도 있다. 단지 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부산시와 구군의 협력 하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다.

부산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낼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는 준비, 실행, 운영 등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 준비단계, 사료 발굴 및 유물 수집팀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 실행단계, 부산여성사 전시관 개관 및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 운영단계로 이루어진다. 단계별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단계	추진내용
준비 단계	•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공청회 개최 : 지역사회 여성사전시관 설치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 전시관 설립기획의 단계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전시관 설치절차 수립: 건립방향(규모, 일정, 예산, 장소 등)) - 전시·운영 방법, 전시수집 시기·보관장소, 운영주체, 담당인력 등 준비 • 사료 발굴 및 유물 수집팀 구성 : 연구진 구성
실행 단계	• 전시관 건립(설치) 공사 • 전시실 내부 구성 확정(설계, 공사 등) • 운영조직 구성 등 전시관 개관을 위한 단계 • 사료 발굴 및 유물 수집팀 : 전시관 내부 구성 및 개관 준비 등
운영 단계	•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개관 및 운영 • 기 구성된 인력으로 전시관 운영 • 상설전시 운영, 지속적인 아카이빙 및 수장고 관리 등

<그림>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 단계별 추진내용(안)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3. 연구의 범위 및 절차 ····· 6
4. 선행연구 ····· 9

Ⅱ. 국내외 여성역사문화 전시관 현황 ····· 17
1. 국내 여성역사문화 전시관 현황 ····· 19
2. 국외 여성역사문화 전시관 현황 ····· 30
3. 시사점 ····· 36

Ⅲ.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조사분석 ····· 37
1. 전문가의견조사 ····· 39
2. 전문가의견조사 분석 결과 ····· 41
3. 전문가 컨설팅 분석 결과 ····· 70
4. 소결 및 시사점 ····· 86

Ⅳ.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관 설치 준비 ····· 97
1.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방향 ····· 99
2.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 ····· 100
1) 전근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 ····· 103
(1) 고대~고려시대 부산여성의 삶과 생활상 ····· 103
(2) 전쟁에 맞서 항거한 여성들 ····· 103
(3) 부산여성의 노동, 그 기원을 찾아 ····· 104
(4)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부산의 여성 시장상인들 ····· 105

(5) 주변화된 여성-동래 관기(官妓) ····· 106
2) 근현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 ····· 108
(1) 대한민국산업 전초기지와 부산여성 ····· 108
(2) 격동기 시대 - 삶을 개척한 시장여성 ····· 108
(3) 항일운동의 중심에 선 부산여성 ····· 109
(4) 근대여성교육과 부산여성 ····· 110
(5)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 110
(6) 근대 보건역사와 여성의 의료분야 진입 확대 ····· 111
(7) 개방과 포용의 역사 : 이주여성의 삶과 활동 ····· 111
3.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기반 구축 ····· 112
1)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113
2) 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계획 수립 ····· 114
3) 아카이브 구축 위한 계획 수립 ····· 114
4) 유물 발굴 등 현장조사 위한 연구진 구성 ····· 115
5) 유물 수집사업 전개 ····· 115
6)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 116

■ **참고문헌** ····· **118**

■ **부 록** ····· **121**

표목차

<표 Ⅰ-1>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 현황 ····· 10
<표 Ⅰ-2> 타 지역의 연구 현항 ····· 13
<표 Ⅱ-1> 국내 주요 여성박물관 및 전시관 사례 ····· 20
<표 Ⅱ-2> 국내 주요 여성아카이브 사례 ····· 24
<표 Ⅱ-3> 부산지역 여성문화 콘텐츠 사업 현황 ····· 27
<표 Ⅱ-4> 타 지역 주요 여성역사 문화콘텐츠 사례 ····· 29
<표 Ⅱ-5> 세계의 여성박물관 현황 ····· 31
<표 Ⅱ-6> 유럽 여성역사문화 주요 전시관 현황 ····· 32
<표 Ⅱ-7> 북아메리카 여성역사문화 주요 전시관 현황 ····· 33
<표 Ⅱ-8> 아프리카 여성역사문화 주요 전시관 현황 ····· 34
<표 Ⅱ-9> 아시아 여성역사문화 주요 전시관 현황 ····· 35
<표 Ⅱ-10> 국내 주요 여성박물관 및 전시관 특성 분석 ····· 36
<표 Ⅲ-1> 조사대상 응답자 현황 ····· 39
<표 Ⅲ-2> 설문영역 및 설문항목 ····· 40
<표 Ⅲ-3> 성별 ····· 41
<표 Ⅲ-4> 연령대 ····· 41
<표 Ⅲ-5> 거주지역 ····· 42
<표 Ⅲ-6> 소속 ····· 42
<표 Ⅲ-7> 전시관 구성 중요도 ····· 44
<표 Ⅲ-8> 제안하고 싶은 추가 전시관 ····· 45
<표 Ⅲ-9> [상설 전시_기억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 46
<표 Ⅲ-10> [상설 전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 ····· 47
<표 Ⅲ-11> [기획 전시_역동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 48
<표 Ⅲ-12> [기획 전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 ····· 49
<표 Ⅲ-13> [미래 세대 전시_도약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 50
<표 Ⅲ-14> [미래 세대 전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 ····· 51
<표 Ⅲ-15> [복합문화 창출_W-culture 공간] 콘텐츠 적절도 ····· 52

<표 Ⅲ-16> [복합문화 창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 ····· 53
<표 Ⅲ-17> 전시방법 적절도 ····· 54
<표 Ⅲ-18> 제안하고 싶은 추가 전시방법 ····· 55
<표 Ⅲ-19>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능(다중응답) ··· 56
<표 Ⅲ-20> 향후 부산지역에 여성사 전시관(가칭)이 설치될 때,
제안하고 싶은 명칭 ····· 57
<표 Ⅲ-21> 타 지역과 비교 시, 부산시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 정책의
수준 ····· 58
<표 Ⅲ-22>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다중응답) ····· 59
<표 Ⅲ-23> 응답자 특성별-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_1순위 ····· 61
<표 Ⅲ-24>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때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다중응답) ····· 62
<표 Ⅲ-25> 응답자 특성별-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때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_1순위 ····· 63
<표 Ⅲ-26> 부산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이슈화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단기 콘텐츠 ····· 64
<표 Ⅲ-27> 부산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이슈화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장기 콘텐츠 ····· 65
<표 Ⅲ-28>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보존, 전시와 관련한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중 부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 66
<표 Ⅲ-29>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보존, 전시와 관련한 건의사항(요약) ·· 67
<표 Ⅲ-30> 컨설팅 참여자 ····· 70
<표 Ⅲ-31>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 72
<표 Ⅲ-32>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 ····· 77
<표 Ⅲ-33> 향후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후 보존(아카이빙), 전시방향 ····· 81
<표 Ⅲ-34> 기타 의견 ····· 84
<표 Ⅲ-35>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 요약 ····· 92
<표 Ⅲ-36>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 관련 요약 ···· 94

<표 Ⅲ-37>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후 보존(아카이빙), 전시방향 관련 요약 ····· 95
<표 Ⅳ-1>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 ····· 102
<표 Ⅳ-2>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기반 구축 ····· 112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절차 ····· 8
<그림 Ⅲ-1> 성별 ····· 41
<그림 Ⅲ-2> 연령대 ····· 41
<그림 Ⅲ-3> 거주지역 ····· 42
<그림 Ⅲ-4> 소속 ····· 43
<그림 Ⅲ-5> 전시관 구성 중요도 ····· 44
<그림 Ⅲ-6> [상설 전시_기억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 46
<그림 Ⅲ-7> [기획 전시_역동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 48
<그림 Ⅲ-8> [미래 세대 전시_도약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 50
<그림 Ⅲ-9> [복합문화 창출_W-culture 공간] 콘텐츠 적절도 ····· 52
<그림 Ⅲ-10> 전시방법 적절도 ····· 54
<그림 Ⅲ-11>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능 (다중응답) ····· 56
<그림 Ⅲ-12> 타 지역과 비교 시 부산시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 정책의 수준 ····· 58
<그림 Ⅲ-13>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다중응답) ····· 60
<그림 Ⅲ-14>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때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다중응답) ····· 62
<그림 Ⅳ-1>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위한 추진위원회 역할(안) ····· 114
<그림 Ⅳ-2>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 단계별 추진내용(안) ····· 117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국의 주요 역사박물관들은 여성사 관련한 자료 수집, 보존, 관리에서뿐만 아니라 전시구성에서 여성의 역사를 제대로 보여주는 데 한계를 지니는 등 성 인지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여성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대로 인해 여성역사 박물관 및 전시관 건립은 확산 추세이다. 국제여성박물관협회에 등록된 자료에 근거하면 2019년 10월 기준, 75개의 여성 박물관 및 전시관이 전 세계에 만들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여성역사 박물관 및 전시관 건립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의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양성평등역사문화의식 확산을 목적으로 2002년 12월 서울여성플라자 내 설치되었다가 2014년 9월에 경기도 고양시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에서 새롭게 출발하여 고대~근현대까지의 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전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기본조사 설계비 3억원 및 총사업비 268억(전시실, 수장고, 교육실, 연구실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여성사박물관 설립 근거는「양성평등기본법」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제1항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로, 제2항에는 사업내용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 출연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들이 지역여성사 연구를 통해 여성역사, 인물, 문화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일부 기관은 여성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의 여성문화탐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전남과 제주는 여성사 아카이브 등을 구축하여 박물관 및 전시관을 설치하였다. 충북의 경우 2019년부터 충북여성재단 내에 로비공

간을 개조하여 66㎡ 규모의 '여성독립운동가 전시관'을 준비 중이다. 본원은 2009년부터 3년간 부산여성사 연구를 통해 『부산여성사Ⅰ-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 『부산여성사Ⅱ-역사속의 부산여성(고대~근대편)』, 『부산여성사Ⅲ-역사속의 부산여성(현대편)』을 발간하여 부산여성의 과거와 현재의 삶과 활동을 정리했다. 그러나 아카이브 작업을 통한 보존·전시 등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부산지역 여성사 전시관과 관련해서는 2017년 (구)부산남부경찰서(부산여성회관과 공동사업)가 정부의 노후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논의가 추진됨에 따라 향후 여성회관 내에 여성사 전시관 설치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었다. 그러나 2018년 부산여성회관 재건축은 기재부의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과의 분리·결정에 따라, 시에서 여성회관 재건축의 독자적 추진을 결정하였다.

2019년 본원의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여건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 결과, '여성사 전시관 운영으로 부산여성의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공간 제공' 전략 및 목표를 제안하여, 세부과제로 부산여성사 발굴·수집·전시·관리 등을 제안하였다(전혜숙 외, 2019).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시관 설치시기는 미정이며, 전시관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 단지 2019년 연구 결과, 부산여성사 전시관은 536㎡ 규모 정도이며, 같은 층의 도서관과 소강당을 합하면 885.83㎡ 정도이다.

왜 여성사 전시관 내지는 박물관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시린 에바디(Shirin Ebadi)의 "여성들은 세상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여성박물관이 있어야 한다!"[1]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사 전시관 설치와 전시콘텐츠 개발 연구를 통해 성 인지성에 근거한 여성사 박물관 및 전시관을 설치하여 여성의 삶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조명하고 장려하는 일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여성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 국제여성박물관협회 주최로 2008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컨퍼런스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본원의 부산여성사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산여성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전시하는 공간을 장기적으로 조성하여 부산여성의 역사문화를 조명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편, 성평등정책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시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시콘텐츠는 일차적으로 전시관 내에 전시가 목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둘째,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준비방안 등 두 가지 큰 틀에서 제안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국내외 여성사 전시관 및 박물관 현황, 국내 주요 여성아카이브, 부산지역 여성 문화콘텐츠 사업 현황, 타 지역 주요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사례 현황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의견조사와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전문가의견조사는 부산지역 및 타 시도의 역사, 문화예술, 전시 분야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실시되었다. 부산시가 장기적으로 설치 구상 중인 여성사 전시관(가칭)의 준비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관(가칭) 구성 및 중요도, 세부전시 공간별 콘텐츠 적절성, 전시방법, 부산여성사 전시관 기능 및 명칭, 여성역사문화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전문가 컨설팅은 역사, 전시 분야 관련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 전시관 설치를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 향후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시 보존(아카이빙) 및 전시방향 등에 대해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전문가의견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준비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제안하였다. 첫째,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의 전근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에서는 ①고대~고려시대 부산여성의 삶과 생활상, ②전쟁에 맞서 항거한 여성들, ③부산여성의 노동, 그 기원을 찾아서, ④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부산의 여성 시장상인들, ⑤주변화된 여성 – 동래 관기(官妓)를 제안하였다. 근현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에서는 ①대한민국산업 전초기지와 부산여성, ②격동기 시대 – 삶을 개척한 시장여성, ③항일운동의 중심에 선 부산여성, ④근대여성교육과 부산여성, ⑤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⑥근대 보건역사와 여성의 의료분야 진입 확대, ⑦개방과 포용의 역사 – 이주여성의 삶과 활동을 제안하였다.

둘째,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기반 구축에서는 ①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②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계획 수립, ③아카이브 구축 위한 계획, ④유물 발굴 등 현장조사 위한 연구진 구성, ⑤유물 수집사업 전개, ⑥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를 제안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절차

1)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관의 설치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두 가지 큰 틀에서 접근하였다. 즉 전시콘텐츠 개발 외에 전시관 설치 준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전시콘텐츠 개발은 전시관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 구체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본원의 2019년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여건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에서 제안된 전시관 규모를 토대로 전시콘텐츠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산여성회관 내에 설치될 부산여성사 전시관의 예상 규모는 536㎡ 정도이며, 같은 층의 도서관과 소강당을 합하면 885.83㎡ 정도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타 지역 여성사 전시관 분석과 관련

하여 국립여성사전시관 외에 지역여성사 전시관을 탐방하지 못한 채 인터넷 자료에 의존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향후 설치 예정인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명칭과 관련해서는 전시관 또는 박물관 형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에 의하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전시공간, 수장고, 사무실, 교육장소 등의 기본조건을 갖추면 박물관 등록이 가능하다. 전시관의 전시 컨셉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아카이브 구축과 유물 등을 보존, 관리하는 수장고가 필수이기 때문에 향후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시에 부산여성사 전시관 규모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절차

연구 절차는 <그림 Ⅰ-1>과 같다.

연구계획 수립	- 문헌 분석 및 부산시 내부자료 분석
⇩	
조사계획 수립	- 조사설계 - 조사대상 검토(부산지역 및 그 외 지역 역사, 문화예술, 전시 관련 전문가)
⇩	
전문가 자문(1차)	- 계획타당성, 조사설계 및 조사내용 검토
⇩	
전문가의견조사	- 총 55명 (부산지역 37명, 부산지역 전문가 70% 내외로 반영) (그 외 지역 18명, 타 지역 전문가 30% 내외로 반영)
⇩	
전문가 컨설팅	- 총 10명 (부산지역 및 그 외 지역 역사, 문화예술, 전시 관련 전문가)
⇩	
조사 분석	- 역사, 문화예술, 전시 관련 전문가(55명) 조사결과 분석 - 전문가 컨설팅(10명) 결과 분석
⇩	
전문가 자문(2차)	- 보고서 결과 및 정책방안 등 자문
⇩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관 설치 준비	1.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 - 전근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 ① 고대~고려시대 부산여성의 삶과 생활상 ② 전쟁에 맞서 항거한 여성들 ③ 부산여성의 노동, 그 기원을 찾아서 ④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부산의 여성 시장상인들 ⑤ 주변화된 여성 - 동래 관기(官妓) - 근현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 ① 대한민국산업 전초기지와 부산여성 ② 격동기 시대, 삶을 개척한 시장여성 ③ 항일운동의 중심에 선 부산여성 ④ 근대여성교육과 부산여성 ⑤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⑥ 근대 보건역사와 여성의 의료분야 진입 확대 ⑦ 개방과 포용의 역사 - 이주여성의 삶과 활동 2.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기반 구축 ①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② 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계획 수립 ③ 아카이브 구축 위한 계획 수립 ④ 유물 발굴 등 현장조사 위한 연구진 구성 ⑤ 유물 수집사업 전개 ⑥ 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	
보고서 결과 타당성 검증	- 내부 심의 : 개발원 내부 / - 외부 평가 : 전문가 5인 - 검토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그림 Ⅰ-1> 연구절차

4. 선행연구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정화 외(2009~2011)는「부산여성사 Ⅰ, Ⅱ, Ⅲ」연구를 통해 민족운동 및 여성운동에 두각을 나타낸 여성, 부산산업 발전의 기수 '여공', 격동기 시장의 여성들 등 근현대 속 부산 여성인물을 발굴·여성이미지를 조명하고, 고대~근대편(Ⅱ)을 통해서는 고대, 고려, 조선, 근대, 일제강점하, 전쟁 시의 부산여성의 교육·운동·경제·삶을 조명하였다. 현대편(Ⅲ)에서는 여성정책, 교육, 경제, 가족, 문화, 여성운동과 여성사 연구를 고찰하는 등 현대 부산여성의 삶을 조명하며 3개년에 걸쳐 시대에 따른 부산여성의 삶을 조명하였다.

전혜숙 외(2018)는「부산여성회관 중장기 운영방안연구」를 통해 부산시 양성평등정책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여성회관 기능 재정립과 지역수요에 맞는 여성회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양성평등 정책 변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 및 여성회관의 3대 전략으로 광역 단위 취·창업 지원 및 여성능력개발로 여성 경제활동 확대, 유관기관협력 여성가족 행복서비스 통합 정보 제공하여 일·생활 균형에 기여,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과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제시하였다.

전혜숙 외(2019)는「부산여성회관 재건축여건분석 및 기본구상」연구를 통해 '18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한 여성회관 재건축 논의가 무산됨에 따라 여성회관시설 부족, 수용능력 한계,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 및 필요 시설 구비, 리모델링의 한계 등 여성회관의 재건축 타당성을 도출하고 차별화된 여성회관시설 기능 도출 및 시설 구상, 여성인력개발기관, 여성회관시설을 통합한 여성관련시설 재구조화를 제시하였다.

전혜숙 외(2019)는「부산여성문화회관 중장기 운영방안」연구를 통해 여성이 주체가 되는 교육, 봉사, 창작 연계 문화 활동 플랫폼 구축, 여성문화 콘텐츠 생산 거점으로 여성과 문화가 만나는 창조 공간 조성, 여성의 기술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조성, 단계적 추진과제로 프로그램 체계 구축, 시설 기반 구축, 추진역량강화를 양성평등정책 서비스전달

체계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중장기 운영 방향과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본원의 관련 연구 현황을 정리하면 <표 Ⅰ-1>과 같다.

<표 Ⅰ-1>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 현황

연구명	연구내용
부산여성사 Ⅰ - 근현대 속의 부산 여성과 여성상, 2009(하정화 외)	- 근현대 속의 부산 여성인물 발굴 및 여성이미지 조명(여성인물사) • 근현대 잇는 조선시대 여성, 외국인 등 개인 및 집단으로의 여성인물 조명 • 민족운동 및 여성운동에 두각을 나타낸 여성, 부산산업 발전의 기수 '여공' 조명 • 사회/교육 분야, 여성운동/정치 분야, 예술 분야 등 11명의 부산여성인물 조명 (안음전/이동희/황순조, 정봉금/허무인, 김말봉/김혜성/김천옥) • 격동기 시장(자갈치, 국제시장, 부산진시장)의 여성들 조명 • 여성운동/여성정책/정치/경제 분야에서의 여성원로 조명 등
부산여성사 Ⅱ - 역사속의 부산 여성(고대~근대편), 2010(하정화 외)	- 고대~근대까지의 부산여성의 삶 조명(여성사 통사) • 고대/고려/조선/근대/일제강점하/전쟁 시의 부산여성의 교육/운동/경제/삶 조명
부산여성사 Ⅲ - 역사 속의 부산 여성(현대편), 2011(하정화 외)	- 현대 부산여성의 삶 조명(여성사 통사) • 여성정책, 교육, 경제, 가족, 문화, 여성운동과 여성사 연구 등을 고찰
부산여성회관 중장기 운영방안연구, 2018(전혜숙 외)	부산시 양성평등정책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여성회관 기능 재정립과 지역수요에 맞는 여성회관의 비전과 발전방향 제시 - 정책제언 : 양성평등 정책 변화, 시민 수요 반영하여 여성회관 3대 전략 제시 • 광역 단위 취·창업 지원 및 여성능력개발로 여성 경제활동 확대 • 유관기관협력 여성가족 행복서비스 통합 정보 제공하여 일·생활 균형에 기여 •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과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여건분석 및 기본구상, 2019(전혜숙 외)	2018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한 여성회관 재건축 논의가 무산됨에 따라 여성회관 재건축 타당성을 도출하고 재건축 기본구상계획을 수립 - 정책제언 • 여성회관 재건축 타당성 도출 ▷ 여성경제활동 참여 저조한데 비해 여성회관시설 부족, 수용능력 한계 ▷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 및 필요한 시설 구비 필요 ▷ 40년 경과된 시설 노후화로 리모델링으로는 보수할 수 없는 한계 • 차별화된 여성회관시설 기능 도출 및 시설 구상 ▷ 여성 스타트업 플랫폼, 여성사 전시관 운영, 여성커뮤니티 활동 지원 기능 ▷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 창업스트리트, 여성사전시관,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 여성인력개발기관, 여성회관시설 통합한 여성관련시설 재구조화 제안
부산여성문화회관 중장기 운영방안, 2019(전혜숙 외)	양성평등정책 변화와 시민수요에 맞춰 부산여성문화회관이 부산시 양성평등정책서비스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중장기 운영 방향과 전략 도출 - 정책제언 • 여성이 주체가 되는 교육, 봉사, 창직, 창작 연계 문화활동 플랫폼 구축 • 여성문화 콘텐츠 생산 거점으로 여성과 문화가 만나는 창조 공간 조성 • 여성의 기술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조성 • 단계적 추진과제는 프로그램 체계 구축, 시설 기반 구축, 추진역량강화

타 지역 여성역사문화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김용승 외(2004)는 「여성사 전시관 중장기발전 연구」를 통해 여성사 전시관의 기본성격과 역할로 21세기를 위한 여성 및 양성평등 교육연구기관, 다양한 정보교류와 이벤트가 가능한 교육·문화공간, 정보화 사회를 위한 정보교류 및 교육의 장, 양성평등교육원, NGO센터 등을 포함한 전문분야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고 여성사 전시관의 중장기발전 방안으로 예산 확정과 부지 매입, 미래관 건립전담팀 구성 및 관장 선임, 전시자료의 수집,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한 규모(연면적)의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양애경 외(2004)는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여성문화유산의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문화유산의 콘텐츠 및 매체 개발, 핵심집단 형성, 네트워크 구축 등 문화자원 기반의 확충, 여성부, 문화관광부, 지자체 각각의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적 관심의 제고, 여성문화유산 관련 지적자산의 축적 및 DB화, 관련 소모임활동 활성화, 학습프로그램 개발, 탐방코스 개발 등 여성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기', 여성문화유산의 문화자원화, 상품과 축제 개발 등 여성문화유산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미원(2006)은 「대구 여성사전시관 활용가치 및 설립방안 검토」 연구를 통해 대구 여성사전시관의 활용가치와 설립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여성사 전시관의 설립형태에 대한 합의 필요, 민·관·학·연의 전문가 그룹의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 지역여성사 전시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수요조사 실시, 지역여성사 전시관 정보 정비와 확보방안 마련 및 지역민 인식확산 기회 제공을 제시하였다.

양애경 외(2012)는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여성사박물관의 위치선정의 기본방향, 건립(안)과 함께 여성문화유산 수집·보존·연구, 상설관 및 기획관 설치, 아카이브 및 정보자료관, 교육·체험 공간, 네트워크 등의 여성사박물관의 전시 방향 및 구성을 제시하였고, 상설 및 기획 전시, 연구, 교육, 전국여성사 자료 조사·수집·보존, 디지털화, 여성자료 온라인링크 및 정보제공, 여성 문화 활동 공간 등

분야별 특성화 전략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기계형 외(2017)는 「여성사 자료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에서 여성사 자료 발굴을 위한 방안으로 근현대 여성생활사의 무형문화유산의 수집·연구·교육·전시의 전문공간 필요, 5년간 17개시도 지자체와 20여개 도청소재지의 여성사, 여성문화 등 관련 DB작업, 사료, 구술, 금석문 등 아카이브 구축 연구 필요, 전수조사와 심화연구 등 후속작업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최세정 외(2018)는 「대구여성탐방로 자원화방안 연구」를 통해 대구여성탐방로 활성화 방안으로 운영 주체의 파트너십 구축, 수요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대구여성탐방로 개발, 대구여성탐방로 내 사실관계가 잘못된 표지판 및 벽화 보완 등 각종 시설 정비, 체험형 탐방로 조성을 제시하였다.

정여진 외(2018)는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해 젠더적 관점을 통한 여성연구의 이론적 토대 확립, 젠더 관점의 제주지역 역사 재조명 연구, 제주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제주 여성정책 연구 범위 확대 및 고도화 등 제주 여성연구 영역 확대에 대해 제시하였고, 제주 여성연구 자료화 및 서비스 제공, 제주 여성연구 대중화를 위한 여성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등 제주 여성연구 성과물의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연구인력 양성, 여성연구자 네트워크 구축강화, 여성연구조직기반 조성 등 제주 여성연구 추진기반 강화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임송미 외(2019)는 「전남여성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연구」를 통해 전남 여성문화관광루트 활성화 방안으로 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기존 지역관광자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활동형 문화자원에 대한 체험관광 및 교육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여성 관련 스토리텔링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운영, 숙박시설 개발, 정보통신기술 기반 매체를 통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홍보, 편의시설 개선·확충, 지역고용 활성화 위한 기존관광지와 여성문화기반 관광지 간 물리적 장소연계를 제시하였다. 타 지역 여성역사문화 관련 연구 현황을 정리하면 <표 Ⅰ-2>와 같다.

<표 Ⅰ-2> 타 지역의 연구 현황

연구명	연구내용
여성사 전시관 중장기 발전 연구 (여성가족부), 2004	- 기본성격과 역할 • 21세기를 위한 여성 및 양성평등 교육연구기관 • 다양한 정보교류와 이벤트가 가능한 교육·문화공간 • 정보화 사회를 위한 정보교류 및 교육의 장 • 양성평등교육원, NGO센터 등을 포함한 전문분야 역할 강화 - 제안 • 예산 확정과 부지 매입 • 미래관 건립전담팀 구성 및 관장 선임 • 전시자료의 수집 : 박물관의 경쟁력은 전시자료 확보와 기획력 •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한 규모(연면적)가 바람직
여성문화 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활성화방안 (한국여성발원), 2004	- 정책제언 • 여성문화유산의 문화자원 기반 확충 ▷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관심 확산 : 여성문화유산 콘텐츠/매체 개발 등 ▷ 여성문화유산 핵심집단 형성 : 해설사 양성 및 해설사교육프로그램 개발 ▷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 •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적 관심 제고 ▷ 여성부 : 여성문화유산 정책협의체 구성, 활용사업모형 개발, 문화시설관계자 성인지력 향상교육, 해설사교육과정에 성관점 통합, 여성사전시관 활성화 계획수립 ▷ 문화관광부 :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지적 축적 지원, 문화제청의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능 정립 ▷ 지자체 : 지역의 여성문화자산 발굴/활용 위한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 해설사 활동지원 방안 마련, 여성정책부서와 문화유산 관계부서간 협조 • 여성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기' ▷ 여성문화유산 지적자산 축적, DB화 : 여성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의미 재조명, 여성문화유산 DB구축 ▷ 지역여성사 탐구 소모임활동 활성화와 여성사 학습프로그램 개발 : 지역여성의 역사 찾기 위한 자발적 소모임활동 지원, 여성평생학습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여성사 학습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여성문화유산 탐방코스 개발과 문화유산 관련사이트에 탑재 : 테마별/권역별 여성문화유산 탐방코스 개발, 여성테마코스의 체험학습자원으로 활용, 문화유산관련사이트에 여성테마 탑재 요청 ▷ 여성문화유산의 개방적/능동적 보존 및 관리 : 지역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개발적 활용 유도, 홍보 강화 • 여성문화유산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 ▷ 경제/문화적 의미의 통합가치에 기반한 문화자원으로서 산업적 활용 잠재력 발굴 : 역사/문화적 의미의 문화자원화, 활용 ▷ 여성문화유산을 활용한 상품과 축제 개발 방향 : 여성문화유산 의미에 충실한 상품과 축제 개발, 생산자 중심의 개발, 소규모 대안적 개발

연구명	연구내용
대구여성사 전시관 활용가치 및 설립방안 검토 (대구경북연구원), 2006	- 정책제언 • 지역여성사 전시관의 설립형태에 대한 합의 필요(예산확보방안과 연계) • 민·관·학·연의 전문가 그룹의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 • 지역여성사 전시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수요조사 실시 • 지역여성사 전시관 정보 정비와 확보방안 마련 및 지역민 인식확산 기회 제공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 여성역사 박물관으로의 발전방안 (양애경 김인순 이성숙 이춘아 최선경), 2012	- 여성사박물관 전시 방향 및 구성(박물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 • 여성문화유산 수집·보존·연구 • 상설관 및 기획관 설치 • 아카이브 및 정보자료관 • 교육/체험 공간 • 국내외 여성문화 네트워크교류 등 - 여성사박물관의 분야별 특성화 전략 • 상설 및 기획 전시 : 문화유산 수집/보존/연구/전시, 고대~근현대 여성 삶 조명 상설전시, 일본군위안부/여성독립군/신여성 등 일제강점기 여성 삶 전시, 산업화/민주화시대 경제문화활동/스포츠 분야 여성활동 전시, 한국/세계·동양 여성사 비교전시(기획전) • 연구 : 역사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 가치 연구, 양성평등 등 사회변화의 주역 여성 인물/업적 발굴, 양성 통합의 역사기록 발굴, 지역여성, 여성운동, 여성단체 역사자료 발굴/보존/연구, 구술자료 등 • 교육 : 여성사 평생교육, 성인지관점의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 아카이브 전국여성사 유물 등 박물/구술자료 조사/수집/보존, 디지털화, 여성자료 온라인링크 및 정보제공 • 여성 문화활동 공간 :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활동 공간 제공, 문화활동 위한 연구세미나실 제공, 여성사 및 여성문화활동 인큐베이터실 운영 - 여성사박물관 건립 및 추진방안 제안 : 위치선정의 기본방향, 건립(안) 등
여성사 자료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여성가족부), 2017	- 정책제언 • 근현대 여성생활사의 유형문화유산 및 가치에 비해 기억에서 사라지는 무형문화유산의 수집/연구/교육/전시의 전문공간 필요 • 향후 심화연구 필요 : 5년간 17개시도 지자체와 20여개 도청소재지 여성사, 여성인물, 여성문화유산, 여성문화콘텐츠 사업 관련 DB작업, 사료, 구술, 금석문 등의 사료 아카이브 구축 연구 필요 • 국립여성사박물관은 지역여성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된 공간으로 전수조사와 심화연구 등 후속작업 필요
대구여성 탐방로 자원화방안 연구(대구여성가족재단), 2018	- 대구여성탐방로 활성화 방안 • 운영 주체의 파트너십 구축 • 수요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대구여성탐방로 개발 • 대구여성탐방로 내 사실관계가 잘못된 표지판 및 벽화 보완 등 각종 시설 정비 • 체험형 탐방로 조성방안 제시

연구명	연구내용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8	- 향후과제 • 제주 여성연구 영역 확대 ▷ 젠더적 관점을 통한 여성연구의 이론적 토대 확립 ▷ 젠더 관점의 제주지역 역사 재조명 연구 : 제주4·3과 여성, 제주해녀 등 ▷ 제주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 여성문화유적지 개발 및 콘텐츠화 등 ▷ 다양한 여성인물 발굴 및 생애사 연구 ▷『제주여성사 III』편찬 추진 ▷ 제주 여성정책 연구 범위 확대 및 고도화 ▷ 변화의 주체로서 제주 여성의 정체성 연구 • 제주 여성연구 성과물의 활용 제고 ▷ 제주 여성연구 자료화 및 서비스 제공 ▷ 제주 여성연구 대중화를 위한 여성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제주 여성연구 추진기반 강화 ▷ 여성연구인력 양성 ▷ 여성연구자네트워크 구축강화 ▷여성연구조직기반 조성
전남여성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 2019	- 전남 여성문화관광루트 활성화 방안 1. 여성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루트 마케팅 ▷ 전남 여성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천 방안 1) 여성의 일상적 삶이 표현된 생애사 및 생가·지역고택 등의 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2) 기존 지역관광자원 프로그램과 여성문화교육의 연계 3) 베틀, 요리, 김장 등 여성친화적 활동형 문화자원에 대한 체험관광 및 교육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4) 설화, 민담, 신화 등을 통한 여성 관련 스토리텔링 관광상품의 개발 및 운영 5) 한옥 등 지역고유의 숙박시설 개발/정보통신기술 기반 매체를 통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홍보 6) 교육관광, 문화예술관광 등 위한 내부 문화예술인사의 보호 및 외부 문화예술인사의 적극적 유입 유도, 문화예술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7)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단위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여성문화 발굴/시설개발: 문화예술시설 / 숙박시설 / 시장주변주차장 / 입구 / 이정표 / 랜드마크 등 편의시설 개선/확충 8) 지역고용활성화 위한 기존관광지와 여성문화기반 관광지간 물리적 장소연계 2. 여성문화자원 기반 관광루트 개발의 여성사회학적 의미 ▷ 여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향유 수단 ▷ 사회화(socialization)를 위한 교육콘텐츠 ▷ 지역공동체 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회적 자본

연구명	연구내용
전남여성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 2019	3. 여성문화자원 기반 관광루트 활용을 위한 제언 및 기대효과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기반 전라남도 여성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위한 지원 정책 범주(안) ▷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 ▷ 개발 및 관리 운영방안 1) 여성문화자원 관광콘텐츠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2) 지역공동체 내외 주요 여성 기반 문화 보유 문화예술인사에 대한 지원서비스 3) 독자적 수익창출사업의 발굴 4) 여성문화자원 기반 관광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공재생사업 ▷ 여성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화사업의 기대효과 1) 협력적 계획 및 개발을 통한 정주환경의 개선과 지역정체성 강화 2) 유산관광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콘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스' (OSMU: One Source Multi Use) 3) 지역 고유 문화자원의 보존과 선택적 개발을 통한 복지적 가치의 실현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여성역사문화 관련 여성인물 발굴, 생애사 연구 등 다양한 여성인물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여성역사문화에 대한 자료의 수집·보존, DB작업, 아카이브 구축 등 분야별 자료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여성역사문화 자료 전시 공간, 여성역사문화 활동 공간, 여성역사문화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공간 등 복합적으로 활용 가능한 여성역사문화 공간의 마련과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여성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여성역사문화자원 교육·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산업화·관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수요자 중심적 여성문화자원의 활용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성역사문화자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네트워크 활용과 더불어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화된 네트워크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Ⅱ. 국내외 여성역사문화 전시관 현황

1. 국내 여성역사문화 전시관[2] 현황

1) 국내 박물관 및 전시관

국내 여성 관련 주요 박물관 및 전시관은 국립여성사전시관을 포함한 6개소로 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국립여성사전시관'은 2002년에 준공된 곳으로 상설전시, 특별전시, 순회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는 연대기존(고대/고려/조선/근현대)과 테마존(근현대/현대)으로 구분되며, 각 연대별 여성생활사, 활동상 등을 조명한다. 그 외, 고양어린이박물관, 북촌문화센터, 신한은행 백년관 등의 순회전시와 사이버전시(VR), 체험공간, 아카이브 관리·소장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은 2012년에 준공된 곳으로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역사를 기억·교육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공간으로 상설전시, 특별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는 박물관 층별로 구성되는데 지하층은 전쟁터와 위안소 배경의 피해자들이 겪은 역사 전시, 2층은 위안부 제도의 실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역사 전시, 피해자 삶 조명, 1층은 상설관으로 세계분쟁과 여성폭력 사례·사진을 전시한다. 그 외, 주제에 따른 특별전시와 행사 등이 운영된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전남여성문화박물관'은 2009년에 준공된 곳으로 전남여성 100년사를 기획, 전시하는 곳이다. 상설전시는 학습하는 여성, 행동하는 여성으로 나누어 시대별 여성의 지위 및 문화변화와 생활상, 독립운동·교육·사회운동·문화예술 분야의 전남여성 활동상을 조명한다. 타 여성전시관 및 박물관과 교류전을 개최하는 등의 기획전시도 운영된다.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은 2010년에 준공된 곳으로 제주여성의 삶과 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이다. 제주여신 이야기

2) 본 연구에서는 여성사 전시관이라는 명칭을 일반적인 박물관 명칭과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를 전시하는 공간인 신화관, 제주예청(여성군인)의 역사와 조선시대 및 근·현대 제주여성 역사인물을 전시하는 역사관, 제주여성의 삶의 모습과 장인(무형문화재), 미래 직업군을 주제로 전시하는 생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여성전시관'은 2012년 준공된 곳으로 광주여성의 역사와 삶, 문화를 기획, 전시하는 공간으로 상설전시, 기획전시로 구성된다. 민주화 운동, 여성인권 운동 연표 전시, 광주여성의 정치·경제·생활 관련 통계를 전시하는 상설전시와 주제별 특별전, 교류전 등의 기획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여성플라자(스페이스봄)'는 2002년 준공된 곳으로 여성친화적인 여성작가(신진·경력단절) 전시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전시 지원과 더불어 아트샵과 연계한 작가발굴을 통해 전시, 판매의 기회를 제공하는 홍보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표 Ⅱ-1> 국내 주요 여성박물관 및 전시관 사례

명칭	운영 기관	준공 (면적)	내용
국립 여성사 전시관	여성 가족부	2002.12. 2014.9. (763㎡)	- 상설전시 ▷ 연대기존: 고대/고려/조선/근현대 여성 생활사, 활동상 등 조명, 전시 ▷ 테마존(근현대/현대): 우리동네엄마들/도시로 간 언니들/ 20세기 여성운동의 위대한유산 - 특별전시 ▷ 여성직업변천사 100년: 여성, 세상으로 나가다 ▷ 여성독립운동가, 미래를 여는 100년의 기억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여성독립운동가, 공감·기억 그리고 미래 ▷ 한국여성사 120년: 오늘, 여권통문을 다시 펼치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념: 여성, 체육의 새지평을 열다 - 순회전시 ▷ 1919년,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양어린이박물관 ▷ 한국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 북촌문화센터(2019) ▷ 한국근대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지 찾아서: 신한은행 백년관 - 사이버전시(VR): 가족과 함께한 출산과 양육의 역사 등 - 체험공간: 내게 보내는 편지, 우리들의 이야기 - 아카이브 관리, 소장 등

명칭	운영 기관	준공 (면적)	내용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2012.5.5. (345,52㎡)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역사를 기억, 교육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활동하는 공간> - 상설전시 ▷ 지하: 쇄석길/지하전시관/계단전시, 전쟁터와 위안소 배경의 피해자들이 겪은 역사 전시 ▷ 2층: 역사관/운동사관/생애관1·2/기부자의벽/추모관, 위안부 제도의 실체, 위안부 문제해결 위한 운동의 역사 전시, 피해자 삶 조명 ▷ 1층: 상설관/참여+약속의 공간, 세계분쟁과 여성폭력 사례·사진 전시, 관람객들의 참여의지 새김 ▷ 기획전시관 1·2: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열기까지의 이야기 전시, 광복70년 특별전: 베트남전쟁 한국군 성폭력 피해 베트남 여성관련 역사 전시 - 특별전시 ▷ 나비의 꿈: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1주기 추모전 ▷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추모와 기억전 ▷ 최초의 증언자들 ▷ 수요일, 12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00차 수요시위 맞이 특별전 - 행사 ▷ 문화예술프로그램: 일본군위안부 및 여성인권의 내용을 담은 강의/공연/음악회/작가와의대화/작품 만들기 등 ▷ 청소년 명예기자단 활동 - 박물관 뜰, 자료실, 뮤지엄숍 등
전남 여성 문화 박물관	전남 여성 가족 재단 (안에 위치)	2009.4. (380㎡)	<전남여성 100년사를 기획, 전시> - 상설전시 ▷ 학습하는 여성: 원시 모계사회/삼국/고려/조선, 시대별 여성의 지위 및 문화변화, 생활상 ▷ 행동하는 여성: 독립운동/교육및사회운동/문화예술 등 9명의 전남여성 활동상 조명 - 기획전시 ▷ 국립여성사전시관 특별교류전: 세계 속의 한국 여성 ▷ 특별교류전: 여성, 체육의 새 지평을 열다, 세계 여성박물관을 가다 ▷ 전남여성작가 발굴 및 전시지원
제주 여성 역사 문화 전시관	제주 설문대 여성 문화 센터 (안에 위치)	2010.10. (711.7㎡)	<제주여성의 삶과 문화를 전시> - 신화관 ▷ 영상체험실: 제주여성의 과거·현재·미래 영상 소개 ▷ 제주여신 이야기 전시: 설문대할망, 자청비 등 제주여성 관련 신화 - 역사관 ▷ 제주예청(여성군인) 역사 전시 ▷ 조선시대/근·현대 제주여성 역사인물 전시 - 생활관 ▷ 제주여성의 삶의 모습 전시 및 영상 ▷ 제주여성의 장인들(무형문화재) 전시 및 영상 ▷ 미래의 직업군 전시

명칭	운영 기관	준공 (면적)	내용
광주 여성 전시관	광주 여성 가족 재단 (안에 위치)	2012.1.12. (9.52 ㎡)	<광주여성의 역사와 삶, 문화 기획 전시> - 상설전시 ▷ 광주여성 역사/통계 전시: 민주화 운동, 여성인권 운동 연표 전시, 광주여성의 정치·경제·생활 관련 통계 전시 - 기획전시 ▷ 기획전: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 평등양육 실현을 위한: 스웨덴의아빠 ▷ 페미니스트의 물건 ▷ 여성전시관 기획전: 그, 女子의 시간 ▷ 광주여성재단과 국립여성사전시관의 특별교류전: 여권통문(女權通文) ▷ 오월여성아카이브전시 참여전시(2)-역사의 아픔을 상징하는 6칸의 책장 ▷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그경험과 기억展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오픈(2차 기획전시) ▷ 오월여성아카이브展: 1980년 5월, 광주여성들이 2013년 광주공동체에 전하는 메시지 ▷ Herstory「3不(불) 타파-불편.불안.불평등」 ▷ 광주여성재단 1주년 기념 특별전: 수상한 꽃 - 怪想華 她望(그녀의 바램) ▷ 광주여성전시관 개관 특별전: 드러나다
서울 여성 플라자 (스페이스봄)	서울여성가족재단 내 위치	2002.6. (70㎡)	<여성친화적인 여성작가(신진·경력단절) 전시 지원> ▷ 여성친화적인 창작활동을 추구하는 여성작가(신진여성작가, 경력단절작가) 전시 지원 ▷ 아트큐브21(아트삽)과 연계한 작가발굴을 통해 전시, 판매의 기회 제공으로 홍보네트워킹의 장 마련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자료 참조(2020.1.13., 3.6~3.9 검색)

2) 국내 주요 여성아카이브

국내 주요 여성아카이브 8곳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대구여성아카이브'는 여성생애구술사 34명, 근대여성인물사 17명, 남일동7부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관리한다.

국립여성사전시관이 운영하는 '여성사자료실'은 황진이 등 인물연구 241건, 황애시덕 등 여성독립운동가 361건, 구술자료 52건, 시도 여성사 연구자료 등 도서·영상자료 4,286건과 그 외 여성사자료 등을 수집·관리한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운영하는 '경북여성아카이브'는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경북여성의 삶」 등 여성사 보고서 27건, 심포지움, 탐방프로그램 등 교육행사 자료 40건의 문헌자료와 해녀, 민화작가, 무형문화재, 여성소방관 등 경북여성아카이브 68건, 조선의용대, 여성독립운동가 등 여성인물 25건, 여성유적 24건의 사진자료를 수집·관리한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운영하는 자료실은 일본군 위안부 자료 발굴의 현재와 향후 과제 등 2,449건의 자료 검색과 대한민국 국회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등 73건의 문헌자료, 김순덕「못다핀 꽃」 등 12건의 할머님들 작품 및 유품을 수집·관리한다.

전남여성문화박물관(전남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여성친화문화사업'은 윤학자 등 13건의 전남여성생애사를 수집·관리하며, 여성인문아카데미 등 66건의 여성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여성문화아카이브'는「전남여성 노동과 삶의 주제로 자연가득 유기농 먹거리를 전하는 영암유기영농조합 고효숙 대표」 등 인물사 5명,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국악 성우향, 공예 김점순, 독립운동 진신애 등 12개 분야 총 25명의 역사적 인물을 수집·관리한다.

충북여성재단이 운영하는 '충북여성아카이브'는 충북여성사1「충북여성의 발자취」에 이어 충북여성사5「충북여성생애구술사_전통시장에 얽힌 충북여성의 삶, 육거리 시장으로 흐르다」 까지 충북여성사를 수집·관리한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운영하는 '강원여성아카이브'는 김옥순 등 여성인물 17명, 구술사 자료 2건 등의 강원여성구술사와 곽진근 등 16명의 강원도 여성독립유공자, 신사임당 등 4명의 대한민국을 빛낸 강원여성 등을 수집·관리한다.

<표 Ⅱ-2> 국내 주요 여성아카이브 사례

운영기관	여성 아카이브	내용	
대구여성 가족재단	대구여성 아카이브	여성생애구술사	- 34명: 패션.미용 7, 예술 7, 의료 7, 시장 7, 섬유 5
		근대여성인물사	- 17명: 최초 여성감독, 최초 여성비행사 등
		남일동7부인	- 7명: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
국립 여성사 전시관	여성사 자료실	인물연구	- 241건: 황진이 등
		여성독립운동가	- 361건: 황애시덕 등
		구술자료	- 52건: 여성과예술, 여성과일상, 여성과노동, 여성과운동
		도서.영상 자료	- 4,286건: 시도 여성사 연구자료 등
		여성사자료	- [일상 속에서 만나는 여성독립운동가] 여성독립운동가 달력(2019)
경북여성 정책 개발원	경북여성 아카이브	문헌자료	- 여성사 보고서: 27건 ▷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경북여성의 삶, 장한여성상 수상자들의 Her-story, 경북여성의 정체성과 혼, 경북여성사 발간 등 - 교육행사 자료: 40건 ▷ 경북여성인물을 여행하는 인문학 여행, 경북여성 인물 재조명 심포지움, 경북여성인물 탐방프로그램, 옛기와그림 전시, 여성군자 장계향 아카데미
		사진자료	- 경북여성아카이브: 68건 ▷ 해녀/민화작가/무형문화재/여성소방관 등 - 여성인물: 25건 ▷ 조선의용대, 여성독립운동가, 여성성악가, 여성작가 등 - 여성유적: 24건 ▷ 근현대 예술가/사회사업가/독립운동가/신라의 왕비 등 유적 및 탐방지 등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 협의회)	자료실	자료 검색	- 2,449건: 일본군 '위안부' 자료 발굴의 현재와 향후 과제 등
		문헌자료	- 73건: 대한민국국회 일본군위안부결의안 등
		할머니작품/유품	- 12건: 김순덕 <못다핀 꽃> 등
전남 여성문화 박물관 (전남여성 가족재단)	여성친화 문화사업	전남여성 생애사	- 13건: 윤학자 등
		여성문화 프로그램	- 66건: 여성인문아카데미, 북카페 여성문화프로그램, 문화에서 여성을 만나다, 영화감상&영화감독과의 대화 등

운영기관	여성 아카이브	내용	
전남여성 가족재단	여성문화 아카이브	전남여성 노동과 삶	<인물사 : 5명> - 자연가득 유기농 먹거리를 전하는 영암유기영농조합 고효숙 대표 -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가치를 지키는 임화자전통식품 임화자 대표 -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100년된 장맛' 귀빈식품 한안자 대표 - 사계절 자연의 색을 입히는 황토명가 김명희 대표 - 전남여성 취·창업성공사례집(문현정 등 8명)
		역사적 인물	<분야별 총 25명> - 국악: 성우향 등 6명 - 공예: 김점순 - 독립운동: 진신애 등 4명 - 대중가수: 이난영 - 무용: 홍정희 - 문학: 고정희 등 3명 - 미술: 이성자 등 2명 - 민주열사: 박승희 등 2명 - 사회운동: 조아라 - 의료: 현덕신 - 종교: 고판례 등 2명 - 학술: 김삼순
충북 여성 재단	충북 여성 아카이브	충북여성사	- 충북여성사1: 충북여성의 발자취 - 충북여성사2: 충북여성인물사_새로운 길을 밝힌 여성들 - 충북여성사3: 충북여성생애구술사_연초 산업과 여성의 삶 - 충북여성사4: 충청북도여성회관에서 여성발전센터까지 충북여성과 함께한 50년 - 충북여성사5:충북여성생애구술사_전통시장에 얽힌 충북여성의삶, 육거리시장으로 흐르다
강원도여성 가족연구원	강원여성 아카이브	강원여성구술사	- 여성인물: 김옥순 등 17명 - 구술사 자료: 2건 ▷ 강원여성구술사 I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의 분담경험과 일상 ▷ 강원여성구술사 II 탄광지역 여성의 노동과 삶
		강원도 여성독립유공자	- 16명: 곽진근, 김경순, 김경화, 김도연, 왕종순, 윤경옥, 윤희순, 이계원, 이남규, 이소희, 이영신, 조화벽, 지은원, 최갑순, 최윤숙, 함용환
		대한민국을 빛낸 강원여성	- 4명: 신사임당, 허난설헌, 임윤지당, 윤희순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자료 참조(2020.1.13., 3.6~3.9 검색),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5.18 검색

3) 부산지역 여성 문화콘텐츠 사업 현황

부산지역의 여성 문화콘테츠 사업은 크게 사업 및 축제, 조형물, 학술대회, 기념관 조성 및 탐방으로 구분되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 사업 및 축제는 충렬사 제향, 송공단 제향, 일신여학교 3·1의거 재현, 정신대 해원상생 대동굿이 있다. 충렬사 제향은 임진왜란 때 순절한 영령과 의백을 모시는 것으로 금섬, 애향 등이 포함된다. 송공단 제향은 임진왜란 때 왜군과 맞서다 순절한 송상현 부사와 이름 없는 병사들을 위한 제향으로 174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일제 때부터 동래기영회가 주관하고 있다. 일신여학교 3·1의거 재현은 매년 3·1절에 일신여학교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하는 것으로 부산동구 문화원이 주관한다. 정신대 해원 상생 대동굿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1993년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시작된 것으로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진혼무 천왕맞이 굿 등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한다.

부산지역 조형물은 박차정 의사 동상, 부산소녀상 건립이 있다. 박차정은 근우회 운동으로 여성운동에 앞장섰고, 민족혁명당 조선부인회를 결성하여 조선의용대의 부녀복무단장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1995년 독립훈장을 받았던 때 동상 건립이 논의되었고 2001년 동래여고 부근 광장에 세워졌다. 부산소녀상은 부산 위안부의 상징으로써 2016년 3월 1차로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건립되었으며, 2016년 12월에야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 소녀상'으로 설치가 되었다. 동구청에서 철거를 시도하였지만 촛불시위 전개로 이를 철회하고 동구청이 직접 관리하기로 약속하였다.

부산지역 학술대회는 2001년 신라대학교에서 주최한 「부산지역사회의 여성인물」과 2003년 부산광역시여성센터(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전신)가 주최한 「부산지역의 여성인물-부산을 빛낸 여성인물들」이 있다.

부산지역 기념관 조성 및 탐방은 부산진일신여학교기념관, 박차정 의사 생가 복원, 민족과 여성(위안부) 역사관, 국립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군위안부피해할머니 위한 역사문학관건립운동이 있다. 부산진일신여학교기념관은 일신

여학교 고등과 학생들의 학업장소(부산시 지정기념물)를 역사관으로 조성하여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3·1운동에 관한 것을 보여주는 곳으로 2010년 4월에 개관하였다. 박차정 의사 생가 복원은 박차정 의사 숭모회, 동래구청, 부산시청의 노력의 결실로 생가 복원을 위해 부산시청에 생가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 2005년에 복원되었다. 민족과 여성(위안부) 역사관은 여성운동가 김문숙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회장이 1991년 일본군 강제위안부 문제 접한 후, 심각성을 깨닫고 위안부할머니를 발굴하는 한편, 1993년, 1994년에는 일본상대로 소송을 제기(시모노세키 재판)하여 일본군 강제 위안부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았던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학생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목적에서 2004년 9월 17일에 개인 사재로 개관하였다. 운영비가 없어 폐관 위기(2012)에 몰리기도 하였지만 네티즌의 힘으로 '부산 위안부 역사관'을 지켜오고 있다. 그 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하여 역사의식 고취와 인권, 세계평화 교육의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등이 있다.

<표 Ⅱ-3> 부산지역 여성문화 콘텐츠 사업 현황

구분	명칭	내용
사업 및 축제	충렬사 제향	- 임진왜란 때 순절한 영령과 의백을 모시는 것 - 위로는 부사, 군수, 첨사를 비롯하여 아래로는 충복과 애첩까지도 그 공을 기리어 제사 지냄 - 금섬, 애향 등이 여기에 포함
	송공단 제향	- 임진왜란 때 왜군과 맞서다 순절한 송상현 부사와 이름 없는 병사들에 위한 제향 - 1742년부터 시작, 일제 때부터 동래기영회가 이를 주관. 금섬 등이 제향을 받고 있음
	일신여학교 3·1 의거 재현	- 부산동구 문화원이 주관하여 매년 3·1절에 일신여학교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시행 - 장소는 동구청광장과 일신여학교기념관 - 동래여고의 전신인 일신여학교는 호주 선교단에 의해 좌천동에 설립. 여성교육의 발판이 된 학교로서 부산경남 3.1운동의 불씨를 당겼으며 이후 각 지역의 만세운동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었음
	정신대 해원 상생 대동굿	- 정신대 할머니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1993년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시작 -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진혼무 천왕맞이 굿 등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 - 초대 대회장은 요산 김정한으로 매년 8월이면 열림 - 부산에서 이러한 '군위안부'의 넋을 달래는 굿이 열리는 이유는 바로 '군위안부'들이 부산항을 통해 먼 타국으로 끌려갔기 때문임

구분	명칭	내용
조형물	박차정 의사 동상	- 박차정의 동상은 독립훈장을 받았던 1995년부터 논의됨 - 원래 금강공원에 세우기로 하였으나 2001년 동래여고 부근 광장에 세워짐 - 박차정은 국내에서는 근우회 운동을 통해 여성운동에 앞장섰고, 광주학생운동 후속으로 준비한 서울여학생운동을 주동하여 경찰에 검거. 이를 기회로 중국으로 가 의열단 활동을 하였고 민족혁명당 조선부인회를 결성하고 조선의용대의 부녀복무단장으로 활약
	부산소녀상 건립	- 부산 위안부 상징 소녀상은 2016년 3월 1차로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건립됨. 2016년 12월에야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 소녀상'으로 설치됨 - 동구청에서 철거 시도, 촛불시위 전개로 철회, 동구청이 직접 관리 약속
학술대회		- 부산지역사회의 여성인물(2001):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주최 (양한나, 노영란, 박순천 조명) - 부산지역의 여성인물-부산을 빛낸 여성인물들(2003): 부산광역시여성센터 주최(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전신)(양한나, 박순천, 박차정, 허무인, 정봉금, 최복자, 강유두, 김혜성 조명)
기념관 조성 및 탐방	부산진 일신여학교 기념관	- 일신여학교 고등과 학생들이 공부한 곳(부산시 지정기념물)을 역사관으로 조성, 2010년 4월 개관 - 당시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3·1운동에 관한 것을 알리고 있음
	박차정의사 생가 복원	- 조선의용군 박차정의사 생가 복원은 박차정 의사 숭모회, 동래구청과 부산시청의 노력의 결실 - 생가복원 위해 부산시청에 생가복원위원회 설치, 2005년에 복원됨
	민족과 여성(위안부) 역사관	- 여성운동가 김문숙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회장은 1991년 일본군 강제위안부 문제 접한 후, 심각성을 깨닫고 위안부할머니를 찾아다니는 한편, 1993년/1994년에 일본상대로 소송제기(시모노세키 재판) - 이 재판에서 일본군 강제 위안부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학생 대상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목적에서 개인 사재로, 2004년 9월 17일에 민족과 여성역사관 개관 - 민족과 여성 역사관은 운영비가 없어 폐관 위기(2012)에 몰리기도 함. 네티즌의 힘으로 '부산위안부 역사관'을 지켜옴 - 사재에 의존하여 운영 중으로, 재정적 열악과 위치 또한 수영의 사적공원 근처건물의 2층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님
	국립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함으로써 성숙된 역사의식 고취와 인권/세계평화에 대한 국민교육의 장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 - 일제강점기 때 부산항이 대부분의 강제동원 출발지였고 강제원자의 22% 가량이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역사성/접근성 감안, 2014년 10월에 개관 - 내부에는 정부에서 수집한 강제동원 수기, 사진, 박물류 등이 전시
	군위안부 피해할머니 위한 역사문학관 건립운동	- 부산의 인문학자들이 '15년 부산대 국문학과 고경철 교수 사건 관련 부산선언 후, '15년 말 한일간 위안부 협상의 문제점을 보고, '16년 2차 부산선언 후 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역사문학관 건립 운동 시작('16년 7월 건립추진위원회 창립) - 부산지역 원로들의 자문 아래 모금활동 통해 시민운동으로 전개 중임

자료: 기계형 외(2017), 『여성사 자료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여성가족부), p.237~241 재구성.

4) 타 지역 주요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사례

타 지역의 주요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는 시대적 제약 넘어 진취적으로 활약했던 근대기 대구여성들의 발자취를 탐방로로 콘텐츠화한 대구여성 탐방로 '반지길'을 운영하고 있다. 반지길이란 명칭은 국채보상운동 때 은반지, 패물을 기부했던 우리나라 최초 여성조직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 정신을 되살려 이름을 붙였으며, 탐방코스는 동산-3.1만세운동길-구제일교회-약전골목-마당깊은집-종로-진골목-연매시장-이상정고택-계산성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색복 장려 깃발, 박정희의 육아일기 등 여성의 생활용품, 역사, 정치, 문화 관련 6,600여점의 국내 여성 관련 유물 및 자료를 수집·소장하고 있다.

전남여성문화박물관(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남도의 '가고싶은 섬' 사업과 관련하여 '가고싶은 섬, 여성이야기'를 주제로 농어촌 마을에서 터를 잡고 사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12권의 도서를 출간하였다.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은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인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한다. 여성역사문화탐방 분야, 능력개발 분야 등 총 11개 분야, 168개 과정이 운영된다.

<표 Ⅱ-4> 타 지역 주요 여성역사 문화콘텐츠 사례

운영기관	콘텐츠	내용	비고
대구여성 가족재단	대구여성 탐방로 '반지길'	<탐방코스>동산-3.1만세 운동길-구제일교회-약전 골목-마당깊은집-종로-진 골목-연매시장-이상정고 택-계산성당	- 시대적 제약 넘어 진취적으로 활약했던 근대기 대구여성들의 발자취를 탐방로로 콘텐츠화 - 반지길: 탐방로 시작.끝이 만나는 반지모양 둥근길로 국채보상운동때 은반지.패물을 기부했던 우리나라 최초 여성조직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 정신을 되살려 이름 붙인 길
국립 여성사 전시관	소장품	국내 여성 관련 유물 및 자료 수집	- 여성의 생활용품, 역사, 정치, 문화 등 자료 소장 - 색복 장려 깃발, 박정희의 육아일기 등 6,600여점

운영기관	콘텐츠	내용	비고
전남여성문화박물관(전남여성가족재단)	도서	가고 싶은 섬, 여성 이야기	- 전남도의 '가고싶은 섬' 사업과 관련한 농어촌 마을에서 터를 잡고 사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담은 도서 출간 - 완도군 여서도 등 12건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교육, 문화 등 복합문화공간	-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운영 - 전시관, 공연장, 보육실, 자료실 등으로 구성 -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 여성역사문화탐방 분야, 능력개발 분야 등 총 11개 분야, 168개 과정 운영 - 여성역사문화해설사 양성/운영: 17명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자료 참조(2020.1.13., 3.6~3.9 검색)

2. 국외 여성역사문화 전시관 현황

세계적으로 여성박물관 건립은 확대 추세이며 국제여성박물관협회 등록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 기준, 75개의 여성박물관이 있다. 국제여성박물관 네트워크는 2008년에 이탈리아 메라노에서 첫 국제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현재의 국제여성박물관협회(IAWM: internatioal Association of Women's Museums)로 되면서 이탈리아 메란 도시에 사무국을 두고 6개 대륙을 순회하며 주기적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박물관을 통한 인권 증진, 여성박물관을 통한 정치, 사회, 문화적 작업과 활동을 장려하는 활동을 전개 중이다. 협회의 목표는 성인지 관점에서 문화·예술 교육 및 훈련 장려, 세계 여성박물관 간의 교류·네트워킹·상호지원·글로벌 협력증진, 프로젝트·전시회·커뮤니티 활동·세미나·콘퍼런스의 연구 및 개발 수행, 전 세계 여성박물관 수용의 장려 및 강화 등이다.

해외 여성박물관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 여성역사의 기록·보존을 토대로 상시전시뿐만 아니라 현대 여성예술가들의 작품을 정기적으로 전시하는 등 현재의 여성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박물관은 76개가 있으며, 대륙별로는 북아메리카 25개, 유럽 25개, 아시

아 13개 순으로, 개별국가로는 미국 22개, 독일 6개, 이탈리아 4개, 호주 3개 순으로 많으며, 한국, 중국, 베트남,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등에 2개의 여성박물관이 있다(국제여성박물관협회, 2019년 10월 기준).

<표 Ⅱ-5> 세계의 여성박물관 현황

대륙	규모	국가
아프리카	6	부르키나파소2, 모로코. 세네갈, 남아프리카, 수단
아시아	13	중국2, 인도,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작스탄, 한국2, 타이완,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2
오세아니아	3	호주3
유럽	25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6, 아이슬랜드, 이탈리아4, 네덜란드2,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페인2, 스웨덴2,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2
북아메리카	25	캐나다2, 멕시코, 미국22
남아메리카	4	아르헨티나2, 칠레, 콜롬비아

자료 : 국제여성박물관협회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https://iawm.international/(2020.1.13. 검색)

유럽 지역의 많은 여성박물관들은 상설전에 국가별 강조하는 이슈별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화예술계 여성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으로 출발한 경우가 많다. 예로 1981년 유럽 최초의 여성박물관 '독일 본 여성박물관'은 여성에 의해 설립되어 여성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특히 예술 종사 여성을 위한 박물관으로 출발했다. 여성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박물관 내에 미술디자인 전람회와 갤러리 그리고 출판사를 소유하고 있다(2017 세계여성(사)박물관 편람, 30쪽).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여성박물관 상설전에서는 우리에게 패션의 나라로 익히 알려진 것과 같이 여성의 패션과 일상생활의 사물을 전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히티스아우 여성박물관에서는 지역문화와 국제적 관점을 결합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관련 문제를 전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젠더박물관은 여성과 성 관련 박물관을 표방하면서 다양한 성차별 문제를 다루는 전시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6>과 같다.

<표 Ⅱ-6> 유럽 여성역사문화 주요 전시관 현황

전시관	운영 주체	설립 연도	내용	특징
독일 본 여성박물관	개인	1981	여성예술가들의 관심을 주제로 세미나, 워크숍, 자문서비스프로그램 운영. 한편 박물관 안에 미술디자인 전람회와 갤러리를 소유하고, 자체적으로 출판사를 갖고 있음. 여성 미술 외에 여성 운동과 여성정책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새로운 미학적 개념을 다루는 세미나와 워크샵 개최. Neujahrs-Andacht, Vortrag, Gertrudisprozession 등의 행사가 열림	유럽의 최초 여성박물관. 여성에 의해 설립돼 여성의 가치를 알리며 특히 예술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박물관으로 출발. 1994년부터 3년마다 위대한 여성예술가 대상 '가브리엘 뮌터상'을 조직해 여성예술가 발굴 및 지원
이탈리아 밀라노 여성박물관		1988	상설전으로는 패션이 사회의 거울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여성의 패션과 일상생활의 사물을 전시, 특별전으로는 2015년 4월 12일부터 2016년 3월 9일까지 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노화에 대한 담론을 주제로 특별 전시함	2008년 국제여성박물관대회가 최초로 열린 장소로, 이후 2012년에 국제여성박물관협회가 결성됨
오스트리아 히티스아우 여성박물관		2000	연간 2-3개의 전시회가 개최되며, 사회, 문화, 역사, 예술, 건축 분야에서 활동한 여성들의 관련 문제를 전시하며 지역 문화와 국제적인 관점을 포함함. 성인, 어린이로 구분하여 전시 가이드 투어 등과 같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우크라이나 젠더박물관	카리프 지역젠더 자료센터	2015	여성과 성 역사박물관으로 여성의 역사를 비롯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정책사업과 군대에 있어서의 여성 등 다양한 성 차별 문제를 제시하는 전시를 진행	

자료: 2017 세계여성(사)박물관 편람, 26~46쪽 재구성.

그 외에도 독일의 ida(알리고, 기록하고, 저장하는 조직, 정보, 기록, 아카이브화) 조직은 2012년부터 메타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 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한 결과, 모든 하부기관의 자료를 아우르는 최초의 카탈로그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5년부터는 보유한 아카이브를 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는 새로운 온라인 포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18년 베를린에 「디지털 독일 여성 아카이브(Das Digitale Deutsche Frauenarchiv)」 전문포털을 구축하여 독일어권 여성운동 관련한 전문자료를 축적,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북아메리카 지역의 여성박물관들은 여성의 선거권, 남북전쟁, 흑인여성 등 인종 문제, 인디언여성, 카우걸(Cow girl) 등 종족 문제 등 저항의 역사 내용을 특징으로 출발한 박물관이 많다. 1900년에는 최초의 모바일 여성박물관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소녀박물관이 있기도 하다. 미국 여성박물관의 특징 중 하나는 국립 여성박물관이 곳곳에 건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 여성박물관은 시민 주도로 설립되어 일상성과 일상용품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박물관이 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는 한편, 박물관 관계자와 지역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정에 국한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는 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표 Ⅱ-7> 북아메리카 여성역사문화 주요 전시관 현황

전시관	운영 주체	설립 연도	내용	특징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	비영리 민간 기관	1969	미국 여성의 업적 기념 위한 국립기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여성들에 대한 삶의 기록들이나 전시품들을 전시. 명예의 전당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보관, 수집하여 이를 전시하는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 작품 전시 목적이 아닌 여성리더들을 모아 여성의 권리와 리더십 부각이 기본목표임	미국 여성운동 발상지 세니커폴스에서 주민들에 의해 건립된 가장 오래된 여성박물관. 정부기금 및 기업 후원으로 운영
국립카우걸 박물관 (명예의전당)	-	1975	카우걸의 용기/개척 정신 기념박물관으로 상설전에는 카우걸극장의 Lifetiles벽화, 어린이 디스커버리 목장, 대형 회전전시 갤러리 진행. 최근 특별기획전으로 <카우걸 캠프>, <카우걸 명예의 전당> 있음. 박물관투어와 카우걸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 화상회의 등 교육프로그램 진행. 서부의 특별한 여성들을 선정, 다른 여성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에 대한 기록을 수집, 명예의 전당에 수상자로 임명하는 프로젝트 추진	
여성저항 박물관	MoWre	2014	상설전에서는 인종평등운동에서 활약한 흑인 여성들의 모습과 삶, 저항의 역사를 전시. 2016년 3월 30일까지 미국의 흑인여성 경찰 주제의 특별기획전 진행. 최근에는 미국의 흑인 관련 정책의 역사와 여성역사를 다룬 전시회 개최	일정금액 회원가입 시 세계 어린이/소외계층 대상 기부금 이용. 무료입장, 개인전시회, 시사회참여 혜택 등

전시관	운영 주체	설립 연도	내용	특징
소녀박물관	-	2009	우리의 이야기, 발견, 탐구, 선구자 등의 주제로 소녀들의 이야기를 구성, 전시하고 있음. 소녀 독서클럽, 소녀 퀴즈, 그 밖의 교육 활동을 통한 여성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중점적으로 추진	
캐나다 여성박물관	-	1887	캐나다 최초 여성박물관. 여성의 일상인 부엌과 집안을 보여주되 사적 및 공적 공간 사이의 '제3의 공간'에 존재하는 여성 표현. 편안한 박물관이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열린 박물관 컨셉. 상설전은 역사에 기여한 다양한 물품과 지역민의 교류활성화 위한 작품 전시. 'Le Musée chez vous!' 프로그램 통해 가정에 국한된 여성 역할을 증진시키는 이야기를 DB화하는 작업 진행 중	

자료: 2017 세계여성(사)박물관 편람, 54~78쪽 재구성.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여성박물관들은 교육 및 계몽의 기능을 가지고 출발한 경우가 많았다. 여성박물관들은 문화예술계 여성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으로 출발한 경우가 많았다.

<표 Ⅱ-8> 아프리카 여성역사문화 주요 전시관 현황

전시관	운영 주체	설립 연도	내용	특징
부르키나파소 여성박물관		2010	부르키나파소의 전통과 문화와 더불어 여성들과 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한 전시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익을 위한 교육을 진행, 구체적으로는 아동권리, 이른 결혼에 대한 문제점, 어린이와 청소년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수단 여성박물관	여성을 위한 여성 조직	1989	수단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삶에 대한 문서와 여성의 유산, 수단 여성 운동개척자의 전기 등을 전시. 아프리카의 수단지역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위한 문서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주체인 Ahfad Women for Women의 지휘 아래 많은 연구작업이 이루어져 연구물들을 박물관에서 보관, 수집, 전시	

자료: 2017 세계여성(사)박물관 편람, 48~51쪽 재구성.

아시아 지역의 많은 여성박물관들은 상설전에 국가별 강조하는 이슈별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여성박물관은 정부 차원이 아닌 베트남여성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콘텐츠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은 시안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여성문화박물관에 여성 관련 풍부한 유물을 가지고 다채로운 전시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쟁과 평화를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보여주는 특별전에 비중을 두는 편이다.

<표 Ⅱ-9> 아시아 여성역사문화 주요 전시관 현황

전시관	운영 주체	설립 연도	전시내용	특징
베트남여성 박물관	베트남 여성 연합	1987	탄탄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상설전시와 변화하는 베트남여성의 현재 모습을 반영한 특별전시 구성. 작은 일거리, 경작, 어업/수렵 활동, 음식 준비하기, 도자기, 바느질과 옷감짜기 그리고 아이키우는 도구 등 전시. 상설전에서는 가정 내 여성, 역사 속 여성, 여성 패션 이라는 3가지 테마의 전시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베트남 여성 연합의 유/무형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과 여성 문화재 소개, 특별전에서는 Dalat Hasfarm Company의 협력으로 <Flower and Life>라는 특별 전시가 개최되기도 함	이념 과잉, 작위적 계몽성이 없다는 게 강점. 남/북베트남이 동시에 재현, 특히 1930~ 1945년, 1954~1975년에 어떻게 여성들이 국가 동원에 대응했는지 드러남
시안 여성문화 박물관	shanxxi 대학교	1992	여성 포함한 중국의 유일한 종합박물관. 중국여성에 대한 1,200점 이상의 유물 보유. 5개 테마전시로 구분. 여성의 역사 조명 위한 여성의 일상, 여성의 문자, 생식문화, 여성 공예품, 웨딩드레스를 전시	여성, 역사, 사회, 민족, 민속, 문화인류, 예술 연구의 진열과 중요한 자료 역할
여성과 아동을 위한 중국박물관	중국 정부	2010	상설전은 크게 여성관과 아동관으로 구분. 여성관은 고대 중국 여성관, 근대 중국 여성관, 현대 중국 여성관, 국제 협약관, 여성예술관, 여성의복관으로 구성. 아동관은 고대 중국 아동관, 근대 중국 아동관, 현대 중국 아동관, 아동 완구 전시관, 어린이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 관련 박물관에 아동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
전쟁과 평화 여성활동 박물관		2005	박물관 명칭과 같이 전쟁과 평화에 있어서의 여성 활동을 주제로 한 박물관임. 특별전시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으로 '17년에 14번째 특별전은 'Battlefield from Hell - Japanese Comfort Stations in Burma Tracing the Footsteps of MUN Ok-ju'로 위안부에 대한 기본이해와 미얀마의 위안부에 대해 전시.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인 움직임에 연결시켜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료: 2017 세계여성(사)박물관 편람, 10~11쪽, 14쪽, 18쪽 재구성.

3. 시사점

국내 여성전시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설전시에서 시대별, 주제별로 나누어서 전시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이는 전국의 여성전시관 건립은 초기 단계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전시를 위해 아카이브 구축과 더불어 여성 역사를 문화콘텐츠를 통해 사업화함으로써 전시공간 안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공간으로 파고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 국내 주요 여성박물관 및 전시관 특성 분석

유형	내용	특성	비고
기본형	- 상설 전시 - 기획, 특별, 순회 전시 - 행사 등	- 상설 : 시대별 전시 - 기획 : 주제별 전시	- 국립여성사 전시관 - 전남여성문화박물관 - 광주여성전시관
특화형	- 일본군위안부 역사 집중 조명 - 지역여성의 삶과 문화 집중 부각 - 여성친화적 여성작가 전시 지원	- 이슈 부각 - 지역성 부각 - 창작활동 지원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 광주여성전시관 - 제주여성역사문화 전시관 -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봄
문화콘텐츠 사업형	- 탐방프로그램 중심 - 여성역사문화 연구결과물 보유 - 여성인물 조명 등	- 전시관 준비 중 - 여성사연구 수행 - 관광 상품화 등	- 대구여성가족재단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충북여성재단 등

국외 여성전시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륙별 고유의 색깔이 두드러지는 편이다. 유럽은 문화 예술 분야에 비중을 둔 전시관이 많은 편이며, 북아메리카 대륙은 인종, 저항 등을 소재로 한 전시관이 많아 다민족 국가의 특성을 드러내며, 아프리카 대륙은 교육과 계몽의 기능을 지닌 전시관이 눈에 띈다. 아시아의 경우, 여성의 현재 생활에 비중을 둔 박물관에서부터 전쟁의 역사 속에서 군위안부 문제까지 다루는 다양한 접근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마다 여성의 경험과 현재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차이는 있지만 여성이 역사 속에 존재하며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조사분석

1. 전문가의견조사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부산시가 장기적으로 설치 구상 중인 여성사 전시관(가칭)의 준비를 위해,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를 개발하여 성평등 정책의 기초자료 및 여성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사, 문화, 전시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 조사대상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부산 및 전국의 역사, 문화, 전시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여성사 박물관 및 전시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모집단 프레임에 수록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 접촉하여 조사 승낙자를 편의 표집하였다. 최종 표본수는 55명이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 응답자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조사대상 응답자 현황

구 분		빈도	비율(%)
성 별	여성	38	69.1
	남성	17	30.9
연령대	20대	0	0.0
	30대	4	7.3
	40대	14	25.5
	50대	29	52.7
	60대 이상	8	14.5
거주지역	부산지역	37	67.3
	그 외 지역	18	32.7
소 속	학계(대학, 연구소 등)	33	60.0
	박물관/전시관 등	6	10.9
	문화예술 기관/단체	5	9.1
	문화/예술가 등(소속없음)	1	1.8
	여성정책 전문기관	4	7.3
	기타	6	10.9
합계		55	100.0

주. 거주지역의 경우, 조사설계 단계에서 부산지역과 그 외 지역 조사대상 전문가 비율을 각 70%와 30% 내외로 설정하여 부산 외 지역의 전문가 의견을 일정 비율 반영하고자 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일대일 면접 및 이메일과 팩스를 이용한 복합조사이고, 분석 방법은 1차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후 2차로 선정된 성, 연령, 거주지역, 소속유형 등 4개 독립변수별로 t-test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특성 문항을 제외한 총 문항 수는 47개이며, 설문영역 및 세부항목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설문영역 및 설문항목

설문영역	설문항목	문항
부산여성역사 문화전시관 (가칭) 구성	- 전시관 전체 구성(안)에 대한 중요도 : 상설 전시, 기획 전시, 미래 세대 전시, 복합문화 창출, 자료보존 관리 - 전시콘텐츠 추가 제안	6
세부전시 공간별 콘텐츠 발굴 및 구성	- 상설전시 콘텐츠에 대한 적절성 : 부산여성의 시대적 삶과 활동의 주요변천사, 여성과 민족운동, 여성과 전쟁. 여성과 항구(바다), 여성과 노동, 여성과 교육, 여성과 문화, 여성과 (민주화)운동, 활동영역별 개별인물 조명 - 기획 전시 콘텐츠에 대한 적절성 : 주제별 기획전시, 양성평등문화 확산 위한 전시, 여성주의 작가/예술가 전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이미지 부각 전시, 재조명 역사인물 기획 전시 - 미래 세대 전시 콘텐츠에 대한 적절성 : 교육공간, 기록코너, 여성인물지도 만들기 체험, 부산여성 역사문화 홍보물 만들기 체험, 탐방프로그램 만들기 체험 - 복합문화 창출 콘텐츠에 대한 적절성 : 무명 예술가/활동가 작품 전시, 다양한 영역의 활동 주인공 소개, 문화창출의 오픈스페이스 운영, 소통 한마당 - 콘텐츠 추가 제안	27
전시방법(안)	- 전시방법에 대한 적절성 : 역사적 사건/인물 스토리텔링, 역사 문헌/유물, 작품 등 자료 전시, 역사적 사건/상황 담은 사진/신문기사 전시, VR(가상현실) 체험/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전시, 당시 상황 재현한 미니어쳐 제작/전시, 예술가들의 캐리커쳐 제작 통한 역사 재현/전시 - 전시방법 추가	7
부산여성사 전시관 기능, 명칭, 역사문화 정책	- 부산여성사 전시관의 우선 기능 - 부산여성사 전시관 명칭 - 부산시 여성역사문화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수준(타 지역 비교) - 여성역사문화 육성 및 활성화 위한 방안 -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위한 우선순위 -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단기 콘텐츠 - 타 시도/해외의 적용 가능 사례 및 건의사항	7

2. 전문가의견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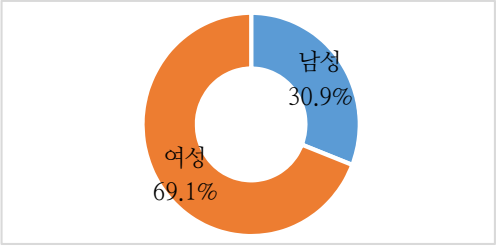
1) 응답자 특성

(1) 성별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30.9%, 여성 69.1%로 나타났다.

<표 Ⅲ-3> 성별

항목	빈도	%
남성	17	30.9
여성	38	69.1
합계	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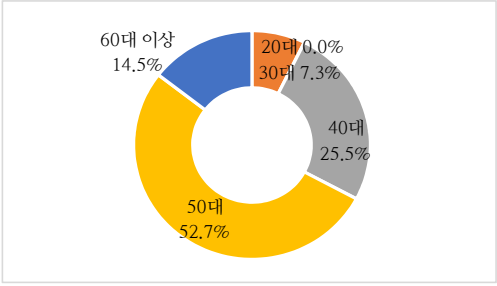
<그림 Ⅲ-1> 성별

(2) 연령대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 7.3%, 40대 25.5%, 50대 52.7%, 60대 이상 14.5%로 나타났다.

<표 Ⅲ-4> 연령대

항목	빈도	%
20대	0	0.0
30대	4	7.3
40대	14	25.5
50대	29	52.7
60대 이상	8	14.5
합계	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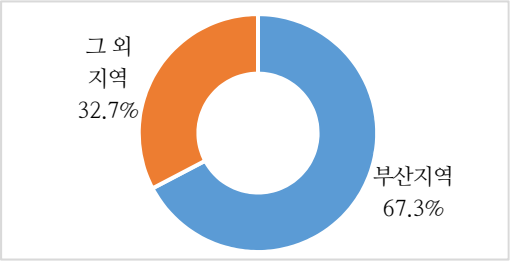
<그림 Ⅲ-2> 연령대

(3) 거주지역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부산지역 67.3%, 그 외 지역 32.7%로 나타났다.

<표 Ⅲ-5> 거주지역

항목	빈도	%
부산지역	37	67.3
그 외 지역	18	32.7
합계	55	100.0



<그림 Ⅲ-3>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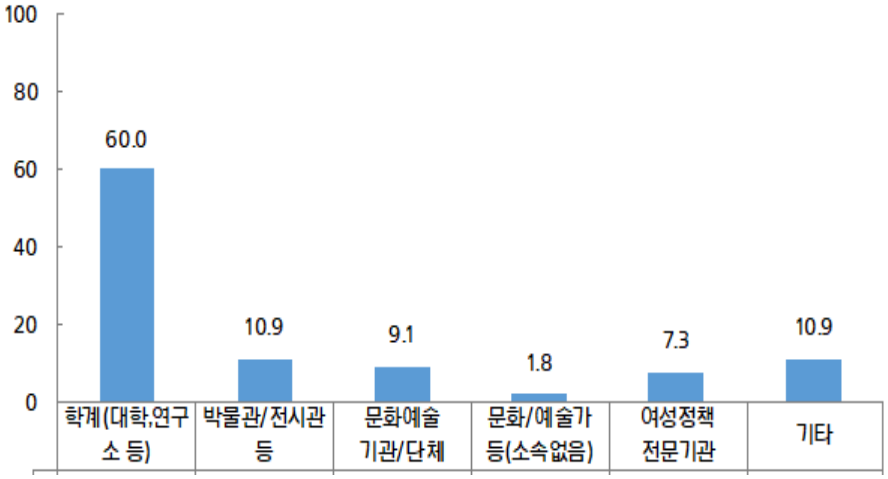
(4) 소속

응답자의 소속은 학계(대학, 연구소 등) 60.0%, 박물관/전시관 등 10.9%, 문화예술 기관/단체 9.1%, 문화/예술가 등(소속없음) 1.8%, 여성정책 전문기관 7.3%, 기타 10.9%로 나타났다.

<표 Ⅲ-6> 소속

항목	빈도	%
학계(대학, 연구소 등)	33	60.0
박물관/전시관 등	6	10.9
문화예술 기관/단체	5	9.1
문화/예술가 등(소속없음)	1	1.8
여성정책 전문기관	4	7.3
기타	6	10.9
합계	55	100.0

(단위 : %)



<그림 Ⅲ-4> 소속

2)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관(가칭) 구성에 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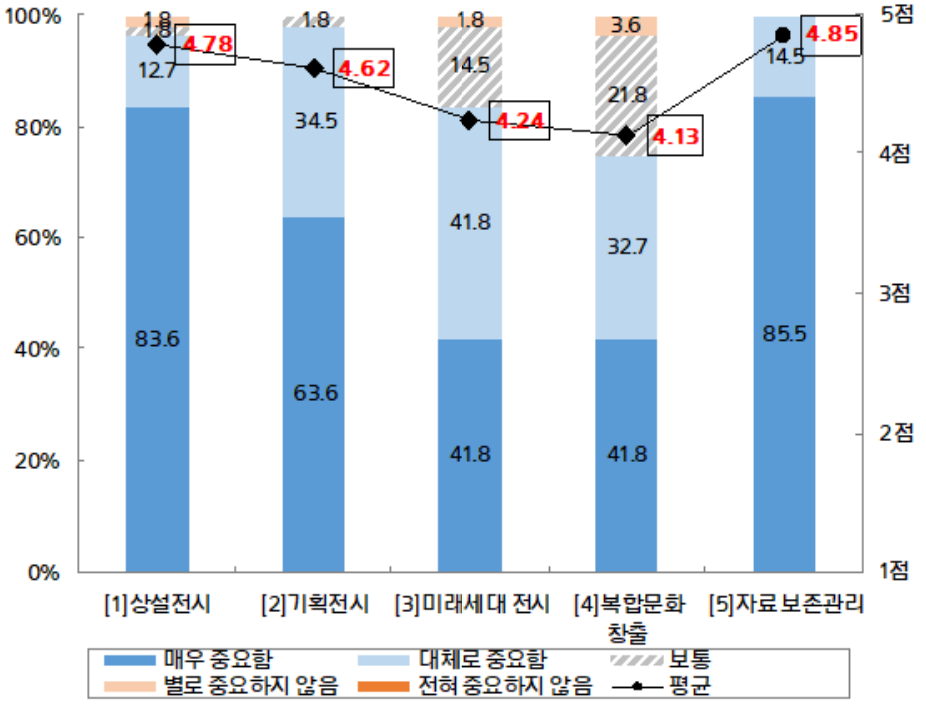
(1) 전시관 구성 중요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 전시관 구성 중요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상설전시_기억의 공간]은 5점 기준에서 평균 4.78점으로, 96.4%(대체로 중요 12.7%+매우 중요 83.6%)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전시_역동의 공간]은 평균 4.62점으로, 98.2%가 중요한 것은 나타났다. [미래 세대 전시_도약의 공간]은 평균 4.24점으로, 83.6%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문화 창출_W-culture 공간]은 평균 4.13점으로, 74.5%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존관리_아카이브 공간]은 4.85점으로, 100.0%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전시관 구성 중요도

항목		5점 평균	5점 척도					<3분류>			합계
			매우 중요함	대체로 중요함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1) [상설 전시] : 기억의 공간	(빈도)	4.78	(46)	(7)	(1)	(1)		(53)	(1)	(1)	(55)
	%		83.6	12.7	1.8	1.8		96.4	1.8	1.8	100.0
(2) [기획 전시] : 역동의 공간	(빈도)	4.62	(35)	(19)	(1)			(54)	(1)		(55)
	%		63.6	34.5	1.8			98.2	1.8		100.0
(3) [미래 세대 전시] : 도약의 공간	(빈도)	4.24	(23)	(23)	(8)	(1)		(46)	(8)	(1)	(55)
	%		41.8	41.8	14.5	1.8		83.6	14.5	1.8	100.0
(4) [복합문화 창출] : W-culture 공간	(빈도)	4.13	(23)	(18)	(12)	(2)		(41)	(12)	(2)	(55)
	%		41.8	32.7	21.8	3.6		74.5	21.8	3.6	100.0
(5) [자료 보존관리] : 아카이브 공간	(빈도)	4.85	(47)	(8)				(55)			(55)
	%		85.5	14.5				100.0			100.0



<그림 Ⅲ-5> 전시관 구성 중요도

(1_1) 제안하고 싶은 추가 전시관

제안하고 싶은 추가 전시관은 <표 Ⅲ-8>과 같다.

<표 Ⅲ-8> 제안하고 싶은 추가 전시관

[전시관] 세부전시 공간 추가	
공존의 공간	여성 연대활동 콘텐츠
교육 공간	여성이 바꾼 역사
체험의 공간	디지털 체험관
시민 공간	지혜, 슬기, 그리고 미덕
미래 세대 전시, 복합문화 창출을 함께 추진	이주여성(다문화)에 대한 내용
라키비움 등 시민편의시설	온라인전시관(VR)
특별전시: 전쟁과 여성	여성의 장소, 그리고 삶
어머니, 엄마의 이름으로	지금 부산 여성은(혹은 시대별 부산 여성은)
참여형 전시: 여성의 생활사	근대와 현대의 경계에 있었던 부산 여성
부산 여성생활문화사(전근대, 근대 등)	부산지역의 여성 장인들
부산지역 여성신화 주인공	부산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유물 전시 필요
다크투어 대상지 자료 활용	

3) 세부전시 공간별 콘텐츠 발굴 및 구성에 관한 질문

(1) [상설 전시_기억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 [상설 전시_기억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부산여성의 시대적 삶과 활동의 주요변천사]는 5점 기준에서 평균 4.42점으로, 85.5%(대체로 적절 23.6%+매우 적절 61.8%)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민족운동]은 평균 4.31점으로, 85.5%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전쟁]은 평균 4.25점으로, 89.1%가 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항구(바다)]는 4.51점으로, 94.5%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노동]은 4.65점으로, 96.4%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교육]은 4.38점으로, 89.1%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문화]는 4.25점으로, 87.3%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민주화)운동]은 4.36점으로, 90.9%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별 개별인물 조명]은 3.87점으로, 63.6%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 [상설 전시_기억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항목		5점 평균	5점 척도					<3분류>			합계
			매우 적절함	대체로 적절함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	보통	부 적절	
(1) 부산여성의 시대적 삶과 활동의 주요변천사	(빈도)	4.42	(34)	(13)	(5)	(3)		(47)	(5)	(3)	(55)
	%		61.8	23.6	9.1	5.5		85.5	9.1	5.5	100.0
(2) 여성과 민족운동	(빈도)	4.31	(26)	(21)	(7)	(1)		(47)	(7)	(1)	(55)
	%		47.3	38.2	12.7	1.8		85.5	12.7	1.8	100.0
(3) 여성과 전쟁	(빈도)	4.25	(23)	(26)	(4)	(1)	(1)	(49)	(4)	(2)	(55)
	%		41.8	47.3	7.3	1.8	1.8	89.1	7.3	3.6	100.0
(4) 여성과 항구(바다)	(빈도)	4.51	(32)	(20)	(2)	(1)		(52)	(2)	(1)	(55)
	%		58.2	36.4	3.6	1.8		94.5	3.6	1.8	100.0
(5) 여성과 노동	(빈도)	4.65	(38)	(15)	(2)			(53)	(2)		(55)
	%		69.1	27.3	3.6			96.4	3.6		100.0
(6) 여성과 교육	(빈도)	4.38	(27)	(22)	(6)			(49)	(6)		(55)
	%		49.1	40.0	10.9			89.1	10.9		100.0
(7) 여성과 문화	(빈도)	4.25	(22)	(26)	(6)	(1)		(48)	(6)	(1)	(55)
	%		40.0	47.3	10.9	1.8		87.3	10.9	1.8	100.0
(8) 여성과 (민주화)운동 등	(빈도)	4.36	(28)	(22)	(3)	(1)	(1)	(50)	(3)	(2)	(55)
	%		50.9	40.0	5.5	1.8	1.8	90.9	5.5	3.6	100.0
(9) 활동영역별 개별인물 조명	(빈도)	3.87	(14)	(21)	(19)	(1)		(35)	(19)	(1)	(55)
	%		25.5	38.2	34.5	1.8		63.6	34.5	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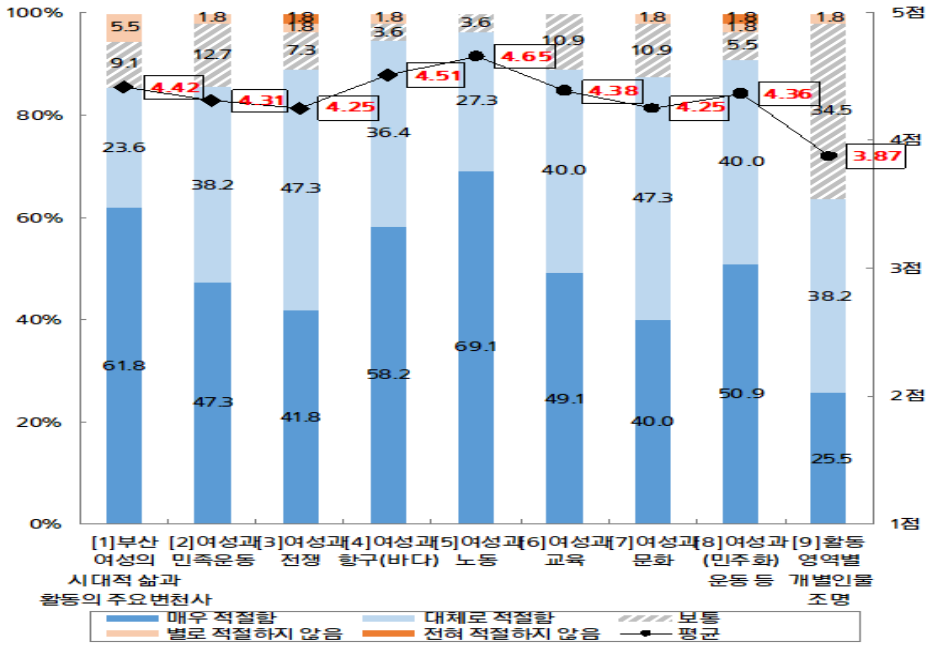


그림 6 <그림 Ⅲ-6> [상설 전시_기억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1_1) [상설 전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

[상설 전시]에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는 <표 Ⅲ-10>과 같다.

<표 Ⅲ-10> [상설 전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

[상설전시] 전시콘텐츠 추가(동일의견 건수)	
부산지역에 특화된 여성 활동가	성별 고정관념(직업 등 분야에서)을 깬 부산 여성
여성운동사(2)	여성과 생활문화(2)
여성과 민족운동	부산 여성지도
여성과 전쟁	전문가 협업 제안
여성과 항구	여성과 가족
여성과 노동(2)	유물전시
활동영역별 개별인물 조명의 콘텐츠 제안	이주여성(다문화여성)에 대한 내용
소수자의 역사	여성과 산업
식민지와 여성	여성 차별의 역사
장소와 여성	테마존(예시)
부산 여성의 삶	여성과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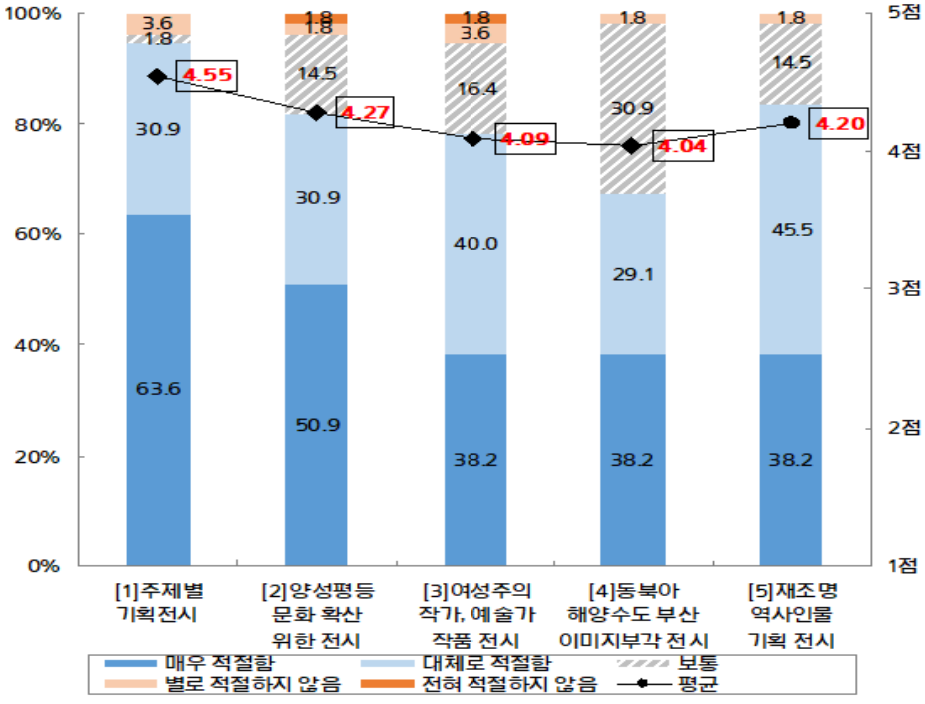
(2) [기획 전시_역동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 [기획 전시_역동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주제별 기획전시]는 5점 기준에서 평균 4.55점으로, 94.5%(대체로 적절 30.9%+매우 적절 63.6%)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성평등문화 확산 위한 전시]는 평균 4.27점으로, 81.8%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주의 작가, 예술가 작품 전시]는 평균 4.09점으로, 78.2%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이미지 부각 전시]는 평균 4.04점으로, 67.3%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명 역사인물 기획전시]는 평균 4.20점으로, 83.6%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기획 전시_역동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항목		5점 평균	5점 척도					<3분류>			합계
			매우 적절함	대체로 적절함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	보통	부 적절	
(1) 주제별 기획 전시	(빈도)	4.55	(35)	(17)	(1)	(2)		(52)	(1)	(2)	(55)
	%		63.6	30.9	1.8	3.6		94.5	1.8	3.6	100.0
(2) 양성평등문화 확산 위한 전시	(빈도)	4.27	(28)	(17)	(8)	(1)	(1)	(45)	(8)	(2)	(55)
	%		50.9	30.9	14.5	1.8	1.8	81.8	14.5	3.6	100.0
(3) 여성주의 작가, 예술가 작품 전시	(빈도)	4.09	(21)	(22)	(9)	(2)	(1)	(43)	(9)	(3)	(55)
	%		38.2	40.0	16.4	3.6	1.8	78.2	16.4	5.5	100.0
(4) 동북아해양수도 부산 이미지 부각 전시	(빈도)	4.04	(21)	(16)	(17)	(1)		(37)	(17)	(1)	(55)
	%		38.2	29.1	30.9	1.8		67.3	30.9	1.8	100.0
(5) 재조명 역사인물 기획 전시	(빈도)	4.20	(21)	(25)	(8)	(1)		(46)	(8)	(1)	(55)
	%		38.2	45.5	14.5	1.8		83.6	14.5	1.8	100.0



<그림 Ⅲ-7> [기획 전시_역동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2_1) [기획 전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

[기획 전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는 <표 Ⅲ-12>와 같다.

<표 Ⅲ-12> [기획 전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

[기획전시] 전시콘텐츠 추가	
부산의 과학, 경영 등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활동	민족과 여성역사관 등 지역내 여성관련 콘텐츠연계 전시
집결지 등 성인권 관련 분야	아시아 여성 인권
재조명 역사 인물 기획 전시	기획 전시공간의 운영방안
다른 삶, 다른 목소리	재판의 기억
세계 여성의 날과 부산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여성기관 발전사
부산의 미래(물류허브도시, MICE산업도시)와 부산 여성의 전망	민간 중심의 여성운동사 또는 여성활동사
시기별 기획 의도에 맞게 구성	여성의 그늘, 사회가 만든 폭력
타 지역/타 국가의 여성사 콘텐츠	아카이브 전시
평범한 부산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는 부분	지구 속의 여성
현재 활동하는 여성 조명	주제별 기획 전시 강화(매년 메인 전시 1회 기획)
세계와 여성	여성과 과학기술
해양도시의 이미지와 연관시킬 콘텐츠	여성 풍자의 역사 전시
복식 변천사	국내외 타 도시 여성의 역사 전시
여성주의 작가, 예술가 작품 전시	주제별 기획전시에 6.10항쟁시기의 부산여성 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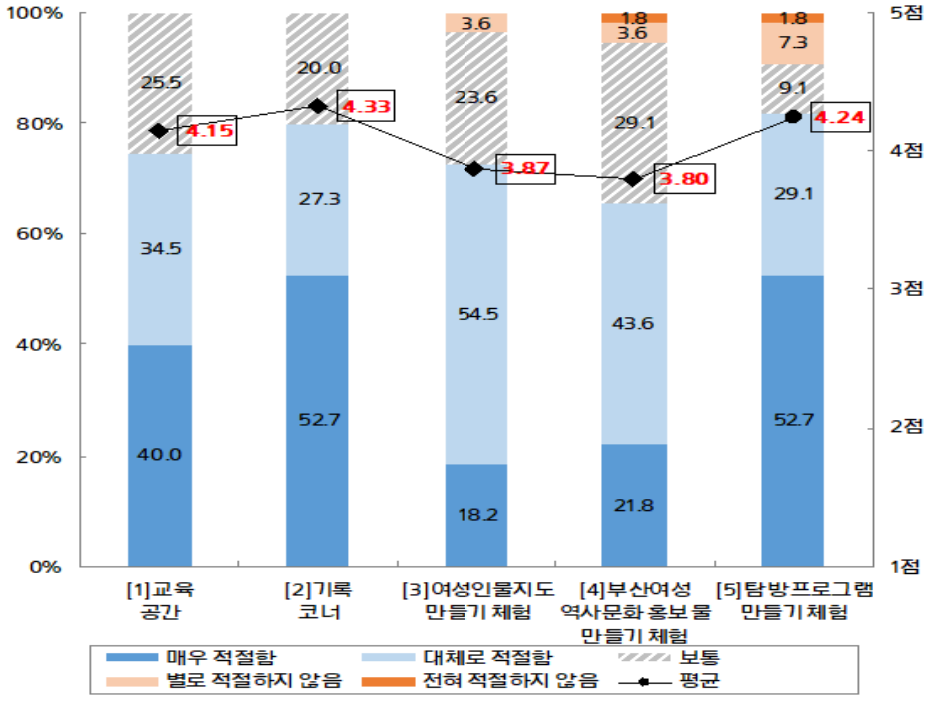
(3) [미래 세대 전시_도약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 [미래 세대 전시_도약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교육공간]은 5점 기준에서 평균 4.15점으로, 74.5%(대체로 적절 34.5%+매우 적절 40.0%)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록코너]는 평균 4.33점으로, 80.0%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물지도 만들기 체험]은 평균 3.87점으로, 72.7%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여성 역사문화 홍보물 만들기 체험]은 평균 3.80점으로, 65.5%가 적절한 것으로, [탐방프로그램 만들기 체험]은 평균 4.24점으로, 81.8%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미래 세대 전시_도약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항목		5점 평균	5점 척도					<3분류>			합계
			매우 적절함	대체로 적절함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	보통	부적절	
(1) 교육공간	(빈도) %	4.15	(22) 40.0	(19) 34.5	(14) 25.5			(41) 74.5	(14) 25.5		(55) 100.0
(2) 기록코너	(빈도) %	4.33	(29) 52.7	(15) 27.3	(11) 20.0			(44) 80.0	(11) 20.0		(55) 100.0
(3) 여성인물지도 만들기 체험	(빈도) %	3.87	(10) 18.2	(30) 54.5	(13) 23.6	(2) 3.6		(40) 72.7	(13) 23.6	(2) 3.6	(55) 100.0
(4) 부산여성역사문화 홍보물 만들기 체험	(빈도) %	3.80	(12) 21.8	(24) 43.6	(16) 29.1	(2) 3.6	(1) 1.8	(36) 65.5	(16) 29.1	(3) 5.5	(55) 100.0
(5) 탐방프로그램 만들기 체험	(빈도) %	4.24	(29) 52.7	(16) 29.1	(5) 9.1	(4) 7.3	(1) 1.8	(45) 81.8	(5) 9.1	(5) 9.1	(55) 100.0



<그림 Ⅲ-8> [미래 세대 전시_도약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

(3_1) [미래 세대 전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

[미래 세대 전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는 <표 Ⅲ-14>와 같다.

<표 Ⅲ-14> [미래 세대 전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

[미래 세대 전시] 전시콘텐츠 추가	
꿈을 준비하는 각 분야 청소년	아시아 여성(성평등)
여성적 문화를 살아가는 중장년	할머니의 이름으로
뉴 에이징을 준비하는 장년	의제 만들기 또는 나의 주장
기록코너	여성사 자료 전시
탐방프로그램만들기 체험 콘텐츠에 대한 제안	관계망(SNS) 등 활용
내가 만드는 성평등한 도시	만나러 갑니다 '구술 프로젝트'
미래 직업군 소개	여성사 전시 아카데미
내가 쓰는 여성 이바구(이야기)	'나, 너, 우리' 프로젝트(양성평등)
여성인물 이바구 길, 지도 만들기	청소년 성평등 아카데미 운영
여성 인물의 (그림)일기 쓰기	부산 여성의 여가문화
세대/가족/남성과 함께하는 교육	성인지 체험
체험의 공간	워크숍 개발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전시/체험	과거역사속에 들어가보기/미래의 나를 만들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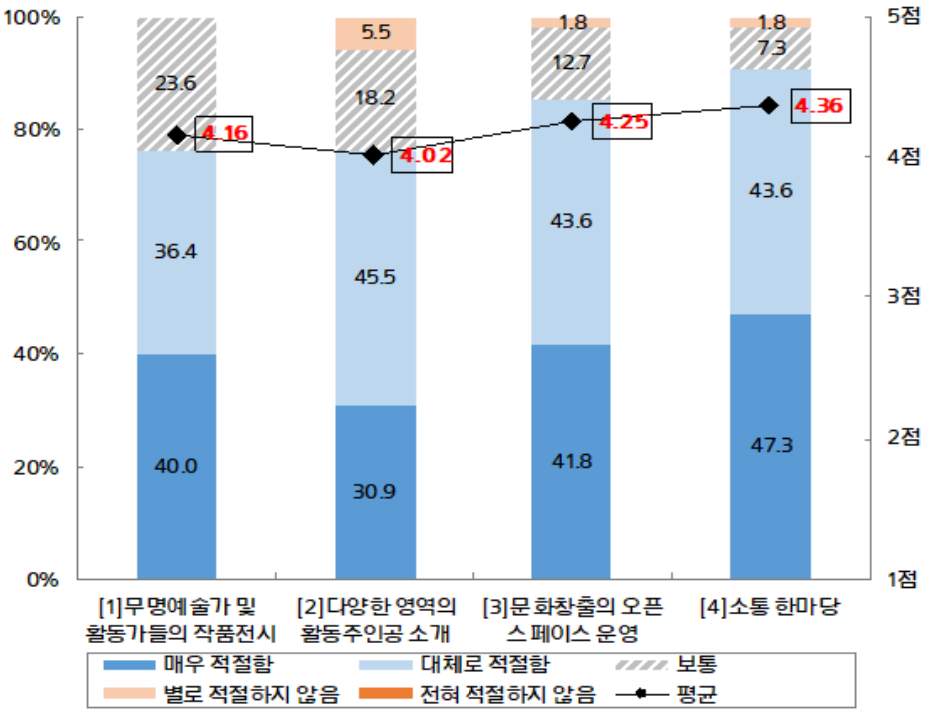
(4) [복합문화 창출_W-culture 공간] 콘텐츠 적절도

○ [복합문화 창출_W-culture 공간] 콘텐츠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무명 예술가 및 활동가들의 작품 전시]는 5점 기준에서 평균 4.16점으로, 76.4%(대체로 적절 36.4%+매우 적절 40.4%)가 적절한 것으로, [다양한 영역의 활동 주인공 소개]는 평균 4.02점으로, 76.4%가 적절한 것으로, [문화창출의 오픈 스페이스 운영]은 평균 4.25점으로, 85.5%가 적절한 것으로, [소통 한마당]은 4.36점으로, 90.0%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복합문화 창출_W-culture 공간] 콘텐츠 적절도

항목		5점 평균	5점 척도					<3분류>			합계
			매우 적절함	대체로 적절함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	보통	부적절	
(1) 무명 예술가 및 활동가들의 작품 전시	(빈도)	4.16	(22)	(20)	(13)			(42)	(13)		(55)
	%		40.0	36.4	23.6			76.4	23.6		100.0
(2) 다양한 영역의 활동 주인공 소개	(빈도)	4.02	(17)	(25)	(10)	(3)		(42)	(10)	(3)	(55)
	%		30.9	45.5	18.2	5.5		76.4	18.2	5.5	100.0
(3) 문화창출의 오픈 스페이스 운영	(빈도)	4.25	(23)	(24)	(7)	(1)		(47)	(7)	(1)	(55)
	%		41.8	43.6	12.7	1.8		85.5	12.7	1.8	100.0
(4) 소통 한마당	(빈도)	4.36	(26)	(24)	(4)	(1)		(50)	(4)	(1)	(55)
	%		47.3	43.6	7.3	1.8		90.9	7.3	1.8	100.0



<그림 Ⅲ-9> [복합문화 창출_W-culture 공간] 콘텐츠 적절도

(4_1) [복합문화 창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

[복합문화 창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는 <표 Ⅲ-16>과 같다.

<표 Ⅲ-16> [복합문화 창출] 제안하고 싶은 추가 콘텐츠

[복합문화 창출] 전시콘텐츠 추가	
여성주의 영화(동영상 콘텐츠) 소개	노인 여성의 문화활동에 대한 전시
성평등, 여성/소수자에 대한 소통/연대 프로그램	토크콘서트
여성 혹은 성평등 관련 열린 강좌	시민교육 체험 공간
플리마켓	문화예술 공간
부산출신 여성 작가/예술가들의 작품전시나 북토크 형식의 강연회	소통 교류 공간
지역 여성 관련 콘텐츠	여성 공간 탐방
세대 공감 콘텐츠	부산 여성이 만드는 책
부산 여성들의 삶 이야기 듣기 혹은 쓰기	북 콘서트
연극, 콩트, 음악	연극, 콩트, 음악
자갈치아지매 콘서트	부산여성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부방/토론방
여성 문화사 관련 아카데미 운영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상주 공간

4) 전시방법(안)에 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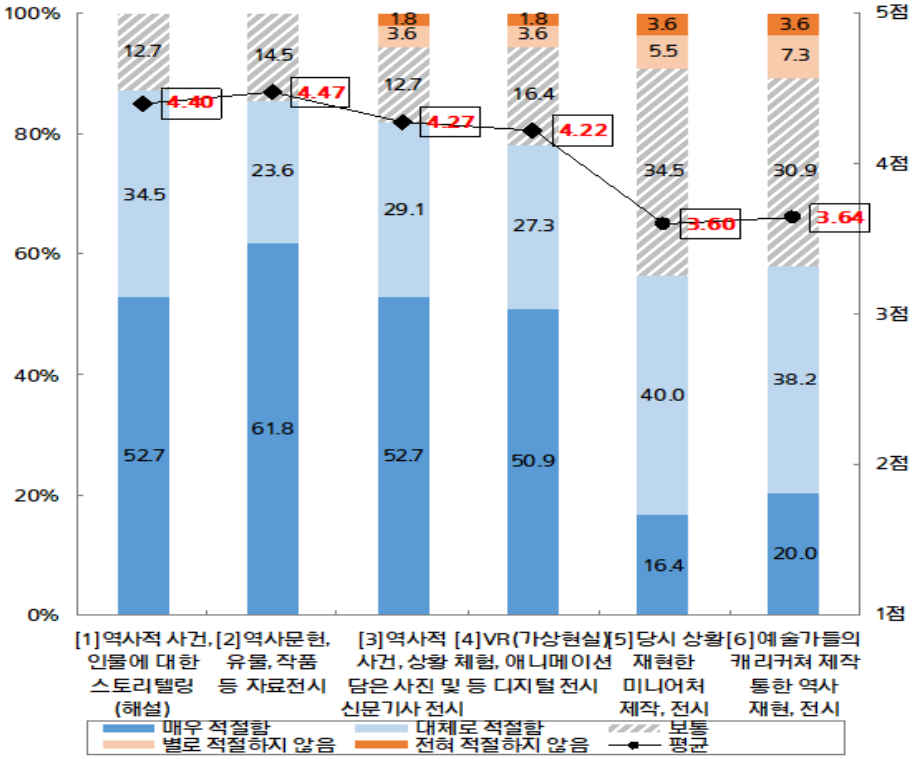
(1) 전시방법 적절도

○ [전시방법]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역사적 사건,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해설)]은 5점 기준에서 평균 4.40점으로, 87.3%(대체로 적절 34.5%+매우 적절 52.7%)가 적절한 것으로, [역사문헌, 유물, 작품 등 자료 전시]는 평균 4.47점으로, 85.5%가 적절한 것으로, [역사적 사건, 상황을 담은 사진 및 신문기사 전시]는 평균 4.27점으로, 81.8%가 적절한 것으로, [VR(가상현실) 체험,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전시]는 평균 4.22점으로, 78.2%가 적절한 것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 미니어처 제작, 전시]는 평균 3.60점으로 56.4%가 적절한 것으로, [예술가들의 캐리커쳐 제작을 통한 역사 재현, 전시]는 평균 3.64점으로, 58.2%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전시방법 적절도

항목		5점 평균	5점 척도					<3분류>			합계
			매우 적절함	대체로 적절함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	보통	부적절	
(1) 역사적 사건,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해설)	(빈도)	4.40	(29)	(19)	(7)			(48)	(7)		(55)
	%		52.7	34.5	12.7			87.3	12.7		100.0
(2) 역사문헌, 유물, 작품 등 자료 전시	(빈도)	4.47	(34)	(13)	(8)			(47)	(8)		(55)
	%		61.8	23.6	14.5			85.5	14.5		100.0
(3) 역사적사건, 상황 담은 사진 및 신문기사 전시	(빈도)	4.27	(29)	(16)	(7)	(2)	(1)	(45)	(7)	(3)	(55)
	%		52.7	29.1	12.7	3.6	1.8	81.8	12.7	5.5	100.0
(4) VR(가상현실) 체험, 애니메이션등 디지털 전시	(빈도)	4.22	(28)	(15)	(9)	(2)	(1)	(43)	(9)	(3)	(55)
	%		50.9	27.3	16.4	3.6	1.8	78.2	16.4	5.5	100.0
(5) 당시 상황을 재현한 미니어처제작, 전시	(빈도)	3.60	(9)	(22)	(19)	(3)	(2)	(31)	(19)	(5)	(55)
	%		16.4	40.0	34.5	5.5	3.6	56.4	34.5	9.1	100.0
(6) 예술가들의 캐리커쳐 제작 통한 역사재현 전시	(빈도)	3.64	(11)	(21)	(17)	(4)	(2)	(32)	(17)	(6)	(55)
	%		20.0	38.2	30.9	7.3	3.6	58.2	30.9	10.9	100.0



<그림 Ⅲ-10> 전시방법 적절도

(1_1) 제안하고 싶은 추가 전시방법

제안하고 싶은 추가 전시방법과 그에 대한 구성 내용은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제안하고 싶은 추가 전시방법

전시 방법 추가	
그녀, 말하다(토크 콘서트)	감염병시대 대비 비대면 전시관 관람 기능
디지털 온라인 자료관	관계망(SNS) 등 활용
상황 체험형 전시공간의 구성	기증품 전시
게임 아이템 모으기	예술가 협업 디지털 전시 - 미디어 아트
테마별 특별 전시	체험 및 참여 가능한 방법
휴먼 라이브러리	동아시아 지구 속 여성
구술 영상	작가들과 협업

5) 부산여성사 전시관 기능, 명칭, 역사문화 정책에 관한 질문

(1)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능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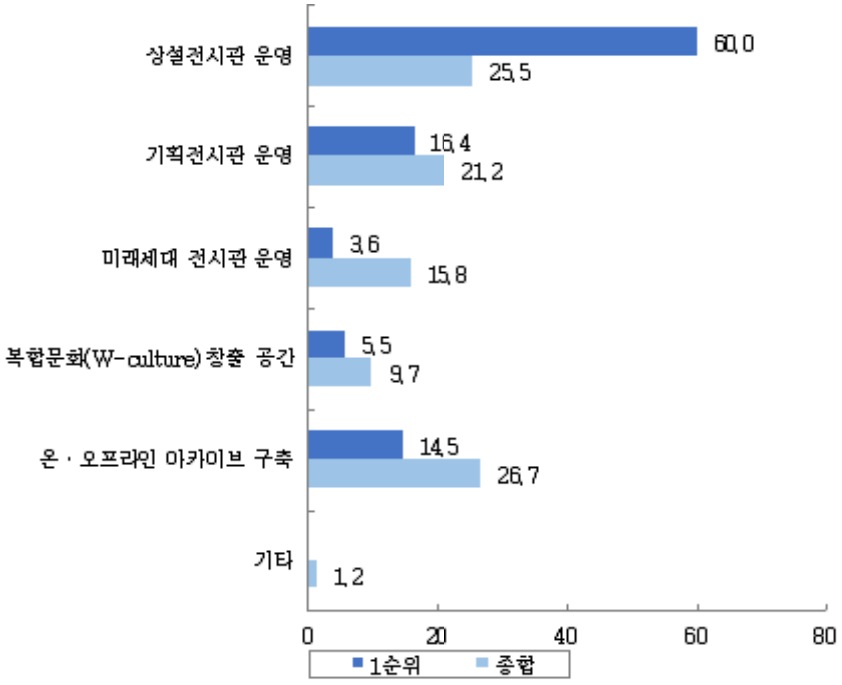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능 1순위 응답은 상설 전시관 운영이 6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획 전시관 운영 16.4%,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14.5%, 복합문화(W-culture) 창출 공간 5.5%, 미래세대 전시관 운영 3.6% 순으로 나타났다.

1, 2, 3순위 종합결과(165건)는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이 2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설 전시관 운영 25.5%, 기획 전시관 운영 21.2%, 미래세대 전시관 운영 15.8%, 복합문화(W-culture) 창출 공간 9.7%,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9>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능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다중응답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상설 전시관 운영	33	60.0	4	7.3	5	9.1	42	25.5
기획 전시관 운영	9	16.4	19	34.5	7	12.7	35	21.2
미래 세대 전시관 운영	2	3.6	9	16.4	15	27.3	26	15.8
복합문화(W-culture) 창출 공간	3	5.5	2	3.6	11	20.0	16	9.7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8	14.5	20	36.4	16	29.1	44	26.7
기타	0	0.0	1	1.8	1	1.8	2	1.2
합계	55	100.0	55	100.0	55	100.0	165	100.0

(단위 : %)



<그림 Ⅲ-11>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능 (다중응답)

(2) 향후 부산지역에 여성사 전시관(가칭)이 설치될 때, 제안하고 싶은 명칭

향후 부산지역에 여성사 전시관(가칭)이 설치될 때, 제안하고 싶은 명칭은 <표 Ⅲ-20>과 같다.

<표 Ⅲ-20> 향후 부산지역에 여성사 전시관(가칭)이 설치될 때, 제안하고 싶은 명칭

전시관 명칭 제안(동일의견 건수)	
부산 여성사전시관(7)	부산 여성 역사관(3)
부산 여성사박물관(2)	부산 여성 역사문화관(2)
여성들의 부산살이	부산 여성의 삶과 역사
침묵을 넘어, 연대의 목소리로	Her Story
여성들, 모이다	역사와 미래를 여는 공간
부산 여성 기록관	부산 여성 미래문화전시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오늘 여성사전시관	자갈치아지매 스페이스
지배받지 않는 모두 공간	포스트잇 전시관
요람을 흔드는 손 - 부산 여성사전시관	부산 여성의 여가와 문화
역사 속의 부산 여성들	부산 여성사전시관 : 여성, 소리, 공존
부산 여성 라키비움(Larchiveum)	과거, 우리, 그리고 미래
부산 여성문화관	너, 나, 그리고 우리
전시관 #미투	역사와 미래를 여는 공간
부산 여성 '이음'	교류와 연대 여성 공간, 여성 교류연대 공간
여성의 역사 기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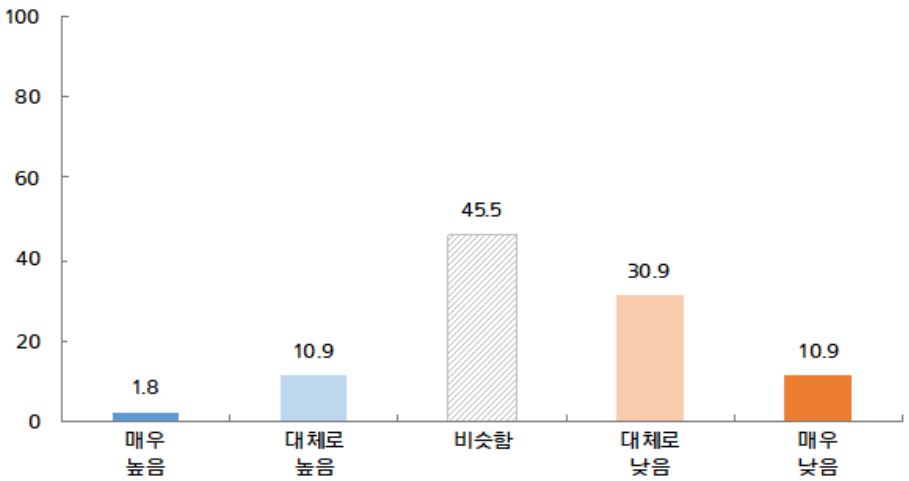
(3) 타 지역과 비교 시, 부산시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 정책의 수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부산시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 정책의 수준은 5점 평균 3.38점이며, 낮음 41.8%(매우 낮음 10.9% + 대체로 낮음 30.9%), 비슷함 45.5%, 높음 12.7%(대체로 높음 10.9% + 매우 높음 1.8%)로 나타났다.

<표 Ⅲ-21> 타 지역과 비교 시, 부산시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 정책의 수준

항목		빈도	비율(%)
< 5점 평균 : 3.38 >			
매우 높음		1	1.8
대체로 높음		6	10.9
비슷함		25	45.5
대체로 낮음		17	30.9
매우 낮음		6	10.9
<3분류>	높다	7	12.7
	비슷하다	25	45.5
	낮다	23	41.8
합계		55	100.0

(단위 : %)



<그림 Ⅲ-12> 타 지역과 비교 시 부산시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 정책의 수준

(4)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다중응답)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1순위 응답은 부산여성역사문화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이 41.8%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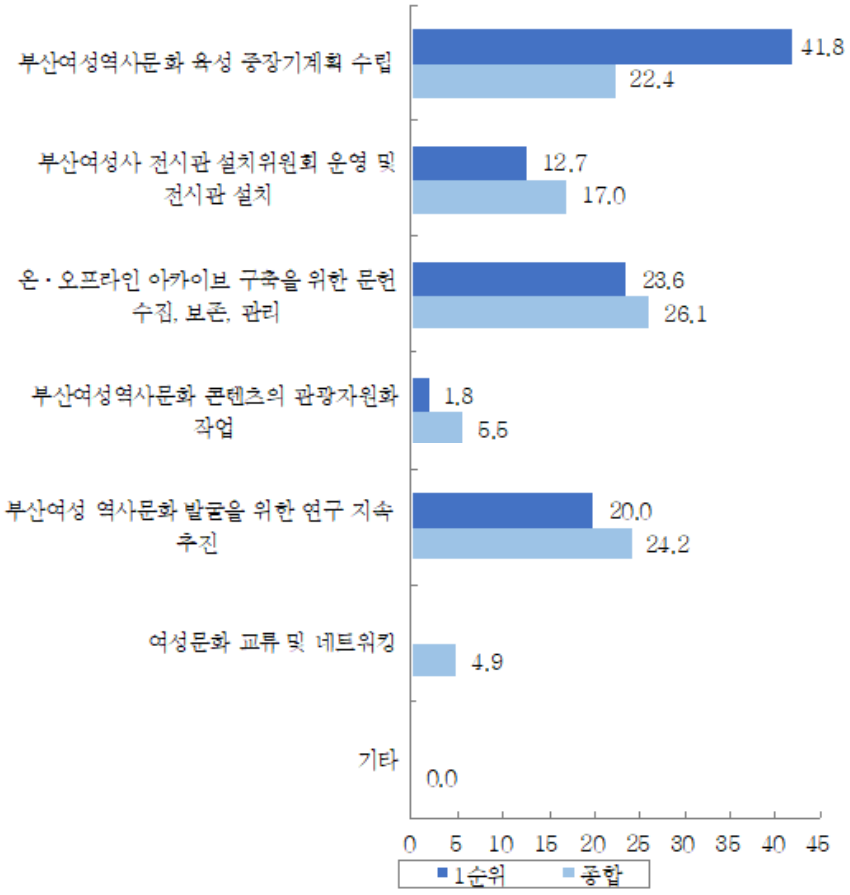
높고, 다음으로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문헌 수집, 보존, 관리 23.6%, 부산여성 역사문화 발굴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 20.0%,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위원회 운영 및 전시관 설치 12.7%, 부산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작업 1.8% 순으로 나타났다.

1, 2, 3순위 종합결과(165건)는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문헌 수집, 보존, 관리가 2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여성 역사문화 발굴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 24.2%, 부산여성역사문화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22.4%,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위원회 운영 및 전시관 설치 17.0%, 부산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작업 5.5%, 여성문화 교류 및 네트워킹 4.9%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다중응답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부산여성역사문화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23	41.8	6	10.9	8	14.5	37	22.4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위원회 운영 및 전시관 설치	7	12.7	12	21.8	9	16.4	28	17.0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문헌 수집, 보존, 관리	13	23.6	18	32.7	12	21.8	43	26.1
부산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작업	1	1.8	1	1.8	7	12.7	9	5.5
부산여성 역사문화 발굴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	11	20.0	13	23.6	16	29.1	40	24.2
여성문화 교류 및 네트워킹	0	0.0	5	9.1	3	5.5	8	4.9
기타	0	0.0	0	0.0	0	0.0	0	0.0
합계	55	100.0	55	100.0	55	100.0	165	100.0

(단위 : %)



<그림 Ⅲ-13>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별에서 학계가 기타에 비해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위원회 운영 및 전시관 설치,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문헌 수집/보존/관리, 부산여성 역사문화 발굴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학계에 비해 부산여성역사문화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응답자 특성별-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_1순위

항목			부산여성역사문화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위원회 운영 및 전시관 설치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위한 문헌수집/보존/관리	부산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작업	부산여성역사문화 발굴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	여성문화 교류 및 네트워킹	합계	χ^2 (p)
성별	남성	(빈도)	(7)	(1)	(6)	(0)	(3)	(0)	(17)	2.838 (.585)
		%	41.2	0.9	35.3	0.0	17.6	0.0	100.0	
	여성	(빈도)	(16)	(6)	(7)	(1)	(8)	(0)	(38)	
		%	42.1	15.8	18.4	2.6	21.1	0.0	100.0	
연령대	40대 이하	(빈도)	(19)	(3)	(9)	(1)	(5)	(0)	(37)	7.240 (.124)
		%	51.4	8.1	24.3	2.7	13.5	0.0	100.0	
	50대 이상	(빈도)	(4)	(4)	(4)	(0)	(6)	(0)	(18)	
		%	22.2	22.2	22.2	0.0	33.3	0.0	100.0	
거주지역	부산지역	(빈도)	(15)	(3)	(10)	(1)	(8)	(0)	(37)	3.124 (.537)
		%	40.5	8.1	27.0	2.7	21.6	0.0	100.0	
	그외지역	(빈도)	(8)	(4)	(3)	(0)	(3)	(0)	(18)	
		%	44.4	22.2	16.7	0.0	16.7	0.0	100.0	
소속	학계	(빈도)	(9)	(6)	(9)	(0)	(9)	(0)	(33)	10.246 * (.036)
		%	27.3	18.2	27.3	0.0	27.3	0.0	100.0	
	기타	(빈도)	(14)	(1)	(4)	(1)	(2)	(0)	(22)	
		%	63.6	4.5	18.2	4.5	9.1	0.0	100.0	

*p<.05, **p<.01, ***p<.001

(5)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때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다중응답)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때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1순위 응답은 삶의 현장이 3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동운동의 현장 등 25.5%, 항일운동의 발자취 : 민족운동, 여성운동 14.5%, 항일운동의 발자취 : 일신여학교 10.9%, 여성과 전쟁 5.5%, 기타 3.6%,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1.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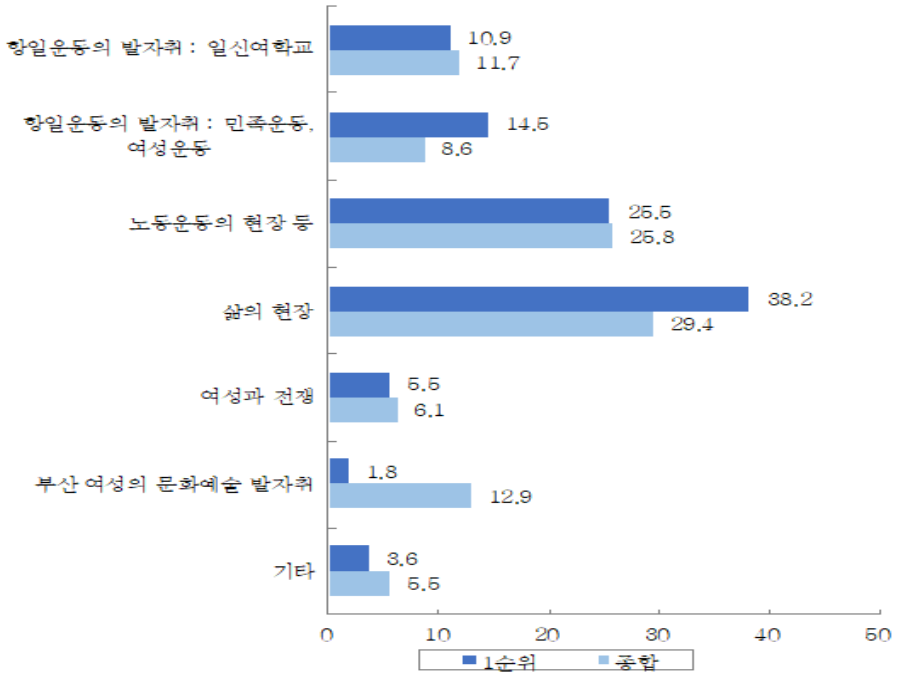
1, 2, 3순위 종합결과(163건)는 삶의 현장이 2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동운동의 현장 등 25.8%, 부산 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12.9%, 항일운동의 발자취 : 일신여학교 11.7%, 항일운동의 발자취 : 민족운동, 여성운동 8.6%,

여성과 전쟁 12.9%, 기타 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때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다중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다중응답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항일운동의 발자취 : 일신여학교	6	10.9	5	9.3	8	14.8	19	11.7
항일운동의 발자취 : 민족운동, 여성운동	8	14.5	2	3.7	4	7.4	14	8.6
노동운동의 현장 등	14	25.5	21	38.9	7	13.0	42	25.8
삶의 현장	21	38.2	18	33.3	9	16.7	48	29.4
여성과 전쟁	3	5.5	2	3.7	5	9.3	10	6.1
부산 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1	1.8	3	5.6	17	31.5	21	12.9
기타	2	3.6	3	5.6	4	7.4	9	5.5
합계	55	100.0	54	100.0	54	100.0	163	100.0

(단위 : %)



<그림 Ⅲ-14>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때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다중응답)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운동의 현장 등, 항일운동 발자취(민족/여성운동, 일신여학교)를, 남성은 삶의 현장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응답자 특성별-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때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_1순위

항목			항일운동 발자취: 일신여학교	항일운동 발자취: 민족/ 여성운동	노동 운동의 현장 등	삶의 현장	여성과 전쟁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기타	합계	χ^2 (p)
성별	남성	(빈도)	(1)	(2)	(1)	(10)	(0)	(1)	(2)	(17)	15.197 * (.019)
		%	5.9	11.8	5.9	58.8	0.0	5.9	11.8	100.0	
	여성	(빈도)	(5)	(6)	(13)	(11)	(3)	(0)	(0)	(38)	
		%	13.2	15.8	34.2	28.9	7.9	0.0	0.0	100.0	
연령대	40대 이하	(빈도)	(3)	(8)	(9)	(15)	(1)	(0)	(1)	(37)	8.823 (.184)
		%	8.1	21.6	24.3	40.5	2.7	0.0	2.7	100.0	
	50대 이상	(빈도)	(3)	(0)	(5)	(6)	(2)	(1)	(1)	(18)	
		%	16.7	0.0	27.8	33.3	11.1	5.6	5.6	100.0	
거주 지역	부산 지역	(빈도)	(5)	(6)	(11)	(12)	(0)	(1)	(2)	(37)	10.337 (.111)
		%	13.5	16.2	29.7	32.4	0.0	2.7	5.4	100.0	
	그외 지역	(빈도)	(1)	(2)	(3)	(9)	(3)	(0)	(0)	(18)	
		%	5.6	11.1	16.7	50.0	16.7	0.0	0.0	100.0	
소속	학계	(빈도)	(3)	(4)	(11)	(10)	(3)	(0)	(2)	(33)	8.770 (.187)
		%	9.1	12.1	33.3	30.3	9.1	0.0	6.1	100.0	
	기타	(빈도)	(3)	(4)	(3)	(11)	(0)	(1)	(0)	(22)	
		%	13.6	18.2	13.6	50.0	0.0	4.5	0.0	100.0	

*p<.05, **p<.01, ***p<.001

(6) 부산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콘텐츠

(6_1) 부산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이슈화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단기 콘텐츠

부산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이슈화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단기 콘텐츠 내용에서는 부산여성의 삶의 현장 조명 8건, 여성과 전쟁 3건, 일제강점기 여성역사문화사 콘텐츠 개발 2건, 국제시장 등 부산 여성상인들 2건, 노동운동과 여성 2건, 다양한 연구인력의

구성 및 네트워크화 통한 소재 발굴(자료/인물 등) 2건, 부산지역 여성 관련 역사문화자원 발굴,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이 2건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야 하는 단기 콘텐츠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은 <표 Ⅲ-26>과 같다.

<표 Ⅲ-26> 부산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이슈화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단기 콘텐츠

단기 이슈 콘텐츠 내용(동일의견 건수)	
부산여성의 삶의 현장 조명(8)	부산지역 여성 관련 역사문화자원 발굴,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2)
여성과 전쟁(3)	상설 전시 공간 콘텐츠 관련 자료 수집, 정리, 아카이브
일제강점기 여성역사문화사 콘텐츠 개발(2)	기존 자료의 수집과 재배열, 재의미화
국제시장 등 부산 여성상인들(2)	산업화와 여성
노동운동과 여성(2)	부산 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다양한 연구인력의 구성, 네트워크화 통한 소재 발굴(자료/인물 등)(2)	여성사 전시 및 아카이빙 관련 이론 및 방법론(왜, 무엇을 전시하는가?)
근현대 여성운동사	미투와 여성 역사문화
민주화운동	부산 여성의 역사
여성 인물에 관한 것으로,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부산 인물에 대한 구술 등이 필요	산업/노동/문화예술/과학기술 등 영역별 시대별 여성 발굴
질병과 여성	희망 가능성 미래
미래지향적 여성상 개발	부산지역 및 부산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
근현대 생활문화	임시수도와 부산 여성
시기별 순환전시콘텐츠 개발(노동-저항-억척-해양)	여성 특혜폐지

(6_2) 부산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이슈화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장기 콘텐츠

부산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이슈화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장기 콘텐츠에는 부산 지역사와 여성사 3건, 여성의 삶 3건, 부산의 근현대사 속 밝혀지지 않은 여성인물 관련 대대적인 연구 필요 3건, 현재진행형 역사(완월동 재개발) 등 여성인권운동 역사 2건, 자료 발굴/보관,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성 및 공유 2건, 부산의 미

래와 부산여성의 역할 2건, 6.25 한국전쟁 등 여성과 전쟁 2건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야 하는 장기 콘텐츠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은 <표 Ⅲ-27>과 같다.

<표 Ⅲ-27> 부산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이슈화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장기 콘텐츠

장기 이슈 콘텐츠 내용(동일의견 건수)	
부산 지역사와 여성사(3)	여성의 삶(3)
부산의 근현대사 속 밝혀지지 않은 여성인물 관련 대대적인 연구 필요(3)	현재진행형인 역사(완월동 재개발) 등 여성인권 운동 역사(2)
부산의 미래와 부산 여성의 역할(2)	6.25 한국전쟁 등 여성과 전쟁(2)
자료 발굴 및 보관,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성 및 공유(2)	고려-조선시대사료(관찬/사찬/개인문집/고지도 등) 번역사업 추진
자료 수집(문헌, 구술 등)	그늘 망각 간과
위안부등 부산지역 여성운동사 자료 정리	억척스러운 여성의 역사
국적/인종/세대를 넘어 여성들의 소통/연대 견인	이주의 역사와 여성
광복 이후 현대 여성 역사 문화사 콘텐츠 개발	돌봄과 감정노동
여성사 관련 연구를 공모/지원	부산 여성의 정체성 변화
부산 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지역사와 여성-일상으로부터 영역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지역 가치와 한국여성사에서 부산 여성의 삶과 활동을 자리매김하는 작업	부산-지역 연계성, 국내-해외 연계성 등 여성 활동 영역에 대한 재평가 필요
항구와 여성	부산 여성의 역사적 발자취
근대화와 여성	차별 금지 등 성평등 문화
부산 여성의 경제활동	16개 구군 지자체에서 골고루 조사

(7)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보존, 전시와 관련한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중 부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보존, 전시와 관련한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중 부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타 시도 사례에서는 인천 아트 구락부 아트맵, 서울의 세계여성문학관, 윤동주문학관, 인천의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아트플랫폼, 디지털 전시기술과 관련해서는 최근 개관한 광주의 전일빌딩,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민주평화교류원,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해녀박물관, 김만덕 기념관 등을 들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스위스 취리히의 여성 인물지도 제작, 기념관(전시관)으로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유대인박물관, 산악지역 여성들의 삶의 색깔을 담은 오스트리아의 Hittisau 여성박물관, 이탈리아의 Borgo 여성박물관 등이 있으며, 베트남 하노이 여성박물관은 전시 구성이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표 Ⅲ-28>과 같다.

<표 Ⅲ-28>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보존, 전시와 관련한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중 부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내용
2015년 여성이 역사를 낳는다 이투데이 기획시리즈가 여성박물관에 대한 많은 모티브와 참고가 되었음
1. 여성 인물지도제작 참고 - 스위스 취리히 여성 인물지도, 인천 아트 구락부 아트맵 등 2. 기념관(전시관) 참고 - 홀로코스트기념관(베를린), 유대인박물관(베를린), 세계여성문학관(서울), 윤동주문학관(서울), 한국근대문학관(인천), 인천아트플랫폼(인천) 등
안동 여성 역사박물관 사례 참조하면 좋을 듯함
디지털 전시기술과 관련해서는 최근 개관한 광주의 전일빌딩 /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민주평화교류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음
가장 가까이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여성박물관이 전시 내용과 전시 구성이 탁월하였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이기도 하고 경제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해온 베트남 여성들의 이미지가 자갈치아지매로 통칭되는 부산 여성들의 모습과도 일정 정도 공감되었음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해녀박물관, 하노이 여성박물관 등
제주도의 김만덕 기념관(김만덕은 조선후기 제주도의 여성 거상)
대구 신명여고 100주년 기념관에 전시된 교복 기획전(100년의 변천사)과 일제강점기를 버텨온 교구 전시 - 교복은 아니더라도 복식사 전시
대구여성가족재단 여성 탐방로-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투어할 수 있는 탐방로임
지역사, 지역 산업사, 도시형성사 및 지역의 영역별 여성들에 대한 조명이 과거로부터 현재에까지 이어지도록. 지역민들의 높은 남성 중심적 생활문화가 지역 여성에 대한 발굴과 만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부산의 차세대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귀중한 연구와 업무 노력에 감사
해외지역 여성들의 박물관들은 색깔이 분명함. 시대와 주제도 한정하고 있음. 산악지역 여성들의 삶(오스트리아의 Hittisau 여성박물관, 이탈리아 Borgo 여성박물관 등)

(7_1)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보존, 전시와 관련한 건의사항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보존, 전시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상적 접근으로 인해 여성역사의 타자화 초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사를 남성과 대비된 관점이 아닌 가족, 개인의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역사문화를 다루고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전시공간의 설계와 콘텐츠까지 여성주의 시각과 성평등 시각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여성역사문화 전시관이 주는 메시지가 여성이라는 물리적 성에 기반한 인식보다는 부산여성이 보여주고 수행했던 포용성 관점의 부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성평등 운동이 사회와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젠더이슈의 긍정적 기능 강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건의사항을 요약해 보면 <표 Ⅲ-29>와 같다.

<표 Ⅲ-29>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보존, 전시와 관련한 건의사항(요약)

내용
가상/증강 현실 등 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전시 구성, 비대면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함께 병행
성매매 집결지 문제는 군 위안부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부산여성 역사문화의 주제로 다루어져야 함. '관광자원화', '피란수도 부산' 등 피상적 수준에서는 여성역사의 타자화 초래 가능성 있음
전쟁영웅, 항일운동, 여성상인, 노동자 등 여성의 역사를 기념, 전시하고자 하는 것은 제한적 관점으로 보임. 여성사 전시 및 기록에 대한 방법론적 모순이 전제될 때 기존 역사학에서 여성을 활용할 논리에 편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음
공정/공유 도시 비엔나 사례처럼 여성의 역사문화를 다루고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여성의 시각 반영 필요. 과거의 역사를 현재와 어떻게 연결지점을 찾을 것인가, 성평등이 완성되지 않은 현재에서 여성이 바라는 미래를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여성사 전시의 주제가 되어야 함. 전시공간의 설계와 콘텐츠 구성은 여성의 눈높이와 행동에 편하게 부합되는 공간이 되어야 함. 전시관에 들어서는 자체로 여성주의 교육이 되고 성평등 의식이 고취되도록 구체적 방안 필요
시민과 소통, 공감, 참여가 원활한 공간, 관람객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열린 전시관 기획 필요. 과거/현재가 교통하는 장소로 구성. 체험 외 소유/기억할 거리(기념품, 축제 등)가 풍부한 전시관
'부산민주운동사' 재발간(2021년 예정)사업에 '여성운동'부문이 편성되었으므로 부산지역 여성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 가능
국제도시로서의 부산 위상 고려, 이주여성의 삶과 주요인물 발굴 등 다문화 콘텐츠 포함

내용
부산여성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산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구성 필요. 전시는 예산과 규모와 더불어 콘텐츠 발굴이 우선이므로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의 자문과 조언을 통한 방향과 구성 논의, 공감대 형성 필요
자료실: 여가부 자료실을 보다 확대하여 사진/인물 자료, 다양한 통계자료 정리 필요. 이를 시각적으로 가공하면 전시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고, 원데이터는 전문 연구자료로 활용 아지매 전시실: 부산여성을 상징하는 대표 용어, 이를 확장해 부산 여성상의 이미지화 필요
여성과 항구는 여성과 바다로 확장하여 더 큰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음. '부산 여성'의 범주로 부산 출신, 부산 거주, 부산에 지역정체성을 가진 여성 등
부산여성사 연구내용이 기존 역사박물관의 구성을 따르고 있어 참신한 기획 필요. 사건과 인물 중심의 스토리텔링 외에 실제로 평범한 부산 여성들이 원하는 삶의 주요 주제(교육,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중년/노년 여성)나 쟁점(성차별, 성폭력, 여성 노동, 여성 빈곤)과 같은 것도 기획 주제로 가능
부산지역의 여성역사문화가 부산을 넘어, 아시아, 전 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재조명되었으면 함
공감되지 않는 전시홍보성 나열식의 부산여성사 전시관이 되지 않았으면 함. 누구나 공감가능한 보편적 미감으로 시작, 성차별 등 여성사회의 문제 지적은 핵심적으로 간결 명확한 정리 필요
페미니스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와 공연으로 연계 가능. 예로 수잔 레이시의 '파도, 바람, 속삭임', '다크 마돈나', '크리스탈 퀄트'같은 작업들 참조 가능. 전시가 지역의 축제/행사로 연결, 전시공간 밖으로, 생활 속 전시로 이어져, 다양한 정보와 감각이 일상의 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음
전시관 건립 준비와 동시에 자료수집 진행, 학예사/업무담당자가 참여해야 일관성 있게 추진 가능
한국여성사전시관에서 체험한 구술자료 체험관도 관심 가질만함
새로운 모델, 새롭게 지역에 맞는 모델을 창출하는 일에 시간 투입 필요
왜 여성사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 필요. 남성적인 업적을 여성도 그에 못지않게 이루었다는 식의 여성사는 연구 자체도 진부하지만 전시에서는 자칫 여성이 남성의 '아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음. 한국 여성, 그중에서도 부산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예: 자갈치시장 여성상인들) 부각이 필요. 구한말부터 외국인들(여행자/선교사)이 한국 여성에 대해 느꼈던 생경함도 전시효과 클 것임
여성역사문화 전시관이 주는 메시지가 여성이라는 물리적 성에 기반한 인식보다는 부산여성이 보여주고 수행했던 포용성 관점의 부각 필요. 성평등 운동이 사회와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젠더 이슈의 긍정적 기능 강조 필요
지역사회에서 이름 없이 헌신한 인물 발굴 필요. 유명하다고 꼭 유능한 인물은 아니라 생각함
부산의 생활/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며, 여성문화 전시는 이례적일 것 같음. 이것은 양면성을 갖는데 여성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는 장점은 있지만 여성의 삶이 남성의 삶과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는데도 자칫 여성만의 조명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이에 부산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획 필요. 전시기획에서 여성의 삶/역사를 조명하는 기획의 의도와 사고 속에 남성 중심의 계몽주의적 역사관(영웅적이고 인물 중심)을 반복하는 경향 있음. 여성의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연구를 통한 전시로 기존 시각을 탈피할 필요 있음. 미국 뉴저지 뉴왁에서는 기존의 박물관/미술관의 남성 중심이고 의례적인 전시기획에 맞서 생활 중심의 시각으로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음. 전시공간과 전시기획을 할 때 콘텐츠 못지않게 시각이 중요함

내용
평범한 여성들이 역사에 기여한 바를 재조명하는 기획 강조. 기존 역사는 남성의 시각에서 공적 활동을 높이 평가해옴. 여성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구성하여 사적 영역과 공동체문화 속 여성 활동 부각 필요. 여성사가 왜 필요한지를 알리는 기획 부각 필요. 남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장 마련 필요
1. 상설전시 : 상설전시 주제 분류에 대한 기준 필요. 여성과 민족운동, 전쟁, 항구, 노동, 문화, 사회(민주화)운동의 분류체계가 중복 지점 많음. 교육과 노동/문화는 민족운동에 포함 가능.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경계도 사회운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시기적인 차이만 존재. 생활사/운동사/ 문화사간 경계도 모호한 편으로 상설전시의 시기별/주제별/활동영역별 분류 명확 필요 2. 기획전시 : 기획전시의 주제 중 재조명 역사인물 기획전시는 [상설 전시] 9)활동영역별 개별인물 조명과 결합방식 필요. 가령, 영역별 여성인물과 발굴 재조명 인물을 병치시키는 기획 가능. 또한 재조명해야 할 인물 중 식민지시대 양한나, 나혜석, 김말봉의 지역 연고성과 활동 필요 3. 미래 세대 전시 : 최근 전시관 탐방의 경향이 교육과 기록보다는 체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3)~5)의 기획은 적절하나 체험 주제와 방식(글쓰기, 그리기, 영상제작하기 등)의 확장 필요. 4. 복합문화 창출 : 전시, 소모임 활동(동아리), 공연, 좌담 중심이나 운영주체 불명확. 전시관에서 기획한 전시/공연 혹은 신청을 받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지 공간의 운영방안 설정 필요. 본 공간은 소통/휴식 공간이기도 하므로 관람객이 특정 주제/관심사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의성 증대 및 관련 도서실의 기능 추가 필요
여성사가 단순 페미니즘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 구성 필요. 여성사를 남성과 대비된 관점이 아닌 가족, 개인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음
전시관은 콘셉이 가장 중요. 국내외 방문객이 전시관에서 부산여성의 역사와 삶에 대해 어떤 느낌과 감동을 안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전시공간이 넓다면 이런저런 콘텐츠가 가능하지만 공간이 작을 것으로 예상. 향후 전시관의 기초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역사문헌자료와 콜렉션이 수집 발굴 계획과 함께, 부산 여성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치밀한 고민 필요. 상설전도 최근에는 5~7년 유지 후, 필요시 콘텐츠 추가하고 있음. 부산여성의 변화와 역동성에 초점을 맞춰, 전통시대는 미니어처/애니메이션 활용, 연표 등을 통해 넘어가고 근현대 부산여성의 생활사 부각이 하나의 방법임
국립여성사박물관의 부지가 결정되고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어 참조 필요. 제주, 경북, 전남, 광주 등의 사례 참조 필요. 부산여성사 3권 출판의 저력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 필요. 지금 시급한 것은 여성인물 구술, 자료 수집, 성과물 출판 필요
여성역사에 대한 시각 정립 필요. 부산은 근현대사에서 일제 치하 시의 항구(수탈과 교류), 한국전쟁 때의 임시수도(개방성, 다양성)등 지역 특수성의 역사적 근거 많음. 여기서 여성이라는 계급성이 거의 언제나 억압과 수탈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 현실 위에 새로운 대안점을 찾고,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발견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전시/모임공간으로 새로운 연대의 장 필요
부산여성사 타임라인 설치(세계, 한국 역사 속에서 부산지역 주요 여성 이슈 및 사건 등)

3. 전문가 컨설팅 분석 결과

1) 전문가 컨설팅 개요

컨설팅은 학계, 부산여성사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들, 박물관 관계자 등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 향후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후 보존, 전시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표 Ⅲ-30>과 같다.

<표 Ⅲ-30> 컨설팅 참여자

참여자	활동영역 및 소속	성별	지역	선정기준
기○○	여성사 연구, 박물관	여성	타 지역	학계, 여성사 연구자, 박물관 관계자 등
김○○	여성사 연구, 전시관	여성	부산	
문○○	여성사 연구, 정책연구원	여성	타 지역	
손○○	여성사 연구, 학계	여성	부산	
이○○	학계	남성	부산	
이○○	여성사 연구, 학계	여성	부산	
이○○	박물관	여성	부산	
이○○	여성사 연구, 학계	남성	부산	
전○○	학계	남성	부산	
함○○	학계, 관련 연구기관	여성	타 지역	

2) 전문가 컨설팅 분석 결과

(1)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해서는 첫째, 사료 확보는 지속성을 가지고 전시관 설치 이전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입체적인 전시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료 확보가 필요하며, 역사적 자료수집은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확보해야 하므로 전시관 설치 이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여성역사에 대한 중심가치 정립 및 전시관을 통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여성역사에 대한 중심가치를 우선 정립하고, 부산여성사 및 부산여성사 전시관을 통해 부산의 미래에 어떤 비전을 주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셋째, 전시관 성격에 부합하고 부산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부산여성의 정체성이 부각되는 균형 잡힌 전시 주제 분류가 필요하며, 예로 상설전시로 여성과 노동/바다를 아우르는 주제 및 내용으로 한 전시 등이 가능하다.

넷째, 지역 특수성과 보편성간 균형이 필요하며, 부산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미래지향적인 전시콘텐츠가 필요하다. 부산지역의 특수성은 혼종성과 복합성을 지니며, 보편성 내지는 일상성은 공통사항으로서 두 요소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항구도시 부산의 고유한 특수성과 세계의 해양문화에 열려있는 개방성과 보편성을 부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지향성을 추구하는 전시콘텐츠 구상을 위해 부산이라는 경계를 넘어 한국과 지구여성사를 아우르는 새로운 장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제별 상설전시 시 근현대에 집중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근대 여성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별로 상설전시를 구성할 경우, 근현대 여성사 전시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근대 여성사는 연대표로 정리해서 보여주거나, 전근대 사료로 노동요를 통한 접근도 가능하다. 주제별 상설전시가 이상적이기는 하되, 여성의 역할을 역사 속에서 맥락화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주제별 전시 순서를 지리적, 지역적 특수성을 부각한 여성과 바다, 교육받은 여성주체의 등장이라는 차원에서 여성과 교육, 여성과 전쟁, 여성과 노동, 여성과 운동 순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여섯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남성 관련 전시콘텐츠를 포함하는 파격적 기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편적인 전시콘텐츠로서 '불평등과 차이'의 장을 구성하여 남녀 대립구도를 지양하는 한편, 기존의 여성영웅 만들기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남성 관련 전시콘텐츠도 다루는 획기적인 시도도 필요하다.

일곱째, 전시내용에서의 객관성과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해방이후 인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여덟째, 기획 전시는 전시관 설치 이후에 준비 가능하다. 기획전시 콘텐츠는 시의성 있는 주제가 필요하므로 전시관 설치 이후에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방향 설정 후 부

합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가 가능하다. 또한 기획전시는 주제에 따라 부산지역 전시관, 박물관, 예술전문기관, 여성단체와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다. 세부 컨설팅 내용은 <표 Ⅲ-31>과 같다.

<표 Ⅲ-31>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구분	컨설팅 세부내용
전시물로 가공 시 입체적 전시 위한 자료 확보의 충분성 필요	기 연구된 연구물은 전시콘텐츠 발굴 기초자료로 적절하나 전시물로 가공에는 어려움 있음 제안된 주제별 분류는 연표작성이나 자료로 보여줄 때는 장점이나 평면적 자료로 보임. 자료의 입체적 전시를 위해 예산/공간 확보 필요. 예로 부산여성노동자 전시콘텐츠를 입체적으로 전시 가능한 자료가 충분한 지 등 고려 필요. 영상물/사진/유물 등 확보해 최근의 전시기법을 고려한 전시콘텐츠 개발 필요
전시관 성격 규정 및 적합한 콘텐츠 중심의 개발 필요	부산여성의 모든 것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임.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부산여성의 주제별 콘텐츠 발굴이 타당
전시콘텐츠 개발 시 고려사항	전시가능하고,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에 역점을 두는 한편 행정기록물(여성주제관련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의 콘텐츠화 필요. 근/현대 행정기록물 열람범위 내(국가기록원 협조도 가능) 당시 공공영역에서 여성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파악 가능 자료에 해당
부산의 지역성 반영한 콘텐츠 발굴 및 이주사 등 정책변화 관련 콘텐츠 반영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여성이주사도 주요 콘텐츠임. 화교들은 인천/ 부산에 집약되어 있었음. 부산시민의 국내/국제 이주사, 외국인의 부산이주사 등 전시콘텐츠 자료로 확보 필요. 당사자들의 증언을 기록할 수 있다면 이런 작업도 병행 필요
콘텐츠 개발 및 전시 시 당시의 사회문화 모습에 대한 객관성 담보 필요	여성역사문화 전시는 여성 역사/문화의 과거~현재까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임. 현재의 특정관점/이념으로 과거를 재단/규정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지양 필요. 현재의 양성평등/여성주의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 평가절하 혹은 극복하는 식으로 전시해서는 안됨. 최대한 객관적으로 당시의 사회문화 모습 재현 필요
지역의 특수성(혼종성과 복합성)과 일상성(공통사항)간 균형 필요	박물관은 특수성만 부각해서는 안됨. 부산지역의 해양, 전쟁, 노동(고무/섬유 관련), 국제문화의 특수성은 부각되지만, 한국 사회/문화의 일상성 등 공통사항이 축소/무시되어서는 안됨. 특히 부산지역은 혼종성/복합성이 강하므로 함께 재현되어야 함
영웅주의적 시각에서 콘텐츠 개발 및 재현 지양	특정한 주제에서의 여성에 중점두는 방식(영웅주의 시각)으로 재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예로, 민족/민주화/노동 운동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 모습의 재현은 바람직하지만,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의 조명이 아닌 과도한 여성성 조명은 바람직하지 못함. 여성으로서 운동 참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참여했기 때문
주제별 상설전시 및 여성사 개관 필요	상설전시는 전시관의 철학을 녹여내는 것으로 부산여성사 전시관의 철학에 맞게 상설전시 구성 필요. 시대 순보다는 주제별 전시에 동의하나, 여성사의 개괄적 설명은 필요. 일상에서의 여성 삶에 대한 조명도 필요. 예로 "여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없다" 주제 하의 상설전시실

구분	컨설팅 세부내용
기획전시전 - 이주여성, 외국여성과 비교 전시 가능	기획전시는 상황따라 그 시기의 이슈 반영, 상설전시에서 다루지 못한 것, 깊이 조명해야 할 주제를 가지고 기획. 이방인으로 사는 이주여성(다문화가정 여성), 탈북여성 기획전 필요. 외국여성의 삶의 같음/차이도 조명 필요
여성역사에 대한 중심가치 정립 필요	전시의 성공요체는 스토리텔링이며 스토리 도출을 위한 '중심가치'가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양성평등역사문화의식 확산'이 전시관의 목표인데, 알 듯 모를 듯함. 부산을 일구어오는데 남성 못지않게 여성도 한몫했다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미래 여성지도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 몇 가지 이의제기 필요.
부산여성사가 부산의 미래에 어떤 비전을 주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관건	여성이 남성이 이룬 부산과 어떻게 다른 부산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노력해왔는지, 그것이 부산의 미래에 어떤 비전을 주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관건임. 과거에 뿌려진 씨앗을 발굴, 미래에 새롭게 꽃피게 하는 것이 역사의 본령임
남녀 대립구도 지양 및 여성간 차이 인정	부산여성사가 지역의 여성명망가만의 조명이 아니라 유한/노동 계층 여성간의 괴리/대립이 무시되어서는 안됨. 또한 남성/여성의 대립구도로 역사가 아닌 노동/민족/종교/도농 갈등 등의 다른 대립구도도 다루어야 함
부산여성의 정체성이 부각되는 균형잡힌 전시 주제분류 필요	지역사속에서 여성의 위치/정체성을 보여줄 주제분류 필요. 현재 기획주제가 상설전시에 더 적절해보임. 예로, 여성과 정치(독립/민주화/시민운동 등), 여성과 경제(산업노동자, 상인, 가내수공업자 등), 여성과 사회(의료인, 교육자, 사회사업가 등 사회공헌한 예), 여성과 교육(여성교육 변화에 집중), 여성과 예술(장인, 예인, 근현대 예술인 등). 주제선정 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부산여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균형잡힌 전시 필요
시의성 있는 기획전시 주제 필요	기획전시는 특정 역사적 사건/인물/주제를 선정, 시의성 있는 전시이므로 다양한 방법의 콘텐츠 개발 가능. 예로 부산산업발전 00주년 기념으로 부산여성노동자를 기리는 전시 기획. 자갈치시장을 이슈화한 '삶을 개척한 시장의 여성들'은 좋은 기획주제임
상설전시로 여성과 노동/바다를 아우르는 주제 및 내용으로 전시 가능	'여성과 노동/바다' 주제를 아울러 전시 가능. 해양노동 및 해양노동 관련 가족(부산에 선원이 가장 많이 거주), '선원가족부인' 등 바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여성의 삶 조명 가능. 남편의 승선 후 돌봄/가사노동을 담당한 선원가족부인을 논의대상으로 삼으면 '여성과 바다/노동' 주제가 포괄적 스토리로 전시콘텐츠 구성 가능
기획전시로 주제별 기획전시, 재조명 역사인물 기획전시, 양성평등문화 확산 위한 전시 적절	기획전시 콘텐츠는 주제별 기획전시, 재조명 역사인물 기획전시, 양성평등문화 확산 위한 전시 등의 구성은 적절. 시대적 상황 고려한 주요쟁점 관련 전시가 효과적임. 부산지역은 모던하고 글로벌한 공간이므로 바다와 부산여성을 다각적인 면에서 조명 필요
주제별 상설전시 시, 근현대 여성사 전시관으로 한정 가능성 고려	주제별 분류 시 제시한 주제에서 임진왜란 시기만 제외하면 근대이후 내용에 집중되어 근현대 여성사 전시관이 될 수 있음. 협소한 공간으로 전 시대 망라가 힘든 점 등 고려 필요

구분	컨설팅 세부내용
상설전시로 여성과 노동/바다를 아우르는 주제 및 전시방법으로 증언 녹음도 가능	여성과 노동에서 여성공장노동자가 중심이며, 여성과 바다에서 자갈치시장 여성의 상행위도 노동이므로 노동에서 함께 다룰 것. 피난시기 여성의 삶(여성과 전쟁)과도 연결 가능. 또한 근대 이후 여성의 다양한 직업도 조명 필요. 60~80년대 여성노동자의 인터뷰 통해 녹음한 증언을 전시장에서 들려주는 것도 필요
기존 연구결과 외에 추가 발굴작업 및 세밀한 분석 등 필요	기존 발간된 『부산여성사』의 연구업적에 매몰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추가 발굴작업 필요. 상설전시가 결정된 전시콘텐츠 관련 세밀한 분석과 보충자료 파악 필요
핵심장면에 대한 포커싱 전시 혹은 전체적 흐름에 대한 전시 여부 결정 필요	여성운동에서 지금까지의 운동을, 여성교육에서 근대 초기의 것만을 다룰 것인지 고민 필요. 즉 전시에서 중요한 몇 장면만을 혹은 전체적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고민 필요
부산여성사 전시에서 객관성/형평성 고려 필요	부산여성사가 확실히 정리된 상황은 아니므로 객관성/형평성에서 문제소지 없는지 고려 필요
기획전시는 시의적절성이 중요	기획전시는 시의적절하게 추진 필요. 너무 큰 주제를 다루기보다 당시에 의미있는 사건/상황에 맞는 주제
해방이후 인물에 대한 객관성 확보 위해 검증작업 필요	해방이후 여성인물 경우, 검증된 내용의 전시 필요. 개인의 역사적 평가는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여러 차례의 검증 필요. 오랜 과거 인물의 경우 검증 완료로 해석 가능
기획전시는 주제별 부산지역 전시관, 박물관, 예술전문, 여성단체와 연계/협력 가능	기획전시 경우 부산지역의 전시관들과 연계, 자료 도움 가능(부산근대역사관, 민족과 여성박물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전근대 시대사의 경우는 부산지역 박물관과 협력 가능. 또는 부산지역 영화/문화/문학/예술 등 소개하고, 전시회/영화상영/연주회/독서회 등 병행방식 가능. 예술전문/여성 단체들과 협력 바람직
미래 세대/복합문화 창출 전시에서 제안된 다양한 콘텐츠 적용 가능	상설/기획 전시 외에 미래세대 전시 및 복합문화 창출에서 제안한 다양한 전시콘텐츠들도 차후 전시구상에 도움 가능
상설전시의 주제별 전시 접근은 적절하나 근대사에 집중되는 한계 발생	상설전시의 전시콘텐츠를 통사가 아닌 주제별 접근은 차별화된 전시 가능하므로 적절한 방향임. 다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본격화된 근대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이전시기 부산여성의 삶전시에는 한계
전근대 사료로 노동요를 통한 접근 가능	전근대 사료 부족으로 지역성 부각에 한계 있지만 주제별 콘텐츠를 개발, 그 시기를 전근대특징사례로 포함하면 부산여성의 삶을 더 역사적으로 부각 가능. 예로 여성과 노동에서 '수영농청놀이' '좌수영어방놀이' '다대포후리소리' 등의 노동요에 여성의 고단한 삶과 넋두리가 담긴 내용 있음. 부산 여성들은 근대 이전부터 집안 일 뿐만 아니라 농사/어업활동에 참여,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지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옴. 따라서 주제 내에서 인물, 지역문화를 부각하는 전근대사회의 사료도 포함하면 전시확대 가능

구분	컨설팅 세부내용
역사적 자료수집의 장기화, 지속성 고려하여 중요한 사료 수집도 포함	역사적 사료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수집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중요한 사료를 배제하지 말고 포함한 수집 필요
기획전시 콘텐츠에 대한 방향 설정 후 부합하는 자료수집 가능	기획전시는 이슈에 따라 시기별로 하니 현재 제시해 놓은 것처럼 중요한 몇 개 설정하고 그에 맞게 자료수집 가능.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방역과 여성을 다루었듯이 이슈는 새롭게 발굴가능하므로 상설전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선정, 부가적으로 다양한 설정 가능하므로 콘텐츠를 초기에 한정하지 말고 방향 결정 필요
미래 지향성을 추구하는 전시콘텐츠 구상 위해 부산을 넘어 한국과 지구여성사를 아우르는 새로운 장 구축 필요	전시콘텐츠가 모두 부산의 것에 집중되어 있어 미래 지향적이지 않고 역사에도 부합하지 못함. 한국과 같은 오랜 중앙집권국가에서 더욱이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사회에서 한국과 지역은 공통점이 많음. 이런 면에서 한국으로 시선을 확장하되, 근대 이후 새로운 문물이 서구에서 들어왔고 미래에는 지구의 모든 여성과 연대하는 미래 지향성을 고려하여 한국과 지구여성사라는 큰 파노라마/풍경이 각기 독립된 전시콘텐츠로 발굴되길 기대함. 지나치게 부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기 폐쇄적이면서 부산이 국경을 넘어 연대, 고민해야 하는 전지구적 미래와 궤를 못하는 것 같아 염려됨. 한국 전반과 지구여성사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장 구축을 기대
보편적인 전시콘텐츠로서 '불평등과 차이'의 장 구성을 제안	'불평등과 차이'의 장 구성도 필요. 여성의 장에 남성이 빠졌다는 인상을 주는 데 '불평등과 차이'라기 보다 보편적인 장으로 각종 전시콘텐츠의 마무리 장을 배치할 것을 권유
여성영웅 만들기에서 벗어나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남성 관련 전시콘텐츠도 다루는 획기적 시도 필요	여성과 운동의 다양한 층위 재현 필요. 거창한 사례 제시는 여성영웅 만들기로 귀결될 가능성 큼. 법/제도를 만들고 활용한 노력과 동향 등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선구적인 남성 발굴도 필요. 즉 여성의 삶의 고양을 위한 각별한 노력/성과를 거둔 남성들도 전시콘텐츠에 다루는 과감한 시도를 기대

(2)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에서는 첫째, 준비, 실행, 운영 등 3단계의 전시관 설립 기본계획 혹은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유물 등 전시자료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은 전시관 운영의 핵심에 해당한다. 이에 자료 수집계획을 토대로 한 아카이브 구축 절차는 자료수집, 자료의 현장정리, 자료분류, 자료업로드 및 보관 등의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와 전시관 설치 준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집자료에 대한 감정평가와 정식 수장고가 힘들다면 임

시 수장고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기관 내 '여성사와 아카이브 연구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시를 위해서는 유물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여성사와 아카이브 연구소'를 구성해 대학연구소와 협업하여 정기학술대회 개최 등도 한 가지 방안이다.

넷째, 전시관 운영주체가 확정된 이후에는 유물기증위원회 구성을 통해 유물 기증 및 구입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전시를 통해 전시자와 관람객간 상호 작용이 가능하며 관람객의 자발적 평가가 가능하다.

여섯째, 관람객의 상상력 자극을 위해 전시기법이 아닌, 발상에 주안점을 두고 부산여성의 미완성 꿈을 재발굴하고 기억하되 비판적 재현 작업이 필요하다.

일곱째,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한 연구위원회 형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여성사전시관 설치를 위한 연구위원회 형식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지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는 '부산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협의회(가칭)' 등을 구성해서 유물기증운동 진행도 가능하다. 위원회를 통해서는 단기적인 과제로 전시관 설립을 위한 심포지움과 콜로키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가변적인 전시공간 구성 및 특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전시관 설계단계부터 도면작업에 참여하여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즉 전시공간을 가변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처음 설계단계부터 세밀하게 구성하며, 전시공간은 항온 항습 설비를 갖춘 전시관 수장고 등의 특수공간 확보가 중요하므로 전시관 설계단계에서 이런 특수사항을 도면에 넣어야만 소모적인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세부 컨설팅 내용은 <표 Ⅲ-32>와 같다.

<표 Ⅲ-32>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

구분	컨설팅 세부내용
임시 수장고 필요	수장고가 확보가 중요하나 현재는 불가하므로 임시 수장고 마련 후 자료수집 진행 필요. 임시수장고는 공공 수장고 이용가능하나, 기관간 업무협약 필요. 발간물 경우에도 자료적 가치 평가 후 카드에 기록, 항온/항습기기가 설치된 수장고에 보관 필수. 이 일을 위한 전담자 필요
수집자료 감정 평가 등 상세한 전시자료 수집계획 통한 자료 수립 필요	자문회의 통해 자료수집 대상/시기/범위 등 설정 후 수집 가능. 전시자료는 기증을 전제. 상황 따라 구매도 가능하나 예산확보 우선. 국내박물관(전시관)에서 자료수집 방법이 추진 중이므로 참고. 수집자료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위원(자료 분야별)이 위촉 필요. 감정평가 시기/결과/기증자 예우방법 등 관련내용 반영 필요. 마을단위로 자료수집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이 있음. 자료수집 단계를 전시관 개관 전후로 구분, 개관 이전에는 부피작은 자료를, 개관 후에는 부피에 상관없이 수집하는 방법 고려
전시관 개관 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담인력 배치 필요	전시관 개관 전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전시기획/학예 인력 채용 필요. 전문인력 중심으로 자료수집계획, 전시관 설계, 운영방향 등 업무 분장 필요. 이런 시스템 없이는 전시관 개관 후 단점 많음. 여성사 전시관도 건립계획 단계부터 기획자들이 참여, 개관 후까지 운영하는 모범사례 방식 필요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관련 기관 담당자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 필요. 부산시 공공박물관과 일부 민간 전시관과 협력체계 마련 필요
유물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에서 일상 모습 재현 가능한 자료수집 필요	유물과 아카이브 구축은 과거의 신문/잡지/영화/광고 등에 나타난 일상모습을 재현하는 것들로 수집 필요. 예로 재개발되지 않은 동네 특히 수정아파트 등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물건들 수집 필요. 그 안에는 가족공동체의 통과의례의 각 시기별 유물 수집 필요
자녀 및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의 생활과 문화 전시(재현) 필요	여성 의복/살림살이 등, 자녀의 교복/문방구/통장 등 넓은 차원에서의 자료수집 필요. 남성의 사회생활을 뒷바라지한 당시 모습 재현 가능한 남성물품 수집도 필요(남성의 일상과 연계한 여성 전시물 재현 필요)
과거와 현재 비교 전시 통해 전시자와 관람객간 상호 작용 및 관람객의 자발적 평가 가능	현재 한부모가족/비혼1인가구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물품수집 후 과거 모습과 대비/비교가능한 전시 필요. 이런 방향의 전시는 관람객에게 보여주고 교육하는 일방적 시각이 아닌, 관람객 스스로 비교/평가 가능한 전시임
준비/실행/운영 등 3단계의 전시관 설립 위한 실행계획 수립	준비단계 : 전시관설립 기획으로 장소/규모 등 기본계획 수립, 전시방법, 운영방법, 전시수집 시기/보관장소/운영주체 및 담당인력 등을 준비하는 단계 실행단계 : 전시준비단계를 바탕으로 전시관 건립 공사, 전시실 구성(설계, 공사 등), 운영조직 구성 등 전시관 개관을 위한 단계 운영단계 : 전시관 완성 후 개관, 기 구성된 인력으로 전시관 운영하는 단계
전시자료 및 유물 수집	전시자료/유물 수집은 첫째, 일반시민들로부터 무상 기증방법. 언론이나 관련기관에 홍보/수집 가능하며, 수집의 종류/범위 등 명확성 중요. 둘째, 예산확보 통한 구입. 유물 수집 후 보관장소 필요. 수집 후 둘 곳이 없다면 문제임. 보관장소의 기능이 유물보관 장소로 가능여부 검토
폐쇄가 아닌 개방적 장소로 전시관 구성	전시관 내부시설 규모, 상설/기획 전시실, 수장고, 커뮤니티공간 등이 적정규모로 확보 필요.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편익시설 배치 등 전시관의 폐쇄성 배제, 개방적 장소로 기능

구분	컨설팅 세부내용
집단 존재로서의 부산여성(아줌마) 재현 가능	집합적인 존재로서의 부산아줌마 재현 가능. 기존의 '민중' 관점 재도입이 아님. 예로 억척스런 '자갈치 아지매' 부각은 또 하나의 영웅사관일 수 있음. 뻔한 스테레오타입의 인간상이 아닌 집합적인 존재, 억척스럽게 삶을 개척하려 했으나 좌절 혹은 황금만능 사회에 포섭, 그럼에도 그들의 자취를 우리의 집단기억에 남긴 인간유형의 형상화를 의미. 바로 이것이 스토리텔링임
부산의 지역적 가치 속에서 여성 존재 발굴 필요	장기이슈콘텐츠로 "부산의 지역 가치와 한국여성사에서 부산여성의 삶과 활동"을 강조하고 있음, 먼저 부산의 지역 가치에 대한 재고 필요. 유념해야할 것은 부산은 지리적으로 바다에 면해있지 해양도시가 아님. 이는 자립적인 해양문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외부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된 부산의 과거에서 비롯. 부산적 가치는 단지 해양이 아니라 일제식민지 전초기지 및 임시수도, 대한민국 산업의 전초기지였던 파란만장한 과거에서 발굴해 그 속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였는지 되새겨보는 사건과 계급적/직업적/지역적 인간유형 발굴 필요
관람객의 상상력 자극을 위해 전시기법이 아닌, 발상에 주안점을 두고, 부산여성의 미완성 꿈을 재발굴/기억/비판적 재현 작업 필요	여러 차원에서 제시된 상설전시의 주제별 배분 적절. 다만 뻔한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날 필요 있음. 특히 미래 세대 전시 및 복합문화 창출의 전시콘텐츠 발굴 위해 명망가의 부각이 아닌 과거를 생생히 들여다보게 해주는 인간유형의 재현에 주안점 둘 것. 집안에서 사생활에 매몰되었던 여성들, 아파트 복부인 등. 최민식의 사진도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과 결부될 때 전시효과 발휘 가능. 미화되지 않고 정말 실제했던 여인들, 그들이 이루려고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꿈을 재발굴, 기억,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작업이 '미래 세대 전시 및 복합문화 창출의 전시콘텐츠'가 됨. 관람객의 상상력 발동은 전시기법이 아니라 발상이 우선
전시관의 유물 및 전시자료 준비	첫째, 전시 유물, 전시용 물건, 경험이 쌓인 물증과 기억의 확보 위해 핵심조사 필수. 전시용 물건을 긴급 구입하는 방식 지양, 부산여성들의 소장유물을 조사, 목록화해 이들로부터 기증/기탁 받는 방식 권장. 여성들의 손때가 묻은 물증/기억이 담긴 물건의 확보 위해 이야기 수집 필요. 현재, 무형문화연구원이 수행 중인 <완주지역 근현대생활사자료 수집 목록>을 참고 가능. 현재 무형문화연구원에서는 생활사/생애사 관련 물증자료를 기초/상세 목록으로 나눠 조사. 주민들의 소장자료를 기증/기탁 형식으로 확보. 최근 많은 박물관들이 전시에 임박해 필요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 많은데, 이럴 때 물건/물증/ 유물간 맥락이 없고, 이야기가 빠진 채, 생명력도 문화도 없는 그런 물건으로 전시되고 있음
아카이브 구축 절차 : 자료수집→자료의 현장정리→자료분류→자료업로드 및 보관	자료의 아카이브는 자료수집 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자료수집가와 연구자가 반드시 아카이브 구축에 동참하여 자료수집/분석/정리 등 아카이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예산/시간의 한계로 제대로 자료 아카이빙이 되지 못하는 현실임. 무형문화연구원에서는 현장의 자료수집(면담, 유물수집, 건축물조사 등)→자료의 현장정리(구술자면담카드 작성, 녹취록 작성, 자료의 메타데이터 작성)→자료분류(영상, 사진, 음성, 문서자료 분류 및 아카이브화. 아카이브는 실물/디지털 두 트랙으로 정리)→자료 업로드/보관. 이 과정을 자료성격을 정확하게 파악가능한 조사자들이 하고 있음. 기록관리자(?)들의 경우 자료의 맥락/성격을 잘 모르는 채, 주어진 형식대로만 정리하기에 전시를 위한 영감을 제공하지 못함. 따라서 기록을 정리/관리하는 사람은 최소 인원이면 충분함. 대신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 자료 수집/발굴/분류/분석해야 함

구분	컨설팅 세부내용
단계별 준비로 예산확보가 우선이며, 전시관 설치추진위원회 운영 적절	예산 확보가 우선.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추진위원회 운영 적절.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통해 전시관 설치에 실제 적용 및 실천 가능. 학술심포지움 개최로 방향/내용 모색 가능. 부산지역 대학 내 여성연구소와의 연계도 적절
유물 수집 세부계획 수립 및 언론, 행정기관과 연계 협력 필요	여성의 역사문화 관련 유물의 범위를 우선 선정 후,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계획 수립 필요. 유물 수집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하므로 매스미디어 활용, 각 구청 등 지자체와 연계 홍보/안내 등 지속적 협력방안 필요. 또한 웹(web)과 앱(app)의 실시간 연동을 통한 안내도 하나의 방법임. 관련 전문가 활용한 유물조사 및 유물수집 내용의 구체적 작성 등 필요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필요	공론화 위한 공청회 실시, 추진위원회 구성과 중장기계획 수립, 역사문화 발굴 등 현장작업 위한 연구진 구성 등을 계획 중인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예산 부족 시 대안 마련도 필요
단기적인 과제로 전시관 설립 위한 심포지움/콜로키움 지속 실시	전시관 설치가 바로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여성사전시관 설립 위한 심포지엄/콜로키움 등 작은 규모의 학술행사를 내외부에서 지속 실시 필요. 부산의 경우 여성사 관련 사업이 2011년 부산여성사 연구 후 별다른 사업이 없었기에 빈 공간이 많아 어려운 점 발생이 추정됨. 다른 지역 사례를 통해 꼼꼼한 일 추진 필요
가변적인 전시공간 구성 및 특수사항 반영 위해 전시관 설계단계부터 도면작업에 반영 필요	전시공간을 가변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처음 설계단계부터 세밀하게 구성 필요. 전시공간은 특수공간(항온 항습 설비를 갖춘 전시관 수장고 등) 확보가 중요하므로 전시관 설계단계에서 이런 특수사항을 도면에 넣어야만 소모적인 추가 비용의 절감 가능
전시관 운영주체의 확정 후 유물기증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유물의 기증 및 구입 절차 적용	전시주제가 정해지면 유물 확보가 필수인데, 장기적 시간 필요. 전시관 설립이 모호한 상태에서 유물 수집 시 주체의 불분명으로 기증에 한계 발생. 이에 전문인력 투입, 콘텐츠 관련 자료의 우선 확보작업 추진 필요. 전시관 설립의 확정 후 유물의 구입/기증 방식이 일의 순서임. 국립여성사전시관의 경우와 같이 유물기증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논의 필요. 이 경우 유물수집의 경험을 가진 박물관 전문가의 조언 필요. 유물 기증은 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전시관 홍보 기능의 중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지역/주제별 연계한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가능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은 부산 여성다움, 부산여성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임. 주제별/지역별 분류 가능. 부산의 중심지를 근거로 노동운동 현장(범일동 일대 조선방직공장, 초읍 등 서면인근의 고무공장, 신발공장 현장), 여성들의 항일운동 현장(좌천동의 일신여학교 3.1운동 선도지역, 여성단체의 설립/활동한 초량/동래 등), 부산 여성상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자갈치/국제 시장, 여성노동의 현장 깡깡이 마을(영도) 등 다양화 필요. 여성관련 사항을 부산지역 지도로 표시하는 사업 필요. 2019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역량강화사업으로 '여성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 걷다'는 지도가 부산여성단체연합에 의해 만들어짐. 이런 사업을 통해 여성단체와 연계, 부산여성사의 대중화, 관광자원화 방안도 가능
중장기 계획 및 연구진 구성이 우선	전시관 설립이 당장 어려운 경우, 공모 통해 여성사전시관 관련 다양한 주제 선정/연구하는 방식으로 전시관 설립 추진 필요. 중요한 것은 중장기 계획과 연구진 구성

구분	컨설팅 세부내용
부산여성사 전시관의 주무부서에 따른 장단점 분석 필요	국립여성사박물관 사업추진에서 주무부서에 따라 사업추진의 장단점 차이를 분석 중. 부산여성사 전시관 건립추진에서도 문화체육국/여성가족국 중 어느 부서가 건립/유지 관리국이 될지 검토 필요. 자료수집은 전시관 건립 이전부터 수집/보관 필요하므로 박물관/미술관과 협력체계 구축해서 수집/보관 방안 마련 필요
주제 상정→전시기법 고려→유물수집 절차가 이상적이나, 현실적 한계 고려해 대략의 구도 설정 후 유물수집 시작 필요	절차 상 주제 상정→ 전시기법 고려→유물수집이 이상적이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게 현실임. 유물수집 규모도 예측 힘들기에 가능한 전시기법을 동원하여 유물없는 주제라도 충실하게 재현방안 모색 필요. 대략적 구도 상정 후 유물수집을 선행해야 함
여성사전시관 설치 위한 연구위원회 형식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지표로 심도있는 논의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사전시관 전체 방향/주제 설정 후 미래를 끌어갈 위원회 구성이 우선임. 새로운 상상력과 미래 방향을 끌어갈 위원회 결성→전체 방향 설정→각 주제별 나누어 심도있는 논의가 성공의 관건. 위원회가 단순히 추인하는 것이 아닌 연구위원회 형식으로 주제 설정과 미래 이념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표를 뚜렷하게 해야 함
기증 및 직접조사 위해 담당실무자와 유경험자간 소통 통한 방안 공유 필요	명망 있는 분들 대상 각종 기록물의 기증 위한 설득과 권유를, 드러나지 않을 대상은 직접조사 필요. 담당 실무자들은 유경험자와의 대화 통해 좋은 방안의 공유 필요
디지털화된 아카이브 구축 필요 및 플랫폼의 선행모델 조사/연구로 기존 박물관/전시관과의 차등화 방향 설정	아카이브 구축 등은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은 역사 민족지적인 조망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한 유물 보관/전시가 아닌 철저하게 디지털화 필요. 나아가 이를 위한 플랫폼의 선행모델을 집중 조사, 연구하여 이들의 견해를 충실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개념으로 나갈 것을 권유. 박물관/기록관과의 차등화 방향 설정 필요
여성가족개발원 내에 '여성사와 아카이브 연구소' 구성하여, 대학연구소와 협업, 정기학술대회 개최 제안	대학과 연계는 중요한데, 두 대학 여성연구소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여부 검토 필요. 통상 소장이 바뀌면 장기간의 작업에 한계 발생이 한국 대학의 현실이기 때문. 뜻은 좋지만 어려운 과제이므로 차라리 여성가족개발원에 가칭 "여성사와 아카이브 연구소" 구성을 제안. 정기학술의 장을 1년 단위로 대학연구소가 돌아가며 기획, 주관하는 방식으로 협업 제안

(3) 향후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후 보존(아카이빙), 전시방향

향후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후 보존(아카이빙), 전시방향에서는 첫째, 부산여성사 전시관의 철학을 담은 전시방향 설정을 통해 기존 박물관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시콘텐츠와 전시설치간 내용과 형식의 조화가 필요하다. 현재 예상되는 좁은 전시관 규모에서 근대이후 중심의 전시가 적절하며, 상설전시 주제는 부산여성의 특수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시내용물 구상이 선행된 후 내용에 부합하는 전시관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양질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질이 담보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아카이브 구축은 자료수집, 정리, 분류, 분석, 전시까지의 통합적인 구조설계가 필요하다. 실물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서 고가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은 필요하지 않다.

넷째, 자료수집, 수장고 관리,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독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수장고는 제습 및 항온 시스템을 겸비해야 하며, 유물 등 전시 보안문제 감안한 유리 전시대 등의 구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과제 추진을 위한 감독시스템 도입 또한 필요하다. 수장고 유물에 대한 표준유물전산화 시스템 운영을 중앙박물관에서 선도하고 있으며 별도 비용 없이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기록원 등에서 제공하는 아카이브 작업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세부 컨설팅 내용은 <표 Ⅲ-33>과 같다.

<표 Ⅲ-33> 향후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후 보존(아카이빙), 전시방향

구분	컨설팅 세부내용
자료수집 절차에 따른 기록 및 예산확보	자료수집 단계부터 절차에 따라 기록요. 소장유물(문헌자료 포함) 축적되면 자료를 전시관 자료실에서 확인가능하도록 제작/탑재. 자료수집 단계부터 저작권/저작물 이용 권한 등 공공목적으로는 무료사용 가능하도록 시민대상 서비스 제공. 소장유물의 성격에 따라 아카이빙 시, 기기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예산책정 필요. 예로 여성사의 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 있다면 이를 디지털화하는데 기술 필요
주제별 전시 및 전시방법의 디지털화	전시방향은 주제별 전시방향이 적절. 단 주제별에서 사건별 단면만 보여주는 단점이 있으므로 전시관 도입부에 종합적 내용이 반영된 연표를 보여주고, 각론으로 유도하는 방법 적절. 학예사가 미리 채용된다면 전시공간 구성 시 전시 재료 제안 필요. 즉 문헌자료와 물품에 따라 일반/쇼케이스 전시가 가능한데, 쇼케이스 규모 등도 반영 필요.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전시방법은 고전적 방법으로, 수집콘텐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 이용객이 누구인지 고려 필요. 최근 디지털 전시가 활발해지고 있어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고려 필요
공공박물관과의 차별화 방안 마련	부산지역 공공박물관 운영방법 참고, 차별화방안 마련. 어린이/청소년 방문 유도 시, 취향고려 필요, 단순히 부산여성의 역사성/공동체문화 전달에 초점둔다면 현재의 방법도 가능
유물/작품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시방식	전시방법은 역사적 사건/인물에 대한 해설(스토리텔링)보다 유물/작품 자체를 보여주는 방식이 적절. 박물관 장소 그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기 때문임. 역사적 사건을 정하는 것, 사건/인물의 선정/해석/전시 과정에 특정이념이 권력기제로 작동 가능. 어떤 전시라도 시각/관점의 권력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컨설팅 세부내용
열린 공간으로서의 다목적룸 설치	박물관 내 필요공간 중 하나가 시민들이 사용가능한 회의실/연구실 혹은 다목적룸임. 박물관이 단순히 원래목적인 전시관으로만 사용되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음. 전시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필요 시 회의/세미나 열 수 있는 공간 구비로 시설 이용 시 동시에 여성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로 일석이조의 효과 가능
부산여성사 전시관의 철학을 담은 전시방향 및 디지털화된 전시방법 필요	전시방향은 부산여성사전시관의 철학을 표현 가능한 방향 필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수렴 필요. 현재의 비대면 사회에 따른 대비 필요. 제4차 산업 발달로 디지털문화, SNS 등 격동의 상황에 전시관의 전시/교육 기법 등 준비 필요
배분공간에 부합하는 자료수집 작업	현재 주어진 면적이 약 162~268평 정도, 어떤 공간들이 들어가는지 파악 필요. 상설/기획 전시실, 수장고, 아카이빙 자료실, 도서실, 교육 공간, 사무실, 화장실 등 전시관에 필요공간 배치 시 각 공간의 규모 고려하여 공간 배분과 공간에 맞게 자료수집 필요
전시내용물 구상이 선행된 후, 내용에 부합하는 전시관 설계	전시관은 건축 후 내용물을 채울 것이 아니라, 내용물을 전제한 후 부합하는 건축설계 필요. 건축물의 구조와 전시공간의 조응 필요. 전시기법에서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공감 유도방식 도입 필요. 미국 애틀랜타시의 The National Center for Civil and Human Rights (NCCHR)선례 참조 가능. 브로드웨이 연출가를 수석큐레이터로 초빙, 퍼포먼스모델의 전시 시도, 관람객이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옛 이야기를 퍼포먼스적으로 재현, 공감 불러일으킴. 전시를 염두에 두지 않은 건물 위주의 전시관은 지양
아카이브 구축은 자료수집/정리/분류/분석/전시까지의 통합적인 구조설계 필요	자료 수집~보관까지 하나의 통합구조임. 바르게 정리, 분류, 분석한 자료를 전시/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 급선무
실물/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서 고가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은 불필요	아카이브구축은 실물(기록보전실/유물저장고)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분. 디지털아카이브의 IT기술자(DB구축 등)에 의한 점유방법 지양 필요. 빅데이터시대 서버구축에 억단위 예산 불필요, 저렴한 클라우드로 infrastructure구축 가능. 서버구축의 서버구입비가 불필요한 시대가 됨
질 담보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필요	자료관 구축 관련 장기계획 필요. 수집/유지에 큰 비용 필요하므로 예산/인력 확보의 지속성이 관건. 한꺼번에 아카이브구축 위해 몇 십억 투입은 금물. 대신 매년 2억씩 10년 투입해야 질적으로 좋은 아카이브 구축 가능, 활용도 높은 자료 구축 위한 장기계획 필요
전시관 운영 위한 지속적 예산 책정	전시관 설치가 당면과제이나, 설치후 보존/상설 및 기획 전시의 지속 운영이 중요한 작업이므로 전시관 운영 위한 지속적 예산 책정 필요. 유물 전시와 더불어 제시된 복합문화 창출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지속 필요. 학술회의/전문가 자문 등 통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필요
부산 지역과 부산 여성이 연결된 관계 속에서 부산여성사 전시방향 설정	부산여성사 전시관이 부산여성을 단독으로 구분하여 놓는 것이 아니라, 항구도시 부산의 지역성을 반영, 중앙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부산여성이 자리매김되는 전시방향 구상 필요. 부산여성의 역사문화에 집중하되 이것이 부산지역, 나아가 전체와 연결 필요. 항구도시/여성 또는 둘의 결합으로서 부산여성이라는 방향 설정
전시 콘텐츠와 전시 설치간 내용과 형식의 조화 필요	전시 콘텐츠 개발/선정은 여성사 전문가의 몫. 전시설치는 전시전문가의 몫이되, 콘텐츠 전달에 훼손됨이 없어야 하며, 내용/형식이 조화롭게 맞춰진 전시 필요

구분	컨설팅 세부내용
현재의 좁은 전시관 규모에서 근대 이후 중심의 전시가 적절	현재의 좁은 공간에서 전시 시 어떤 전시가 효과적인지 검토 필요. 전체시대를 전시(국립여성사전시관,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타) 근대이후의 전시(전남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등. 좁은 공간에서는 근대이후의 주제중심이 적절. 전시관 박물관은 수장고가 중요한데 현재의 162평 정도의 전시관에 수장고 설치 여부
상설전시의 주제는 부산여성의 특수성 부각 필요	상설전시 주제는 부산여성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내용이 적합. 상설전시는 전형적 전시방법, 기획전시는 이슈 중심(미투운동, 여성혐오문제, 영페미니스트들의 관심사 등 시의에 맞는 주제까지도 이끌어 내어 부산지역 여성운동/연구에도 일조하는 작업 필요)
자료, 유물, 사진, 신문기사, 증언 녹음 등 활용 가능, 스토리텔링은 미화/과장 없는 사실에 근거	기본적으로 자료/유물, 사진/신문기사 전시가 일반적.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필요. 스토리텔링은 주요사항에 한해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흥미 유도로 미화/과장 설명이 종종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음
관람객의 선호도를 고려한 입체적인 유물/작품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필요	콘텐츠의 종류로 유물보다는 문헌/사진자료에 의존 가능해보임. 예술관 운영경험 상, 관람객들은 문헌자료보다는 입체적인 작품/유물을 보는 것을, 전시자료 내용은 해설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을 선호하는 편. 여성사전시관에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유물의 수집/전시가 이루어질 필요 있음
제습/항온 시스템 겸비한 수장고 필요	자료의 수집/보관에서 수장고 중요. 제습/항온유지 등의 시스템 겸비와 자료의 종류/형태에 따른 보관방식의 다양화 필수. 아카이브 구축 위한 구체적인 수장고 시설이 매우 중요하며, 담당부서에서의 지속적인 보관/관리를 위한 예산 마련이 필수
유물/전시 보안문제 감안한 유리 전시대 구비 필요	기획전시 시 전시자료를 담는 전시대가 고가이며, 유리 전시대는 한번 만들면 이동 불가. 전시대 부재 시에 유물/작품의 보안문제 발생하므로 검토 필요
작업별 소요기간에 따른 층위 구분 후 설계 필요	제안된 전시방안은 일반적 수준이며 잡다한 열거방식의 가능성 큼. 아카이브 구축 등은 장기간 소요되고 주위의 부족한 이해에도 반드시 추진 필요. 작업의 소요기간에 따른 다양한 층위 설정 후 설계 필요
복잡한 과제 추진 위한 감독시스템 도입 필요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많은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감독시스템 도입 권유

(4) 기타 사항

그 외 컨설팅 내용은 첫째, 명칭은 부산여성사 전시관이 아닌 부산여성사 박물관이 더 적절해 보인다. 본 연구의 내용에 전시콘텐츠, 인물 및 장소의 발굴,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행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추세를 파악하여 반영했기 때문에 박물관 명칭이 더 적절하다. 둘째, 전시관의 장소 및 규모 확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럴 때 규모에 맞는 공간구성이 가능하다. 셋째, 플랫폼 기능으로서의 여성사 전시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권

여성의 역사와 문화 비교 전시도 가능해 보인다. 넷째, 부산지역사와 여성사(성 인지성)간의 균형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시의 생명력은 전시의 결과물이 아닌 전시의 진행과정이며 전시관의 주요기능으로 전시대상, 전시주체, 관람객간 상호교류의 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섯째, 아카이브 구축의 핵심은 자료수집의 지속성, 활용성 높은 기획력, 고도의 자료검증 시스템임을 인식하고 실행해야 한다. 일곱째, 전문 인력 확보,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행정적 지원 확보, 젊은층과 소통 등이 필요하다. 유물 확보를 통한 전문 전시관 구축을 위해 전문가, 학예사 등 전문 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세부 컨설팅 내용은 <표 Ⅲ-34>와 같다.

<표 Ⅲ-34> 기타 의견

구분	컨설팅 세부내용
부산여성사전시관에서 부산여성사박물관으로 명칭 고려 필요	본 연구의 내용에 전시콘텐츠, 인물 및 장소의 발굴,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행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추세를 파악하여 반영했기 때문에 박물관 명칭이 더 적절
전시관 운영방향(직영/위탁)	전시관 부지는 확정, 건립후 부산시 직영/타 기관 위탁 여부에 따라 운영방향에 변화 가능. 우선 전문인력(전시기획자, 학예사 등) 채용 선행 필요하며, 전공분야 고려 필요. 여성사전시관에는 역사전공자 중심으로 채용 가능
기획전시관 운영방안	기획전시관 콘텐츠/방향 관련 치밀한 계획은 불필요. 기획전시는 상설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콘텐츠를 연2-3회 소장자료중심 전시 가능. 전시관성격에 맞게 국내외 프로그램 유치/전시 가능. 시민들의 요구 반영, 적절한 전시도 가능
플랫폼 기능으로서의 여성사 전시관	부산시 공공박물관의 성격 고려, 중복콘텐츠 있을 경우 여성사전시관에서는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해주는 관점의 전시 필요. 여성사전시관이지만 여성생활문화사 박물관이 없다면 이 전시관에서는 이 기능까지 담당 필요. 여성사전시관이 부산지역 여성들의 플랫폼 역할 가능
아시아권 여성역사/문화 비교 전시	한국 이외의 아시아 주요국가(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여성 위치/문화/특정 주제와 비교/전시 도입 가능. 예로 인도의 사띠(sati. 과부 순장), 중동지역의 히잡 문화 등을 우리 문화와의 유사점/차이점 설명 등으로 여성의 보편성에 대해 이해 가능
남녀간 존중의 휴머니즘 발현 공간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의 주요주제는 여성의 가정으로부터 해방, 남성으로부터 독립이 아닌 남녀간 사랑/존중 통한 휴머니즘 발현공간의 가능
전시관의 장소 및 규모 확정이 우선 - 규모에 맞는 공간 구성 가능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장소/규모 확정 후, 규모에 맞는 공간 구성 가능. 만약 본 과제 수행기관에서 장소/규모 정할 수 있다면, 정해서 그에 맞게 전시관 구성/예산 편성 가능

구분	컨설팅 세부내용
전시관 내 상설/기획 전시실이 적절한 표현	하나의 전시관 안에 상설/기획 전시가 구성된다면 상설/기획 전시실 표현이 적절
전시기법보다 중심가치가 우선	핵심은 기법이 아닌 '중심가치'임. '왜 부산의 여성사인가'에 대해 억지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설득될 수 있을만한 가치 발굴 필요
여성성에 대한 탐구 필요	실제했던 여성들의 경험을 퍼포먼스적 재현과 공감가능한 전시 위해서는 인간유형 및 여성성에 대한 세심한 탐구 선행 필요
전시주체의 관점 중요 : 부산지역사와 여성사(성인지성)간의 균형적인 관점 필요	전시컨셉을 위해서는 부산지역사와 여성사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 필요. 전시는 전시주체의 관점이 명확해야 통일성 갖춘 한편의 작품으로 완성됨. 지역사 관점이 약하고, 성인지적 관점만의 부각은 기본은 될 수 있지만 관점의 구체성은 떨어짐
전시관의 주요기능으로 전시대상/전시주체/관람객 간 상호교류의 장으로의 인식 필요, 전시의 생명력은 전시의 결과물이 아닌 전시의 진행과정	자료의 발굴, 수집, 전시,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을 전시관의 주요기능으로 볼 수 있지만, 앞서 전시관이 접촉지대(contact zone)로서 전시대상자/전시주체/관람객간 상호 교류하는 장이라는 인식 필요. 이러한 인식에서 결과물로서의 전시가 아니라, 진행과정으로서의 전시로서 생명력을 가지게 됨
아카이브 구축의 핵심은 자료수집의 지속성, 활용성 높은 기획, 고도의 자료검증시스템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이해 필요. 아카이브의 생명은 지속적인 자료수집, 활용성 높은 기획,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기록관으로 남기 위한 수준 높은 자료검증시스템 작동 필요
전문 인력 확보,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통한 행정적 지원 확보	유물 확보를 통한 전문전시관 구축을 위해 전문가, 학예사 등 전문 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필요. 박물관으로서 형태 갖춰질 경우, 한국박물관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학예사 인력 활용비용 150~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는 시의적절, 행정적 지원 위한 충분한 논의 필요	부산여성사 전시관은 메트로폴리탄 부산규모 고려할 때 늦은 편이지만, 현재 남녀에 대한 견해가 반목 또는 공존하는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어 시의적절함. 전시관 설치작업은 어렵지만, 설치 후 시행·운영에 지속적인 연구/노력 요구됨. 행정적 뒷받침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의미있는 부산여성의 정체성 조명과 미래의 부산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설치를 기대
20~30대 젊은층과의 소통 통한 대중성 확보 필요	젊은이들과의 소통 없이 대중성 담보는 힘들기에 이 점 보완 필요
전문인력 확보 통한 여성사전시관 사업추진 필요	여성사전시관 사업진행은 전문인력 충원없이는 현실적 한계 있음. 이것이 어려우면 여성사전시관 설립주제를 계속사업으로 다룰 필요 있음
유물 확보를 통한 전문전시관의 구축 위해 전문가, 학예사 등 네트워크 필요	전문박물관 구성을 위해 유물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조언, 부산의 박물관 학예사와 네트워킹, 각 지역의 여성사전시관 책임자와 소통 필요
좋은 콘텐츠. 접근성, 특이한 체험프로그램 등 제공 필요	여성사전시관은 사료나 유물의 전시관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방문객들을 많이 오게 하는 게 중요.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좋은 콘텐츠, 접근성, 평소 경험해보지 못하는 특이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중요
초기 설계단계에서 비대면 대응체계 구축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 비대면 전시회, 체험 등이 활성화. 초기 설계단계에서 비대면에 대응 가능한 체계 필요

4. 소결 및 시사점

1) 전문가의견조사 소결

(1) 전시관 구성 중요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상설전시_기억의 공간]은 5점 기준에서 평균 4.78점으로, 96.4%(대체로 중요 12.7%+매우 중요 83.6%)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전시_역동의 공간]은 평균 4.62점으로, 98.2%가 중요한 것은 나타났다. [미래 세대 전시_도약의 공간]은 평균 4.24점으로, 83.6%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문화 창출_W-culture 공간]은 평균 4.13점으로, 74.5%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존관리_아카이브 공간]은 4.85점으로, 100.0%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세부전시 공간별 콘텐츠 발굴 및 구성에 관한 질문

○ [상설 전시_기억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부산여성의 시대적 삶과 활동의 주요변천사]는 5점 기준에서 평균 4.42점으로, 85.5%(대체로 적절 23.6%+매우 적절 61.8%)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민족운동]은 평균 4.31점으로, 85.5%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전쟁]은 평균 4.25점으로, 89.1%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항구(바다)]는 4.51점으로, 94.5%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노동]은 4.65점으로, 96.4%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교육]은 4.38점으로, 89.1%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문화]는 4.25점으로, 87.3%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민주화)운동]은 4.36점으로, 90.9%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별 개별인물 조명]은 3.87점으로, 63.6%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획 전시_역동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주제별 기획전시]는 5점 기준에서 평균 4.55점으로, 94.5%(대체로 적절

30.9%+매우 적절 63.6%)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성평등문화 확산 위한 전시]는 평균 4.27점으로, 81.8%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주의 작가, 예술가 작품 전시]는 평균 4.09점으로, 78.2%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이미지 부각 전시]는 평균 4.04점으로, 67.3%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명 역사인물 기획전시]는 평균 4.20점으로, 83.6%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 세대 전시_도약의 공간] 콘텐츠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교육공간]은 5점 기준에서 평균 4.15점으로, 74.5%(대체로 적절 34.5%+매우 적절 40.0%)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록코너]는 평균 4.33점으로, 80.0%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물지도 만들기 체험]은 평균 3.87점으로, 72.7%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여성 역사문화 홍보물 만들기 체험]은 평균 3.80점으로, 65.5%가 적절한 것으로, [탐방프로그램 만들기 체험]은 평균 4.24점으로, 81.8%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합문화 창출_W-culture 공간] 콘텐츠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무명 예술가 및 활동가들의 작품 전시]는 5점 기준에서 평균 4.16점으로, 76.4%(대체로 적절 36.4%+매우 적절 40.4%)가 적절한 것으로, [다양한 영역의 활동 주인공 소개]는 평균 4.02점으로, 76.4%가 적절한 것으로, [문화창출의 오픈 스페이스 운영]은 평균 4.25점으로, 85.5%가 적절한 것으로, [소통한마당]은 4.36점으로, 90.0%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시방법(안)에 관한 질문

○ 전시방법 적절도에 대한 항목별 결과

[역사적 사건,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해설)]은 5점 기준에서 평균 4.40점으로, 87.3%(대체로 적절 34.5%+매우 적절 52.7%)가 적절한 것으로, [역사

문헌, 유물, 작품 등 자료 전시]는 평균 4.47점으로, 85.5%가 적절한 것으로, [역사적 사건, 상황을 담은 사진 및 신문기사 전시]는 평균 4.27점으로, 81.8%가 적절한 것으로, [VR(가상현실) 체험,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전시]는 평균 4.22점으로, 78.2%가 적절한 것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 미니어처 제작, 전시]는 평균 3.60점으로 56.4%가 적절한 것으로, [예술가들의 캐리커쳐 제작을 통한 역사 재현, 전시]는 평균 3.64점으로, 58.2%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하고 싶은 추가 전시방법에 대해서는 토크 콘서트, 디지털 온라인 자료관, 상황 체험형 전시공간의 구성, 게임 아이템 모으기, 테마별 특별 전시, 휴먼 라이브러리, 구술 영상, 감염병시대 대비 비대면 전시관, 관계망(SNS) 등 활용, 기증품 전시, 예술가 협업 디지털 전시 - 미디어 아트, 체험 및 참여 가능한 방법, 동아시아 지구 속 여성, 작가들과 협업 등으로 나타났다.

(4) 부산여성사 전시관 기능, 명칭, 역사문화 정책에 관한 질문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능(다중응답) 1순위 응답은 상설 전시관 운영이 60.0%, 기획 전시관 운영 16.4%,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14.5%, 복합문화(W-culture) 창출 공간 5.5%, 미래 세대 전시관 운영 3.6%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산지역에 여성사 전시관(가칭)이 설치될 때, 제안하고 싶은 명칭에 대해서는 부산 여성사전시관(7건), 부산 여성 역사관(3건), 부산 여성사박물관(2건), 부산 여성 역사문화관(2건), 여성들의 부산살이, 침묵을 넘어, 연대의 목소리로, 여성들 모이다, 부산 여성 기록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오늘, 여성사전시관, 지배받지 않는 모두 공간, 요람을 흔드는 손 - 부산 여성사전시관, 역사 속의 부산 여성들, 부산여성 라키비움(Larchiveum), 부산여성문화관, 전시관 #미투, 부산여성 '이음', 여성의 역사 기억관, 부산 여성의 삶과 역사, Her Story, 역사와 미래를 여는 공간, 부산 여성 미래문화전시관, 자갈치아지매 스페이스, 포스트잇 전시관, 부산 여성의 여가와 문화, 부산 여성

사전시관 - 여성/소리/공존, 과거/우리 그리고 미래, 너/나 그리고 우리, 역사와 미래를 여는 공간, 교류와 연대 여성 공간 - 여성 교류연대 공간 등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부산시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 정책의 수준은 낮음 41.8%(매우 낮음 10.9% + 대체로 낮음 30.9%), 비슷함 45.5%, 높음 12.7%(대체로 높음 10.9% + 매우 높음 1.8%)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다중응답) 1순위 응답은 부산여성역사문화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이 41.8%,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문헌 수집, 보존, 관리 23.6%, 부산여성 역사문화 발굴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 20.0%,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위원회 운영 및 전시관 설치 12.7%, 부산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작업 1.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소속별에서 학계가 기타에 비해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위원회 운영 및 전시관 설치,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문헌 수집/보존/관리, 부산여성 역사문화 발굴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학계에 비해 부산여성역사문화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때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다중응답) 1순위 응답은 삶의 현장이 38.2%, 노동운동의 현장 등 25.5%, 항일운동의 발자취 : 민족운동, 여성운동 14.5%, 항일운동의 발자취 : 일신여학교 10.9%, 여성과 전쟁 5.5%, 기타 3.6%,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1.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운동의 현장 등, 항일운동 발자취(민족/여성운동, 일신여학교)를, 남성은 삶의 현장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보존, 전시와 관련한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중 부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타 시도 사례에서는 인천 아트 구락부 아트맵, 서울의 세계여성문학관, 윤동주문학관, 인천의 한국근대문

학관, 인천아트플랫폼, 디지털 전시기술과 관련해서는 최근 개관한 광주의 전일빌딩,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민주평화교류원,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해녀박물관, 김만덕 기념관 등을 들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스위스 취리히의 여성 인물지도 제작, 기념관(전시관)으로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유대인박물관, 산악지역 여성들의 삶을 색깔을 담은 오스트리아의 Hittisau 여성박물관, 이탈리아의 Borgo 여성박물관 등이 있으며, 베트남 하노이 여성박물관은 전시 구성이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보존, 전시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상적 접근으로 인해 여성역사의 타자화 초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사를 남성과 대비된 관점이 아닌 가족, 개인의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역사문화를 다루고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전시공간의 설계와 콘텐츠까지 여성주의 시각과 성평등 시각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여성역사문화 전시관이 주는 메시지가 여성이라는 물리적 성에 기반한 인식보다는 부산여성이 보여주고 수행했던 포용성 관점의 부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성평등 운동이 사회와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젠더이슈의 긍정적 기능 강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전문가 컨설팅 요약 및 시사점

전문가 컨설팅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해서는 첫째, 사료 확보는 지속성을 가지고 전시관 설치 이전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입체적인 전시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료 확보가 필요하며, 역사적 자료수집은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확보해야 하므로 전시관 설치 이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여성역사에 대한 중심가치 정립 및 전시관을 통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여성역사에 대한 중심가치를 정립하고, 부산여성사 및 부산여성사 전시

관을 통해 부산의 미래에 어떤 비전을 주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셋째, 전시관 성격에 부합하고 부산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부산여성의 정체성이 부각되는 균형 잡힌 전시 주제 분류가 필요하며, 예로 상설전시로 여성과 노동/바다를 아우르는 주제 및 내용으로 한 전시 등이 가능하다.

넷째, 지역 특수성과 보편성간 균형이 필요하며, 부산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미래지향적인 전시콘텐츠가 필요하다. 부산지역의 특수성은 혼종성과 복합성을 지니며, 보편성 내지는 일상성은 공통사항으로서 두 요소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항구도시 부산의 고유한 특수성과 세계의 해양문화에 열려있는 개방성과 보편성을 부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지향성을 추구하는 전시콘텐츠 구상을 위해 부산이라는 경계를 넘어 한국과 지구여성사를 아우르는 새로운 장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제별 상설전시 시 근현대에 집중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근대 여성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별로 상설전시를 구성할 경우, 근현대 여성사 전시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근대 여성사는 연대표로 정리해서 보여주거나, 전근대 사료로 노동요를 통한 접근도 가능하다. 주제별 상설전시가 이상적이기는 하되, 여성의 역할을 역사 속에서 맥락화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주제별 전시 순서를 지리적, 지역적 특수성을 부각한 여성과 바다, 교육받은 여성주체의 등장이라는 차원에서 여성과 교육, 여성과 전쟁, 여성과 노동, 여성과 운동 순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여섯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남성 관련 전시콘텐츠를 포함하는 파격적 기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편적인 전시콘텐츠로서 ‘불평등과 차이’의 장을 구성하여 남녀 대립구도를 지양하는 한편, 기존의 여성영웅 만들기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남성 관련 전시콘텐츠도 다루는 획기적인 시도도 필요하다.

일곱째, 전시내용에서의 객관성과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해방이후 인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여덟째, 기획 전시는 전시관 설치 이후에 준비 가능하다. 기획전시 콘텐츠

는 시의성 있는 주제가 필요하므로 전시관 설치 이후에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방향 설정 후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가 가능하다. 또한 기획전시는 주제에 따라 부산지역 전시관, 박물관, 예술전문기관, 여성단체와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다.

<표 Ⅲ-35>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 요약

구분	기대효과
사료 확보의 시기 및 지속성	전시관 설치 이전부터 지속적인 사료 발굴 → 충분한 사료 확보 → 입체적인 전시 가능
전시관 통한 비전 제시	부산여성 역사에 대한 중심가치 정립 → 부산여성사 및 부산여성사 전시관 통한 부산의 미래 비전 제시 가능
부산여성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콘텐츠 개발	부산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콘텐츠 개발 → 균형 잡힌 전시 주제 분류 → 여성과 노동/바다를 아우르는 주제 및 내용의 상설전시 가능
지역 특수성과 보편성간 균형	부산지역의 특수성으로서 혼종성과 복합성, 공통사항으로서 보편성 및 일상성 간 균형 → 항구도시 부산의 고유한 특수성과 해양문화에 열려있는 개방성과 보편성 부각 → 부산의 경계를 넘어선 미래지향적인 전시콘텐츠 제시 가능
주제별 상설전시 시 전근대 전시에 대한 한계	전근대 여성사는 연대표로 정리 및 노동요 통한 접근 → 전근대 여성사에 대한 보완 가능
주제별 상설전시 시 여성의 역할을 역사 속에서 맥락화	여성의 역할을 역사 속에서 맥락화 위한 주제별 상설전시 순서 → 지리적/지역적 특수성을 부각한 여성과 바다, 교육받은 여성주체의 등장이라는 차원에서 여성과 교육, 여성과 전쟁, 여성과 노동, 여성과 운동 순으로 구성 가능
'불평등과 차이'의 장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남성 관련 전시콘텐츠 다루기 → '불평등과 차이'의 장 구성 →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기획으로 남녀 대립구도 지양 가능
인물 조명에 대한 검증	해방이후 인물에 대한 객관성 확보 위한 검증 작업→ 전시내용에서의 객관성과 형평성 유지 가능
기획 전시 추진 시기	기획 전시는 전시관 설치 이후 준비 →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방향 설정 → 부합하는 자료 수집 → 시의성 있는 주제로 기획전시 가능(유관기관과 협력 가능)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에서는 첫째, 준비, 실행, 운영 등 3단계의 전시관 설립 기본계획 혹은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유물 등 전시자료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은 전시관 운영의 핵심에 해당한다. 이에 자료 수집계획을 토대로 한 아카이브 구축 절차는 자료수집, 자

료의 현장정리, 자료분류, 자료업로드 및 보관 등의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와 전시관 설치 준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집자료에 대한 감정평가와 정식 수장고가 힘들다면 임시 수장고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기관 내 '여성사와 아카이브 연구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시를 위해서는 유물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여성사와 아카이브 연구소'를 구성해 대학연구소와 협업하여 정기학술대회 개최 등도 한 가지 방안이다.

넷째, 전시관 운영주체가 확정된 이후에는 유물기증위원회 구성을 통해 유물 기증 및 구입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관람객의 상상력 자극을 위해 전시기법이 아닌, 발상에 주안점을 두고 부산여성의 미완성 꿈을 재발굴하고 기억하되 비판적 재현 작업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한 연구위원회 형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여성사전시관 설치를 위한 연구위원회 형식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지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는 '부산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협의회(가칭)' 등을 구성해서 유물기증운동 진행도 가능하다. 위원회를 통해서는 단기적인 과제로 전시관 설립을 위한 심포지움과 콜로키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가변적인 전시공간 구성 및 특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전시관 설계단계부터 도면작업에 참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전시공간을 가변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처음 설계단계부터 세밀하게 구성하며, 전시공간은 항온항습 설비를 갖춘 전시관 수장고 등의 특수공간 확보가 중요하므로 전시관 설계단계에서 이런 특수사항을 도면에 넣어야만 소모적인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표 Ⅲ-36>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 관련 요약

구분	기대효과
전시관 설립 기본계획	준비, 실행, 운영 등 3단계의 전시관 설립 기본계획 혹은 실행계획 제시
계획을 토대로 한 단계별 아카이브 구축	자료수집, 자료의 현장정리, 자료분류, 자료업로드 및 보관 등의 단계별 실시 →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 전시관 설치 준비위원회 운영 등 통해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 → 아카이브 구축
'여성사와 아카이브 연구소' 구성 및 운영	'여성사와 아카이브 연구소' 설치 → 대학연구소와 협업해 정기학술대회 개최 등 → 유물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토대 마련 가능
유물 기증 및 구입 절차 토대 마련	유물기증위원회 구성 → 유물 기증 및 구입절차 등 체계적 추진 가능
비판적 재현 작업	전시기법보다는 발상의 전환에 비중을 둔 비판적 재현 → 관람객의 상상력 자극 가능
연구위원회 형식의 추진위원회 구성	여성사전시관 설치 위한 연구위원회 형식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역할 → 단기과제로서 전시관 설립 위한 심포지움과 콜로키움 등 실시 → 장기과제로서 향후 전시방향 등 명확한 지표에 대한 심층적 논의 및 유물기증 운동 추진 가능
설계단계의 도면작업에 참여	설계단계부터 도면작업에 참여해 세밀한 의견 개진 → 예를 들어 항온 항습 설비 갖춘 전시관 수장고 등의 특수공간 확보 → 전시공간의 가변적 사용 가능 및 추가 비용 절감 가능

향후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후 보존(아카이빙), 전시방향에서는 첫째, 부산여성사 전시관의 철학을 담은 전시방향 설정을 통해 기존 박물관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시콘텐츠와 전시설치간 내용과 형식의 조화가 필요하다. 현재 예상되는 좁은 전시관 규모에서 근대이후 중심의 전시가 적절하며, 상설전시 주제는 부산여성의 특수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시내용물 구상이 선행된 후 내용에 부합하는 전시관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양질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질이 담보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아카이브 구축은 자료수집, 정리, 분류, 분석, 전시까지의 통합적인 구조설계가 필요하다. 실물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서 고가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은 필요하지 않다.

넷째, 자료수집, 수장고 관리,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독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수장고는 제습 및 항온 시스템을 겸비해야

하며, 유물 등 전시 보안문제 감안한 유리 전시대 등의 구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과제 추진을 위한 감독시스템 도입 또한 필요하다.

<표 Ⅲ-37>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후 보존(아카이빙), 전시방향 관련 요약

구분	기대효과
기존 박물관과의 차별화	부산여성사 전시관의 철학을 담은 전시방향 설정 → 기존 박물관과의 차별화 가능
전시관 내용과 형식간 조화	전시내용물 구상 선행 후 내용에 부합하는 전시관 설계 → 전시콘텐츠와 전시설치간 내용과 형식의 조화 가능
양질의 아카이브 구축	자료수집, 정리, 분류, 분석, 전시까지의 통합적인 구조설계를 담은 장기계획 수립 → 양질의 아카이브 구축 가능
아카이브 구축 관련 감독시스템	자료수집, 수장고 관리 등 아카이브 구축 관련 감독시스템 도입 → 전문성 확보 가능

그 외 컨설팅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명칭은 부산여성사 전시관이 아닌 부산여성사 박물관이 더 적절해 보인다. 본 연구의 내용에 전시콘텐츠, 인물 및 장소의 발굴,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행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추세를 파악하여 반영했기 때문에 박물관 명칭이 더 적절하다. 둘째, 전시관의 장소 및 규모 확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럴 때 규모에 맞는 공간구성이 가능하다. 셋째, 플랫폼 기능으로서의 여성사 전시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권 여성의 역사와 문화 비교 전시도 가능해 보인다. 넷째, 부산지역사와 여성사(성 인지성)간의 균형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시의 생명력은 전시의 결과물이 아닌 전시의 진행과정이며 전시관의 주요기능으로 전시대상, 전시주체, 관람객간 상호교류의 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섯째, 아카이브 구축의 핵심은 자료수집의 지속성, 활용성 높은 기획력, 고도의 자료검증 시스템임을 인식하고 실행해야 한다. 일곱째, 전문 인력 확보,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행정적 지원 확보, 젊은층과 소통 등이 필요하다. 유물 확보를 통한 전문전시관 구축을 위해 전문가, 학예사 등 전문 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전문가 컨설팅 분석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반 구축의 측면에서 전시를 위해서는 전시공간과 전시내용이 필요하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시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전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과 관련한 유물과 사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무엇보다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수집계획을 토대로 충분한 수집 시간과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부산여성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타 전시관과의 차별성, 지역성을 살리되 보편성과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여성과 남성의 역사를 어떻게 비교, 전시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전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설치위원회 등을 통한 전시 구성 및 방향 설정과 더불어 유물 및 자료 수집 및 수집된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 수장고 관리 등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한 전문적인 감독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다섯째, 전시의 생명력은 전시의 결과물이 아닌 전시의 진행과정이며 전시관의 주요기능으로 전시대상, 전시주체, 관람객간 상호교류의 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전시기법보다는 발상의 전환에 비중을 둔 비판적 재현을 통해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 때 부산여성의 역사문화에 대한 조명에 의미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Ⅳ.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관 설치 준비

1.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방향

연구 결과, 부산여성의 역사문화 전시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향후 설치 예정인 전시관을 염두에 두고 준비, 실행, 운영 등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시를 위한 유물, 문헌, 사진, 작품 등의 수집 작업은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수집물이 축적되고, 아카이브로서 보존, 관리될 때 비로소 다양한 콘텐츠로 전시가 가능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준비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아카이브 구축을 토대로 한 전시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 전시콘텐츠 구성의 중요도에서는 아카이브 공간 100.0%, 기획전시 98.2%, 상설전시 96.4% 순으로,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시 1순위 기능에서는 상설전시 운영, 기획전시 운영, 아카이브 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전시를 위한 유물, 문헌 등 자료가 축적되지 않고는 원하는 전시를 기획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이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물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부산의 지역성과 부산여성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주제별 전시콘텐츠 개발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서도 연대기적 역사적 사건을 초점을 맞추는 통사적 전시보다는 부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현대에 초점을 맞춘 주제별 전시콘텐츠 개발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물론 2장 국내의 타지역 여성전시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설전시에서 시대별, 주제별 콘텐츠를 동시에 전시하고 있는 곳이 더 많았다. 이는 전국의 여성전시관 건립은 초기단계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전시,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토대로 한 주제별 콘텐츠에 더 비중을 두되, 시대별 콘텐츠도 제안하였다.

셋째,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 개발은 지역사와 성인지 역사와의 관계, 그리고 부산지역 전체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 여성사를 부산지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균형 잡힌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여성만으로 동떨어진 전시가 아니라 부산지역사, 남성역사와의 관계 속에서의 전시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지역사회 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운영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1순위로 중장기계획 수립, 아카이브 구축, 여성역사문화 발굴 위한 연구 지속, 전시관 설치위원회 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사 전시관 설치에 대한 방향과 주제 그리고 체계를 잡고 공론화를 시작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유물 발굴 및 수집, 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전시관 설치를 위한 유물 수집에 많은 시간 소요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유물 수집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전시관 설치 이전단계부터 유물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섯째, 현재의 시점에서는 부산여성사 전시관으로 출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시공간, 수장고, 사무실, 교육공간 등을 갖춘 박물관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립여성사전시관을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준비 중에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박물관 형태로 건립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위의 방향을 토대로 두 가지 큰 틀 첫째,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 개발과 둘째, 전시관 설치 준비를 위한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기반 구축을 제안하였다.

2.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의 제안 방향은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시대적 분류를 기준으로 한 전시가 아닌, 주제별 전시콘텐츠를 선택하였으며, 근현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전시콘텐츠를 제안하였다. 근현대에 더 비중을

두기는 했으나, 본 원에서 3년간 수행했던 부산여성사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전근대 분야의 주제별 전시콘텐츠도 함께 제안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전시관 규모를 아직 확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콘텐츠는 항상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시대별, 주제별 모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원에서 수행했던 부산여성사 연구 결과, 전근대 분야에서 부산여성만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찾기는 쉽지 않았으며, 특히 고대의 경우 사료의 부족으로 지역별 여성의 특수성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이에 가능한 몇 가지 콘텐츠 외에 전근대 분야는 연표 방식으로 보여주는 전시도 가능하다.

전근대 시기의 경우, 부산여성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활사, 여성과 전쟁, 여성과 노동, 여성과 사회 등을 콘텐츠화 하였다. 그 결과, 고대~고려시대 부산여성의 삶과 생활상, 전쟁에 맞서 항거한 여성들, 부산여성의 노동, 그 기원을 찾아,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부산의 여성 시장상인들, 주변화된 여성 - 동래관기(官妓)를 제안하였다. 근현대 시기의 경우,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콘텐츠 적절성으로 나타난 여성과 노동, 여성과 바다(항구도시), 여성과 (민주화)운동, 여성과 교육 등을 콘텐츠화 하였다. 그 결과, 근현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에 대한민국산업 전초기지와 부산여성, 격동기 시대 - 삶을 개척한 시장여성, 항일운동의 중심에 선 부산여성, 근대여성교육과 부산여성,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여성과 보건, 개방과 포용의 역사 - 이주여성의 삶과 활동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7가지 전시콘텐츠는 향후 전시를 목적으로 한 보다 큰 그림으로서의 전시 컨셉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 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시는 기획전시의 형태로 이슈화가 필요할 때, 전시 가능해 보인다. 예를 들어 해방이후 여성인물을 재조명하여 기획할 경우, 여성운동 및 정치 분야, 사회 및 교육 분야, 문화 및 예술 분야 등에서 활동한 다양한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가능하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 전문가들은 개별 인물에 대한 영웅 만들기 방식의 해설과 구태의연한 전시방법을 경계하였다. 구체적인 전시방법은 부산여성사 전시관 운영 기반 구축에서 설치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된 이후에 재논의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의 세부내용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

시대	영역	콘텐츠	주요 유물 및 자료
전근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 (안)	생활사	① 고대~고려시대 부산여성의 삶과 생활상	- 연표로 정리 가능
	여성과 전쟁	② 전쟁에 맞서 항거한 여성들	- 동래부순절도 • 소장처: 육군박물관
	여성과 노동	③ 부산여성의 노동, 그 기원을 찾아	- 다수의 노동요 •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제(수영농청/좌수영어방놀이, 다대포후리소리)
		④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부산의 여성 시장상인들	- 시장의 상거래 활동 내용 •『숙종실록』
	여성과 사회	⑤ 주변화된 여성 - 동래 관기(官妓)	- '동래부접왜사도'의 연향장면 •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등
근현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 (안)	여성과 노동	① 대한민국산업 전초기지와 부산여성	- 신발공장 사진 • 소장처: 부산시, 구·군
		② 격동기 시대, 삶을 개척한 시장여성	- 자갈치아지매 사진 • 소장처: 국가기록원 - 시장 관련 엽서 • 소장자: 김동철
	여성과 독립운동	③ 항일운동의 중심에 선 부산여성	- 항일운동 관련 기록 • 소장처: 부산진일신여학교 기념전시관, 동래여고 일신관
	여성과 교육	④ 근대여성교육과 부산여성	- 일신여학교 학생유물 • 소장처: 부산진일신여학교 기념전시관, 동래여고 일신관 - 호주여성선교사 민지사(일신여학교 설립자) 공로비 • 소장처: 부산진교회
	여성과 문화	⑤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 화가 김천옥 작품 • 소장처: 부산여고 역사관, 부산시립미술관, 청마문학관, 조영(김천옥의 자녀) - 무용가 김혜성 사진(신문기사)
	여성과 보건	⑥ 근대 보건역사와 여성의 의료분야 진입 확대	- 간호사 관련 자료 • 소장처: 일신기독병원, 부산간호사협회 등
	이주여성	⑦ 개방과 포용의 역사 - 이주여성의 삶과 활동	-

1) 전근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3)]

(1) 고대~고려시대 부산여성의 삶과 생활상

고대 및 고려시대에 부산 여성의 삶과 생활상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은 일본을 비롯한 이웃지역들과 교류가 활발한 흔적을 볼 수 있어 당대 여성들은 이런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개방된 생활을 했으리라 추측 가능하다. 그러나 타 지역의 여성관련 전시관과 유사하게 관련한 유물이나 자료를 수집하는 한계가 따른다. 향후 전시관 준비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진 구성이 된 이후에 문헌과 현장조사 등 통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단 유물 및 자료 수집이 한계라면 고대~고려시대의 부산여성과 관련해서는 연표로 정리하여 전시 가능해 보인다.

(2) 전쟁에 맞서 항거한 여성들

비록 이름은 알 수 없지만 1592년 임진왜란 때 동래성 전투에서 기왓장을 던지며 항거하다 죽은 무명의 두 여성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에도 전해져 내려온다[4)]. 조선시대 여성들 중에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일본인은 부산을 첫 관문으로 하여 조선으로 침입해왔다. 당시 부산의 부산진성, 동래부성, 다대포진성은 임진왜란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발생한 곳이었다. 이곳의 군인, 공무원, 시민들은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왜적에 항거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 사상자 가운데 여성도 상당수 있었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193쪽).

---

3) 전근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은 본 원에서 2010년에 수행했던 『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연구결과에서 대부분 도출했음을 밝힌다.

4) 임진왜란 이후 75년이 지난 1667년, 민정중이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쓴 『임진 동래유사』에 따르면, "동래부민 김상은 마을 여인 두 사람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두 여인은 기와를 깨어 주고 김상은 기왓조각으로 왜적을 쳤다. 적이 떠난 후 김상의 어머니가 가서 보니 김상은 두 마을 여인과 함께 죽어 있고 적 세 사람도 그 옆에 죽어 있어서 김상이 죽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산여성사Ⅰ: 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 37~39쪽)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여성들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여유조차 없는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전면에 나서 남성들과 함께 싸웠다. 영조 때 임진왜란 당시 죽은 이들을 다시 조사하여 포상하였는데, 애석하게도 이 두 여성들은 이름을 알 수 없어 국가에서 사액을 내린 사우에는 배향되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사우에 배향되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행적은 계속 전승되었고, 1760년 동래부순절도에 이 두 여성의 행적이 형상화되기도 했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193~194쪽).

조선 시대 여성들은 관직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혼란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지켰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조차 알리기 어려웠다는 것은 남성 중심적 사회의 관행으로 인한 차별로 해석 가능하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19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지역 여성들은 전쟁이라는 국가의 큰 위기 속에서 평소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영역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켰다는 것을 유물 및 자료를 통한 전시를 통해 후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산여성의 노동, 그 기원을 찾아

고대부터 고려,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노동활동은 유물로는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로 남아 있는 다수의 노동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수영농청놀이, 좌수영어방놀이, 다대포후리소리 등을 통해 고려와 조선시대에 부산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벼농사와 어업활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수영구의 민속놀이 수영농청놀이는 벼농사의 농업노동요를 연희화한 것이다. 수영농청놀이 중 여성들이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모판에서 모를 뽑는 행동을 하면서 '모찌기 소리'를 부른다. 이어 여성들을 중심으로 모를 심으며 '모심기(모내기)소리'를 부르면서 보리를 손질하고 밭을 매고 논두렁의 풀을 뽑는 등의 노동을 하였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198쪽).

한편 부산은 바다와 접해 있어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진상품의 주요 품목은 대부분 해산물이었다. 인삼과 약재류, 전복, 생복, 가사리, 청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동래지역 주민들에게 어업은 자신들의 생계를 영위하는 한편 국가에도 진공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들은 먼 바다에 나가 직접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주로 남성들이 잡아 온 고기를 운반하고 가공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에 전하는 노동민속인 좌수영어방놀이에서 알 수 있다. 좌수영어방놀이는 어업의 작업과정과 노동요를 놀이로 구성한 것이다. 좌수영어방놀이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있던 수영만에 전승되는 어업노동요 멸치잡이 후리질소리와 그에 따른 민속이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199쪽).

(4)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부산의 여성 시장상인들

동래지역에 거주했던 여성들도 전통사회에서 경제의 기본이었던 농업은 물론이고, 상거래를 통한 사회적 생산활동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동래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다수 있었다.

조선후기 부산지역 여성들은 상거래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당시 5일장이 열렸던 동래지역에는 장이 서는 날 장터에 나와 장사하는 여성들이 꽤 많았다. 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부산에는 동문인 수문(守門) 밖에서 조선 상인이 매일 아침에 생선과 야채류를 가지고 와서 왜인에게 파는 아침시장이 있었다. 이를 조시(朝市)로 불렀는데, 조시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상거래를 하고 있었다. 『숙종실록』을 통해 여성들이 시장에서 상거래를 한 활동기록을 찾을 수 있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201쪽).

열악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당시 여성들은 억척스럽게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여성들은 집안일만을 담당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926년에 동아일보에 전국을 소개하는 연재물이 있었다. 그 중 동래지역의 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동래지방은 여성의 활동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여 시장의 장사는 거의 여성이 다 차지하고 있으며 채초, 경운, 어로 기타 노력도 남자들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대개 신체가 건강하여 장수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다른 지방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그 당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며, 동래지역은 여성들의 활동이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동래지역은 조선후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했고, 그러한 증가세는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202쪽).

이렇듯 시장에서의 부산여성의 적극적인 상거래 활동은 현대까지도 부산지역의 여러 시장에서 이어져 지속되고 있다는 역사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5) 주변화된 여성 - 동래 관기(官妓)

동래지역에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일은 한일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일이었다.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한일 외교관계는 1609년(광해군 1년) 6월의 기유조약(己酉條約)으로 회복되었으나, 조선으로 오는 일본 사신들은 국왕을 만나지 못하고 초량 왜관에서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에 절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내 일본과의 교류는 유일하게 왜관이 존재했던 동래에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동래 왜관을 중심으로 한 접대 문화는 중앙과는 달리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접대 문화의 한 가운데 여악(女樂)이나 기생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204~205쪽).

조선시대 관기(官妓)는 지방 관아에 소속된 기녀로서 국가체계 안에 편제되어 직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지역 여성들로서 연회 등의 행사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가무를 담당하고 성적인 접대를 행했던 전통사회의 특수한 신분이다. 관기는 천인이라는 신분적 귀속과 여성이라는 성적 귀속을 안고 사는 특수한 사회적 위치의 존재였다. 성리학자들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기녀폐지론을 수차례 논의했지만 1909년까지 존속된 것은 기녀의 유용성을 버릴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동래지역 관기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동래

부사접왜사도’ 그림에서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일본 사신을 맞이하는 일과 연향을 베푸는 장면에 관기들의 모습이 등장한다(『부산여성사Ⅱ : 고대~근대편』, 203쪽).

이렇듯 국가에 편제되어 그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관기는 전통사회 국가체제 속에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사신접대 등의 임무는 외교 관계에 주요한 역할에 해당되었다. 관기에 대해 본인이 죽거나 부모상을 당했을 경우 관에서 부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사신 접대와 지방관리 및 군관의 위안과 같은 관기의 주된 역할이 국가의 운영을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이 전통사회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접촉공간임을 설명하는데 있어 통신사가 늘 관심의 초점이었다. 외교관계는 남성의 역할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외교를 위해 관기와 같은 여성들이 수행한 역할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관기는 전통사회 부산지역 여성들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며 이와 관련한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동래부의 관기는 이후 부산에서 1910~1924년 사이에 설립된 기생들의 조합인 동래권번, 봉래권번 그리고 부산권번으로 이어졌다.[5] 이러한 조선시대 관기의 문제를 오늘날 부산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매매 산업과의 연관성 속에서 비판적 역사적 고찰을 토대로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로서 접근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5) 동래권번은 1910년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동래부 관기 출신의 기생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옛 동래부 소속 기생들이 결속과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운초(李雲初)를 대표자로 설립함. 봉래권번은 1922년 중구 영주동에 설립된 기생 조합. 중구 영주동과 초량 일대에 객주업이 성행하자 영업을 위해 대한제국 시절 동래부에서 군관향수를 지낸 영주동 출신 조씨가 설립함. 봉래권번은 소속 기생들이 일본 요정에 드나들고, 중구의 상류층 일본인에게 알려지면서 번창하게 됨. 매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매춘행위를 하는 기생도 있어 경찰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음. 부산권번은 1924년 중구 남포동에 설립된 권번 주식회사임. 1924년 7월 30일 부산 지역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요리옥(料理屋), 예기, 권번 관계에 대한 금융업과 이에 따른 모든 부대 업무를 권번 조합을 통해 경영하고자 중부이팔(重富伊八)을 대표로 하여 설립됨. 이런 집합체를 ‘기생 조합’ 또는 ‘예기 조합’이라 하였으나 통칭 ‘권번 조합’이라 명칭함.(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2) 근현대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안)

(1) 대한민국산업 전초기지와 부산여성

60~70년 조선방직, 고무, 신발 공장에서 부산 및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역군으로 일했던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조명을 통해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여성노동 역사를 전시할 수 있다. 예로 부산경제에 큰 역할을 했던 신발산업의 주역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동양, 태화, 진양 고무의 신발공장 현장에서 생고무로 작업되는 신발의 마무리 수작업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이들은 당당한 생계 주체로서 한국의 산업 발전의 기여한 산업 역군들이었다.

여기에는「그 시절 노동자를 찾아서」코너를 만들어 구술, 인터뷰, 과거 현장 기록 등을 전시 가능하다. 특히 투쟁해야 했던 아픔 등을 전시함으로써 역사 현장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구술은 <구술 코너> 등을 마련해서 생생함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 당시 노동현장의 중간관리자는 대부분 남성이었는데, 그들의 구술 등을 추가하여 여성과 남성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으며, 혹은 어떤 갈등 요소들이 존재했는지 등을 기록, 전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격동기 시대 - 삶을 개척한 시장여성

부산의 대표적인 시장인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동래시장에는 눈에 띄게 여성 상인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한 곳이다. 여기에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 이후에 외지인들이 부산에 정착해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져갔다. 해방과 전쟁이라는 격동기에 시장의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부산 경제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그들은 여성 개인이 아닌 시장상인이라는 집단화된 여성으로서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었다.

시장에서의 여성경제 활동은 미국 최초의 조선 주재 공사관에서 일했던 외교무관 포크의 1884년 여행일기에도 부산진과 동래 시장의 여성상인들이 묘

사되어 있다. "… 모든 장사치가 여성들이었다. 거의 300명의 여성들이 …", "여성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 그들은 밥을 팔며 모든 가두판매를 담당했다."로 기록되어 있다(Samuel Hawley(2008), 1884년 11월 29일 일기 120쪽, 12월 2일 일기 123쪽)

이렇듯 시장은 귀환 동포들의 삶을 개척하며 정착하게 된 기회의 터전이며,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에게 삶의 안식처가 되었다. 부산 출신과 외지 출신의 여성상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삶을 개척한 과정을 시장과 여성노동자라는 주제로 조명하여 전시하는 것은 부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산 여성의 삶을 역사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전시방법을 고려해 본다면, 부산에 거주하면서 자갈치시장과 자갈치 아지매 사진을 가장 많이 남긴 故 최민식 작가의 '자갈치아지매' 사진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여성상인들의 구술을 통한 구술 생애사를 가지고 생생한 기록물을 <구술 코너> 등을 마련해서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항일운동의 중심에 선 부산여성

부산지역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부산지역 3·1운동의 시작과 전개에 중심 역할을 했다. 교사 주경애와 박시연은 고등과 학생 김봉애를 비롯한 11명과 함께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기숙사를 나와 부산의 좌천동 거리에서 만세시위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들이 합류한 사건이 바로 부산지역의 3·1운동의 출발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부산지역의 항일 투쟁은 1920년대의 여성운동이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미쳤다. 부산지부장으로 활동했던 백신영 등의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활동, 박덕술 등의 의용단 활동, 부산지역 여성들의 여자청년회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일신여학교가 있었던 건물은 기념전시관이 되어 역사의 현장을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학급 단위의 학생들이 많이 관람하고 있다. 일신여학교에서 동래여자고등학교로 변경, 이전 후, 학교는 '일신관'의 명칭을 가진 역사관과 부산일신여학교 만세운동 기념비를 세워 그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학

생들과 교사들의 항일운동사를 보존, 관리하고 있다.

(4) 근대여성교육과 부산여성

근대여성교육의 산실이었던 일신여학교는 호주 여성선교사 민지사에 의해 1895년에 설립되었다. 일신여학교를 통해 부산지역에서의 항일운동과 근대교육 시작은 주목할 만하며, 일신여학교의 초대 회장이었던 민지사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근대여성교육에 평생을 헌신하고 기여한 인물이다. 그 동안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평가되지 못했던 호주 여성선교사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도 부산여성사 전시와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신여학교를 통한 근대여성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도 가능할 수 있었다.

부산지역 항일운동과 근대여성교육 관련 전시콘텐츠 전시방법의 일환으로는 일신여학교 기념전시관과 동래여고 역사관을 온라인으로 링크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전시물을 공유할 수 있다.

(5)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분야는 활동에 비해 집중적으로 연구 및 조명되지 못한 분야에 속한다. 과거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재조명하거나 현재의 여성문화예술 분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하여 기획 전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부산지역 문화예술계의 세부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과 협력하여 과거와 현재의 부산여성 문화예술을 조명하는 작업을 함께 시리즈물로 기획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또한 향후 부산시에서 계획 중인 전시관의 같은 층에는 전시관 외에 소강당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 기획물 중에는 소강당을 활용하여 보여줄 수 있는 내용도 있으며, 전시기간 동안 관련 문화예술인들을 초대하여 소강당에서 열린 포럼 등을 병행할 수도 있다.

(6) 근대 보건역사와 여성의 의료분야 진입 확대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가장 교류가 활발했던 부산 지역은 일본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근대적인 보건, 위생과 관련하여 의료가 중요하게 부각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근현대 부산지역에 간호사를 양성하는 전문학교들이 설립되는 등 여성들의 의료분야 진입이 확대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1952년 호주 장로교 선교회에서 의료 선교사로 파송된 맥켄지(Makenzie)가(家)의 매혜란, 매혜영 자매에 의해 일신부인병원(일신기독병원의 전신)이 창설되면서 부산지역 여성 관련 의료분야는 더욱 발전하기 시작했다.

1952년 당시 6.25전쟁으로 인해 부산에는 수많은 피난민과 빈곤한 사람들이 모여 들었으나, 그 당시 부산에는 의료기관이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때에 호주선교사 두 자매가 수많은 산부인과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일신부인병원이 문을 연지 6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의료와 시술은 계속 발전되어 왔다. 2017년 기준, 호주장로교선교회 산하의 일신기독병원은 부산의 좌천동, 화명동, 정관, 미얀마 등 5개가 있다(일신기독병원 홈페이지 참조).

의료계에서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간호직을 고려해 볼 때 근대 및 현대의 간호직 여성의 삶과 경험의 변화를 남성과 비교해서 전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7) 개방과 포용의 역사 : 이주여성의 삶과 활동

부산은 시대적으로 개항, 일제강점기 일본의 전략적 가교 기지, 해방이후 귀환 장소, 한국전쟁 시 임시수도, 산업화시기 수출무역항 등의 특수성을 지닌도시로서 개방성, 혼잡성, 복합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외래인과의 혼합과 공생은 부산에 개방과 포용의 역사성을 가져다 주었다.

부산은 지리적인 이유로 일본과의 교류를 감안할 때 부산에 정착한 일본 여성들이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문화 다양성 시대에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와 전시는 부산여성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지역사회에 적응 또는 부적응하거나, 낯선 문화에 어떻게 통합하거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전시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부산의 개방과 포용의 역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주여성의 삶과 활동을 조명하는 데에는 부산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3.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기반 구축

개발된 전시콘텐츠를 전시할 전시공간으로서 여성사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절차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에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시관 운영기반 구축에서는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계획 수립, 아카이브 구축 위한 계획 수립, 유물 발굴 등 현장조사 위한 연구진 구성, 유물 수집사업 전개, 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등을 들 수 있다. 세부내용은 <표 Ⅳ-2>와 같다.

<표 Ⅳ-2>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기반 구축

영역	내용	비고
전시관 설치 준비	①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부산시
	② 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계획 수립	부산시/연구기관
	③ 아카이브 구축 위한 계획 수립	부산시/연구기관
자료 기초조사	④ 유물 발굴 등 현장조사 위한 연구진 구성	연구기관
	⑤ 유물 수집사업 전개	부산시/구군
	⑥ 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부산시/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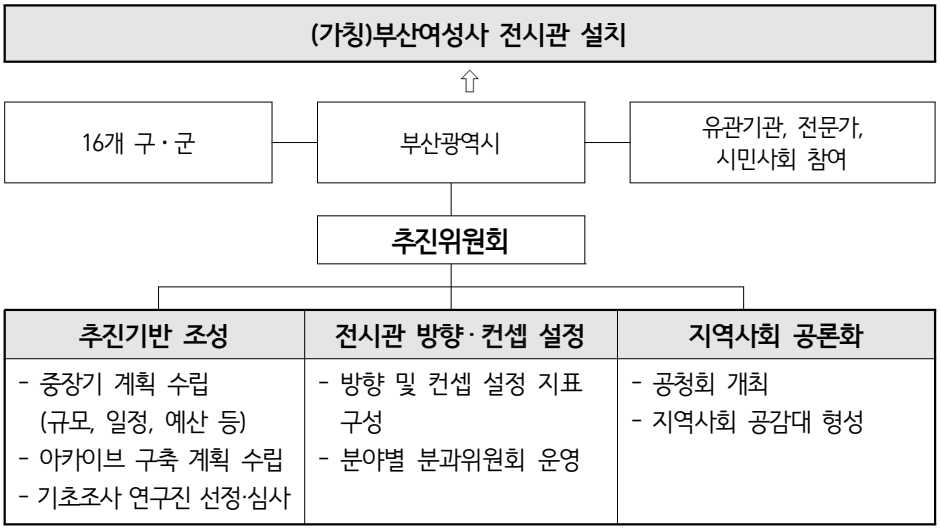
1)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전시관이 설치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설치 이후에 전시콘텐츠를 채우는 것은 이미 늦은 상황이 된다. 이에 향후 전시관 설치를 염두에 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추진위원회는 전시관 설치의 3단계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준비단계에 속하며, 역할로는 추진기반 조성, 전시관 방향 및 컨셉 설정, 지역사회 공론화 등을 들 수 있다.

추진기반 조성에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 아카이브 구축 위한 계획 수립, 기초조사 연구진 선정 심사 등을 들 수 있으며, 전시관 방향 및 컨셉 설정에서는 전시에 대한 전체 방향 및 컨셉 설정과 명확한 지표를 토대로 분야별, 세부주제별 심층적인 논의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공론화에서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 부산의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부산여성의 정체성과 부산여성사 연구에 대한 가치를 찾는 작업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는 통상적인 운영의 기능을 넘어서서 지역여성사 연구위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서, 학계, 여성계, 문화계, 교육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계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학, 여성사 전공자 등이 일정 비율로 구성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서도 여성사전시관 전체 방향과 주제를 설정하여 이끌고 갈 위원회 구성이 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상상력과 미래 방향을 끌어갈 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체방향 설정과 세부주제별 심층적인 논의를 전시관 설치의 관건으로 보고 있었다.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정리하면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위한 추진위원회 역할(안)

2) 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계획 수립

장기적으로 여성역사문화 발굴, 보존, 관리, 전시관 운영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로드맵 구축 등 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 계획 수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산여성사 전시관 중장기계획에는 규모, 일정,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감독·평가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전시관 공사 및 설치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면서 감독하는 역할과 유물수집 관련 감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까지를 담을 필요가 있다.

3) 아카이브 구축 위한 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과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아카이브 구축의 우선순위와 이를 위한 유물 수집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다. 향후 부산여성회관이 재건축되어 전시관이 설치될 경우, 유물 및 자료 수집 이후에는 보존, 관리를 위한 수장고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시관 설치시기를 확정하기 힘듦으로 전시관 설치 전에 수집한 유물 등을 보관, 관리하기 위한 임시 수장

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아카이브 구축 작업은 전시관 설치 이전부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에 속하므로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4) 유물 발굴 등 현장조사 위한 연구진 구성

전시콘텐츠 개발과 전시관 운영은 전문 분야로서 유물 발굴 단계부터 현장조사, 기록, 분류, 보존,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유물 발굴 등 현장조사를 담당할 해당 학문 전공의 연구진은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 되는대로 가장 먼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연구진이 함께 중장기 계획과 아카이브 구축 계획 수립 이후, 기초조사를 설계하여 유물 수집, 그리고 공청회 등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서 제안되었듯이 조사현황 및 사례 조사, 관련 자료 수집, 세부콘셉 구상, 내외부 연구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공론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가칭 '여성사와 아카이브 연구소'를 구성, 1년 단위의 정기학술대회를 부산지역 여성 관련 연구소와 협업하여 공동 기획 및 주관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5) 유물 수집사업 전개

전시방법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부산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첫 단계로서 유물 확보는 아카이브 구축에 필수요건에 해당된다. 또한 유물 수집 과정에서 기증이 아닌 구매의 경우,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자료 수집 및 기록의 결과를 상세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로 수집자료를 기록하는 상세 현황표에는 유물의 명칭과 유형에서부터 유물설명, 가치평가, 관련구술, 관련사진, 소유자, 관리상태, 수집방법(기증,

기탁, 구입, 대여, 복사), 조사일, 조사자, 참고문헌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이 필수적이다. 수집 자료에 상세한 기록은 향후 전시로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유물 수집 및 기록은 향후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작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물 수집사업과 관련해서는 유물기증위원회 및 유물 감정평가단 등을 운영하여 수집한 유물에 대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중요하다.

6)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여성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때 여성은 노동운동의 현장과 항일운동의 발자취(민족/여성 운동, 일신여학교)를, 남성은 삶의 현장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삶의 현장 역시 노동과 항일운동의 현장에서 활약했던 삶의 현장으로 해석 가능해 보인다.

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전시와 맥락을 같이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부산여성사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도출해 낼 수도 있다. 단지 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부산시와 구군의 협력 하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다.

부산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낼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는 준비, 실행, 운영 등의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 준비단계, 사료 발굴 및 유물 수집팀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 실행단계, 부산여성사 전시관 개관 및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 운영단계로 이루어진다. 단계별 세부 추진내용은 <그림 Ⅳ-2>와 같다.

단계	추진내용
준비 단계	•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공청회 개최 : 지역사회 여성사전시관 설치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 전시관 설립기획의 단계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전시관 설치절차 수립: 건립방향(규모, 일정, 예산, 장소 등)) - 전시·운영 방법, 전시수집 시기·보관장소, 운영주체, 담당인력 등 준비 • 사료 발굴 및 유물 수집팀 구성 : 연구진 구성
실행 단계	• 전시관 건립(설치) 공사 • 전시실 내부 구성 확정(설계, 공사 등) • 운영조직 구성 등 전시관 개관을 위한 단계 • 사료 발굴 및 유물 수집팀 : 전시관 내부 구성 및 개관 준비 등
운영 단계	• (가칭)부산여성사 전시관 개관 및 운영 • 기 구성된 인력으로 전시관 운영 • 상설전시 운영, 지속적인 아카이빙 및 수장고 관리 등

<그림 Ⅳ-2>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운영 단계별 추진내용(안)

참고문헌

기계형, 김정숙, 문희순, 박미현, 이송희 & 정해은. (2017). *여성사 자료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번호: 연구보고 2017-26). 서울: 여성가족부.

김용승, 이성훈, 배봉균, 박석수, 최미영 & 한원용. (2004). *여성사전시관 중장기 발전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양애경, 김이선, 김양희 & 권순형. (2004).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활성화방안.* (자료 번호: 2004 연구보고서 250-2).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양애경, 김인순, 이성숙, 이춘아 & 최선경. (2012).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방안.* (자료 번호: 2012 연구보고서(수시과제)-16).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원. (2006). *대구 여성사전시관 활용가치 및 설립방안 검토.* (자료 번호: 2006 연구보고서 양성평등 분야).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임송미, 민웅기 & 이경찬. (2019). *전남여성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자료 번호: 2019-정책연구_08). 전남: 전남여성가족재단.

전혜숙 & 김지혜. (2018). *부산여성회관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자료 번호: 현안연구 2018-01).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전혜숙 & 김지혜. (2019).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여건분석 및 기본구상.* (자료 번호: 현안연구 2019-01).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전혜숙 & 김지혜. (2019). *부산여성문화회관 중장기 운영방안.* (자료 번호: 현안연구 2019-02).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여진, 고지영, 문순덕, 현혜영 & 기계형. (2018). *제주 여성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 번호: 연구보고서 2018-08). 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최세정 & 박미란. (2018). *대구여성탐방로 자원화방안 연구.* (자료 번호: 기본과제 2018-08). 대구: 대구여성가족재단.

하정화, 이훈상, 이송희, 이진옥, 박지현 &. 손숙경. (2009). *부산여성사 I - 근현대 속의 부산 여성과 여성상.*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정화, 김정숙, 권순형, 손숙경, 최경숙, 이송희, 김선미 &. 박선애. (2010). *부산여성사 II - 역사속의 부산여성(고대~근대편).*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정화, 이훈상, 박금식, 김정란, 장지용, 손숙경, 박지현, 서송연 & 이송희. (2011). *부산여성사 III - 역사 속의 부산여성(현대편).*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국립여성사전시관. (2017). *2017 세계여성(사)박물관 편람.* (자료 번호: 2017-1). 서울: 국립여성사전시관.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Samuel Hawley. (2008). *Inside the Hermit Kingdom : The 1884 Korea Travel Diary of George C. Foulk.* United Kingdom: Lexington Books.

<인터넷 검색자료>

국제여성박물관협회 홈페이지 https://iawm.international/(2020.1.13. 검색)

국립여성사 전시관 홈페이지 http://eherstory.mogef.go.kr/(2020.1.13. 검색)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womenandwarmuseum.net/contents/main/main.asp(2020.3.6.~3.9. 검색)

전남여성문화 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jwomen.or.kr/subpage/?site=women&mn=758(2020.3.6.~3.9. 검색)

제주여성역사문화 전시관 홈페이지
http://www.jeju.go.kr/swcenter/exhibit-show/exhibit.htm(2020.3.6.~3.9. 검색)

광주여성전시관 홈페이지
https://www.gjwf.or.kr/currentWartime(2020.3.6.~3.9. 검색)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봄 홈페이지
http://www.seoulwomen.or.kr/c4/sub1_2.jsp(2020.3.6.~3.9. 검색)

대구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http://www.dwff.or.kr/pages/board/list.php?board_sid=15(2020.3.6.~3.9. 검색)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forwoman.or.kr/archive/archive_report(2020.3.6.~3.9. 검색)

전남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https://www.jwomen.or.kr/bbs/?b_id=women_life&site=women&mn=670(2020.3.6.~3.9. 검색)

충북여성재단 홈페이지
http://www.cbwf.re.kr/home/sub.php?menukey=433(2020.3.6.~3.9. 검색)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https://gwfri.gwd.go.kr/Home/H60000/H60100/boardList(2020.5.18. 검색)
일신기독병원 홈페이지
http://www.ilsin.or.kr/introduce/vision.htm(2020.9.23. 검색)
한국향토문화전자사전
http://www.grandculture.net/(2020.9.23. 검색)

부 록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부산시가 장기적으로 설치 구상 중인 여성사 전시관(가칭) 준비의 첫 단계로서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여성사 전시콘텐츠를 개발하여 성평등정책의 기초자료 및 여성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사, 문화, 전시 관련한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여성 역사와 문화 발전을 위해 전문가분들께서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의견으로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60조(비밀유지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여성사 전시 관련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 연구책임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정화 연구위원
■ 조사기관 : (주)이강컴퍼니 이지영 연구원 (TEL: 051-862-2078 Fax: 051-862-0503
mail: lkss@lkss.co.kr)

응답자 성명			
핸드폰번호		※ 소정의 답례(모바일 상품권)를 위한 필수기입사항	
조사원		조사날짜	2020년 월 일

응답자 특성

1.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 령 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거주지역	① 부산지역 ② 그 외 지역 ( )시·도
4. 소 속	① 학계(대학, 연구소 등) ② 박물관/전시관 등 ③ 문화예술 기관/단체 ④ 문화/예술가 등(소속없음) ⑤ 여성정책 전문기관 ⑥ 기타 ( )

Ⅰ. 부산여성 역사문화 전시관(가칭) 구성에 관한 질문

본 설문조사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2009년~2011년 3년간 수행한 『부산여성사Ⅰ~Ⅲ』 연구를 통해 발굴한 부산여성의 역사적 활동과 삶, 인물 등의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부산시가 장기적으로 설치 구상 중인 여성사 전시관(가칭) 준비의 첫 단계로서 전시콘텐츠 개발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견 조사에 응답하실 때, 다음의 3년간 연구결과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여성사Ⅰ-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사』의 제1장 조선시대의 여성 인물과 여성상에서는 1.조선시대'인물'개념과 여성의 미덕 2.전쟁과 여성 3.유교 이념의 확산과 열녀의 증가 4.효녀에서 효부로 5.죽음을 무릅쓰고 내세에서 구원을 찾으려 한 옥조이와 박조이를, 제2장 구한말의 여성 인물과 여성상에서는 1.한국 여성과 여성 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두 호주 여성선교사 2.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한 개항장의 여성들 3.근대 속의 전통 창출과 그 여성상을, 제3장 식민지 시대, 부산의 여성들에서는 1.식민지 시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조건, 의식의 변화 2.근대 여성교육 속에서 태어난 부산의 여성들 3.민족운동·여성운동에 앞장 선 부산의 여성들 4.식민지 시대,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부산의 여성인물을, 제4장 부산 산업 발전의 기수 - 신발 '여공'에서는 1.부산의 경공업 실태 2.신발업의 발전 과정 3.산업 역군으로서의'여공' 4.부산 신발 산업의 미래를, 제5장 해방 이후 여성 인물에서는 1.사회·교육 분야 2.여성운동·정치 분야 3.예술 분야를, 제6장 격동기 시장의 여성들과 여성상에서는 1.생존, 부활의 소통공간으로서의 시장 2.자갈치 아지매와 부산 여성 3.한국전쟁과 부산 여성 - 국제시장과 부산진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키운 아지매들 4.부산 여성의 정체성 - 기억과 상징을, 제7장 지역 사회와 미래를 만드는 여성사에서는 1.역사의 주체로서의 부산 여성 2.역사 자료로서의 구술 - 여성 원로, 그 기억의 아뜰리에 3.지역여성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전망과 논의 4.지역여성사의 실천 전략 - 미래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부산여성사Ⅱ-역사 속의 부산여성(고대~근대편)』의 제1장 고대 부산사회와 여성의 삶에서는 1.고대 부산의 시·공간적 범위 2.땅속에서 캐내는 여성의 역사 3.역사 속 숨은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4.여성, 부처와 만나다 5.부산여성과 타지역 여성생활의 차이를, 제2장 고려시대 부산 여성에서는 1.고려시대의 부산지역과 여성 2.귀족가문 여성의 혼인과 가정생활 3.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화를, 제3장 성리학의 지역적 확산과 부산지역사회의 여성에서는 1.유교 규범의 확산과 부산지역의 여성 2.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3.19세기 이후의 변동과 천주교를 수용한 여성들을, 제4장 근대, 깨어나는 부산 여성에서는 1.최초의 개항지 부산의 변화 2.기독교의 전래와 부산여성 3.근대 부산의 여성교육 4.부산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을, 제5장 일제강점하 부산지역의 여성교육과 여성운동에서는 1.일제강점하 부산지역 여성의 삶 2.부산지역의 한국인 여성교육 3.부산지역의 일본인 여성교육 4.신여성의 등장과 의식화 5.부산지역의 여성운동을, 제6장 일제강점기의 경제구조와 부산의 여성에서는 1.일제강점기 부산의 경제구조 2.부산여성의 경제활동과 삶을, 제7장 전시하 부산지역 여성의 삶에서는 1.전시하 부산지역의 시대적 배경 2.군국여성 양성을 위한 교육 3.황국모성의 동원 실태 4.황국신민의 여성관 교육의 귀결을 서술하였습니다.

『부산여성사역사 속의 부산여성(현대편)』의 제1장 부산 현대 여성사 : 그 역사적 풍경에서는 1.20세기 부산여성사를 되돌아보며 2.해방 이후 부산의 역사적 풍경과 여성사를, 제2장 정책, 교육 그리고 경제에서는 1.부산지역 여성정책의 한계와 변화 2.여성과 교육 3.부산경제, 여성경제활동 그리고 여성노동을, 제3장 가족, 문화 그리고 정체성에서는 1.현대의 경제 사회적 변화와 가족 2.대도시로의 발전, 부산여성의 미술과 시각문화 그리고 정체성 3.도시화와 부산 여성의 음악 문화를, 제4장 운동과 연구에서는 1.현대 부산지역의 여성운동 2.부산지역 여성학 연구사와 그 성찰을 서술하였습니다.

1. 귀하는 다음의 전시관 전체 구성(안)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 Ⅲ-해주십시오.

전시콘텐츠 구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상설 전시] 기억의 공간 - 기억의 소환, 부산여성을 만나다 : 시대별, 활동분야별 여성	①	②	③	④	⑤
2) [기획 전시] 역동의 공간 - 과거와 현재를 마주하다 : 이슈별 기획전 구성	①	②	③	④	⑤
3) [미래 세대 전시] 도약의 공간 - 다음 세대와 잇다 : 배움·체험의 공간	①	②	③	④	⑤
4) [복합문화 창출] W-culture 공간 - 문화창출의 주인공이 되다 : 소공연·전시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콘셉 발굴	①	②	③	④	⑤
5) [자료 보존관리] 아카이브 공간 - 기록을 기록하다 : 여성관련 기록, 유품, 작품, 문헌 등	①	②	③	④	⑤

1_1. 추가로 제안하시고 싶은 전시콘텐츠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전시콘텐츠 추가	구성 내용

Ⅱ. 세부전시 공간별 콘텐츠 발굴 및 구성에 관한 질문

2. 귀하는 다음의 '[상설 전시] 기억의 공간' 콘텐츠(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 Ⅲ-해주십시오.

[상설 전시]기억의 공간	전혀 적절하지 않음	별로 적절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부산여성의 시대적 삶과 활동의 주요변천사 - 고대~전근대기, 일제강점기, 현대 등	①	②	③	④	⑤
2) 여성과 민족운동 : 일신여학교 중심의 독립운동, 국채보상운동 등	①	②	③	④	⑤
3) 여성과 전쟁 : 조선시대 동래성전투의 두 무명의녀, 임시수도시절 피난여성들 등	①	②	③	④	⑤
4) 여성과 항구 : 자갈치아지매 등 국제·부산진·동래시장 상인	①	②	③	④	⑤
5) 여성과 노동 : 신발업계 여성, 조선방직·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등	①	②	③	④	⑤

[상설 전시]기억의 공간	전혀 적절하지 않음	별로 적절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6) 여성과 교육 : 근대교육의 산실 일신여학교, 경남여고 등	①	②	③	④	⑤
7) 여성과 문화 : 문화예술계 여성활동 조명	①	②	③	④	⑤
8) 여성과 (민주화)운동 등	①	②	③	④	⑤
9) 활동영역별 개별인물 조명 -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예술 등 분야의 여성 인물	①	②	③	④	⑤

2_1. [상설 전시] 공간에 추가로 제안하시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콘텐츠 추가	구성 내용

3. 귀하는 다음의 '[기획 전시] 역동의 공간' 콘텐츠(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 Ⅲ-해주십시오.

[기획 전시] 역동의 공간	전혀 적절하지 않음	별로 적절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주제별 기획 전시 - 부마항쟁 시 여성민주화운동, 군위안부 자료(부산/시모노세키 관부재판), 여성장인(무형문화재) 등	①	②	③	④	⑤
2) 양성평등문화 확산 위한 전시 - 여권통문의 날(9월) 기념 등 여성활동, 운동 등 기획	①	②	③	④	⑤
3) 여성주의 작가, 예술가 작품 전시 - 부산여성의 잠재력을 창출하는 현존하는 예술활동 등 조명	①	②	③	④	⑤
4) 동북아해양수도 부산 이미지 부각 전시 - 부산여성정책사, 이주여성 문화 전시 등	①	②	③	④	⑤
5) 재조명 역사인물 기획 전시 - 안성녀(독립운동), 권은해(운동), 김순영(교육·사회사업) 등	①	②	③	④	⑤

3_1. [기획 전시] 공간에 추가로 제안하시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콘텐츠 추가	구성 내용

4. 귀하는 다음의 '[미래 세대 전시]도약의 공간' 콘텐츠(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 Ⅲ-해주십시오.

[미래 세대 전시] 도약의 공간	전혀 적절하지 않음	별로 적절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교육공간 - 아동·청소년 등의 학습 기회, 퀴즈코너 운영 등	①	②	③	④	⑤
2) 기록코너 - 나·우리를 기록하는 코너	①	②	③	④	⑤
3) 여성인물지도 만들기 체험 -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예술분야 인물의 생가·활동지역	①	②	③	④	⑤
4) 부산여성역사문화 홍보물 만들기 체험 - 부산여성의 역사와 문화 등을 홍보하는 미니 안내지 제작	①	②	③	④	⑤
5) 탐방프로그램 만들기 체험 - 부산여성의 정체성을 잘 부각할 수 있는 탐방프로그램 기획	①	②	③	④	⑤

4_1. [미래 세대 전시] 공간에 추가로 제안하시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콘텐츠 추가	구성 내용

5. 귀하는 다음의 '[복합문화 창출] W-culture 공간' 콘텐츠(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 Ⅲ-해주십시오.

[복합문화 창출] W-culture 공간	전혀 적절하지 않음	별로 적절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무명 예술가 및 활동가들의 작품 전시 - 문화예술 분야 활동가들의 작품전 및 교류	①	②	③	④	⑤
2) 다양한 영역의 활동 주인공 소개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창출의 오픈 스페이스 운영 : 소모임 소개 등	①	②	③	④	⑤
4) 소통 한마당 : 소규모 공연, 열린 좌담 등	①	②	③	④	⑤

5_1. [복합 문화 창출] 공간에 추가로 제안하시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콘텐츠 추가	구성 내용

Ⅲ. 전시방법(안)에 관한 질문

6. 귀하는 다음의 전시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 Ⅲ-해주십시오.

전시방법	전혀 적절하지 않음	별로 적절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역사적 사건,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해설) - 부산여성역사문화 해설사 활용 등	①	②	③	④	⑤
2) 역사문헌, 유물, 작품 등 자료 전시	①	②	③	④	⑤
3) 역사적 사건, 상황을 담은 사진 및 신문기사 전시	①	②	③	④	⑤
4) VR(가상현실) 체험,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전시	①	②	③	④	⑤
5) 당시 상황을 재현한 미니어처 제작, 전시	①	②	③	④	⑤
6) 예술가들의 캐리커쳐 제작을 통한 역사 재현, 전시	①	②	③	④	⑤

6_1. 위에 제시된 전시방법 외에 추가로 제안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전시방법 추가	내용

Ⅳ. 부산여성사 전시관 기능, 명칭, 역사문화 정책에 관한 질문

7. 귀하는 부산여성사 전시관이 설치될 경우, 제한된 공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에서 우선순위 3가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보기	
	① 상설전시관 운영 : 시대별, 활동분야별 여성 ② 기획전시관 운영 : 이슈별 기획전 구성 ③ 미래세대 전시관 운영 : 교육 및 체험 공간 ④ 복합문화(W-culture) 창출 공간 : 소공연·전시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콘셉 발굴 ⑤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 기록, 유품, 작품, 문헌 등 ⑥ 기타 ( )

8. 향후 부산지역에 여성사 전시관(가칭)이 설치될 때, 귀하께서 제안하고 싶은 명칭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예시 】

	제안 명칭	제안 설명
부산여성사 전시관	별의별 성평등 전시관	- 부산여성의 삶과 활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발굴, 기록, 보존, 전시한다는 의미
	역사와 미래를 여는 공간	- 부산여성의 역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여성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소통 공간의 의미

【 제안 】

	제안 명칭	제안 설명
부산여성사 전시관		

9. 귀하는 부산시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 정책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대체로 높음 ③ 비슷함 ④ 대체로 낮음 ⑤ 매우 낮음

10. 귀하는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에서 우선순위 3가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보기	① 부산여성역사문화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② 부산여성사 전시관 설치위원회 운영 및 전시관 설치 ③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문헌 수집, 보존, 관리 ④ 부산여성역사문화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작업 ⑤ 부산여성 역사문화 발굴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 ⑥ 여성문화 교류 및 네트워킹 ⑦ 기타 ( )

11. 귀하는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할 때 다음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에서 우선순위 3가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보기	① 항일운동의 발자취 : 부산지역 3·1운동을 주도한 일신여학교(근대교육과 민족운동의 산실) ② 항일운동의 발자취 : 박차정 생가와 동상(민족운동, 여성운동) ③ 노동운동의 현장 등 : 조선방직·고무공장 여성노동자의 투쟁, 신발산업 여성들의 삶의 현장 ④ 삶의 현장 : 자갈치 아지매 등 국제·부산진·동래 시장의 여성상인들 ⑤ 여성과 전쟁 :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전투에서 싸우다 죽은 두 무명 의녀, 임시수도 피난민시대 여성 ⑥ 부산여성의 문화예술 발자취 : 문학·예술·음악·영화 등 문화 전반의 활동상과 현장 ⑦ 기타 ( )

12. 부산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이슈화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콘텐츠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적어 주십시오.

기간	내용	이유
단기		
장기		

13.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보존, 전시와 관련한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중 부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제안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보고서 2020-14

부산지역 여성역사문화 전시콘텐츠 개발 연구

2020년 10월 30일 인쇄
2020년 10월 30일 발행

발행인 : 성 향 숙
발행처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
TEL. 051) 330-3400 FAX. 051) 363-3759

인쇄처 : 디자인 다인
TEL. 051) 242-4837 FAX. 051) 242-4840

ISBN : 979-11-5575-112-1 93330 <비매품>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